

국제 무역 · 분업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 2020. 06. -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된 것으로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산업연구원 민혁기

〈목차〉

〈요약〉	1
I. 서론	16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6
2. 연구의 구성	20
II.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상환경 변화	22
1. 보호무역주의 확산	24
2. GVC 성장 둔화	31
3. 중국 경제 정책 및 수입구조 변화	38
4. 미-중 무역갈등	44
5. 코로나-19를 포함한 불확실성 증대	51
6. 국제분업구조	56
III. 수출구조의 변화	61
1. 금융위기 이후 한국 수출 변화 추이	61
2. 산업별 수출구조의 변화	63
3. 지역별 수출구조의 변화	68
4. 가공단계별 수출구조의 변화	75
5. 소결	79
IV. 미-중 무역분쟁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82
1. 미-중 무역분쟁의 경과	83
2. 미-중 무역분쟁의 파급효과 분석 모형	89
3. 미-중 무역분쟁의 파급효과 분석 결과	92
4. 소결	98
V. 경쟁력지수를 활용한 수출 유망지역 및 품목 분석	101
1. 분석 방법론	101

2. 분석자료	103
3. 분석결과	103
 VI. 통상 정책을 수립을 위한 시사점	116
1. 대외개방형 통상정책의 지속적 추진	117
2. 통상리스크 관리 및 축소를 위한 정책추진	120
3. 통상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전략 모색	125
4. 글로벌 통상강국으로의 도약	129
 참고문헌	133

〈표 차례〉

〈표 II-1〉 보호주의 무역조치 도입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에 관한 견해	25
〈표 II-2〉 철강 관세부과 관련 이익집단의 활동	26
〈표 II-3〉 미국 보호주의 무역조치에 대한 주요국들의 법률적 대응 현황	30
〈표 II-4〉 중국의 가공무역 금지 및 제한조치 현황	40
〈표 II-5〉 중국제조 2025 내용	41
〈표 II-6〉 중국 경제의 비중 (대세계 대비)	42
〈표 II-7〉 미국의 제조업 무역적자의 무역 상대국별 비중	44
〈표 II-8〉 미-중 무역갈등 전개	46
〈표 II-9〉 세계 실질 GDP 성장률 예상	54
〈표 II-10〉 상황별 세계 실질 GDP 성장률 예상치	54
〈표 II-11〉 중국 최종재 수출에서의 글로벌 공급망 추이	57
〈표 II-12〉 최근 기업의 탈중국 움직임	59
〈표 III-1〉 산업별 세계 수출액 추이	64
〈표 III-2〉 산업별 세계 수출비중 변화	65
〈표 III-3〉 한국의 산업별 수출 추이	66
〈표 III-4〉 한국의 산업별 수출비중 변화	67
〈표 III-5〉 주요 지역별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70
〈표 III-6〉 주요국(지역)의 세계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71
〈표 III-7〉 한국의 지역별 수출 추이	72
〈표 III-8〉 지역별 수출비중 변화	75
〈표 III-9〉 가공단계별 세계 수출액 추이	76
〈표 IV-1〉 미-중 무역분쟁의 주요국 거시경제 파급효과-1	94
〈표 IV-2〉 미-중 무역분쟁의 주요국 거시경제 파급효과-1	96
〈표 V-1〉 시장매력도 및 항목별 순위	105
〈표 V-2〉 대중국 품목매력도 순위 및 항목별 점수	107
〈표 V-3〉 대베트남 품목매력도 순위 및 항목별 점수	109
〈표 V-4〉 대말레이시아 품목매력도 순위 및 항목별 점수	111
〈표 V-5〉 대인도 품목매력도 순위 및 항목별 점수	113
〈표 V-6〉 대미국 품목매력도 순위 및 항목별 점수	115
〈표 VI-1〉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과의 교역현황	118
〈표 VI-2〉 우리나라 FTA 수출 활용률	119
〈표 VI-3〉 일본 수출 규제 이후 대응 성과	122

〈표 VI-4〉 우리나라 산업별 수출비중과 세계 산업별 수출 비중 (2018)	123
〈표 VI-5〉 수입에서 차지하는 지역별 비중	125
〈표 VI-6〉 277개 중견/중소 기업 대상 스마트 공장 추진 성과	128
〈표 VI-7〉 원조공여국으로서의 한국의 차별화된 특성	132

〈그림 차례〉

〈그림 I-1〉 세계 무역 추이	16
〈그림 I-2〉 교역 형태별 GDP 비중 변화	17
〈그림 I-3〉 재화서비스 수출의 성장기여도	19
〈그림 I-4〉 내수 VS. 수출의 성장기여	20
〈그림 II-1〉 GDP 성장률, 수출증가율, GDP 대비 수출비중	23
〈그림 II-2〉 실행관세율 추이	27
〈그림 II-3〉 TBT 통보의 연도별 추이	27
〈그림 II-4〉 주요 비관세 장벽 도입건수	28
〈그림 II-5〉 전체무역 대비 GVC 무역 비중	31
〈그림 II-6〉 ICT 활용 현황과 물류관련 비용 추이	32
〈그림 II-7〉 전세계 GVC 참여도 추이	33
〈그림 II-8〉 명목 GDP 대비 형태별 교역비중	33
〈그림 II-9〉 중간재 수입비중	34
〈그림 II-10〉 GVC 무역과 전통무역 증가율	35
〈그림 II-11〉 자동차 부문별 시장 규모 변화	38
〈그림 II-12〉 중국 경제성장률 추이	39
〈그림 II-13〉 중국 총수요 구성 비중 변화	39
〈그림 II-14〉 주요 산업의 수입대체 목표	41
〈그림 II-15〉 세계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42
〈그림 II-16〉 중국 생산단계별 수입비중	43
〈그림 II-17〉 중국의 중간재 기술수준별 수입 비중	43
〈그림 II-18〉 중국기업의 성장	45
〈그림 II-19〉 미국의 대중인식 변화	47
〈그림 II-20〉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대중국 비호감도	48
〈그림 II-21〉 전세계 대비 미국과 중국의 GDP, 수출, 수입 비중	49
〈그림 II-22〉 데이터 흐름의 변화 추이	52
〈그림 II-23〉 ICT기반 서비스 무역 현황	52
〈그림 II-24〉 상품별 매출액 증감	53
〈그림 II-25〉 코로나 19 시나리오별 무역량 전망	55
〈그림 II-26〉 FDI 추이	56
〈그림 II-27〉 중국의 생산단계별 수출입비중 변화 추이	57
〈그림 II-28〉 아세안과 인도의 생산단계별 수출	58

〈그림 II-29〉 아세안과 인도의 생산단계별 수입	59
〈그림 III-1〉 최근 주요 경제위기 이후 GDP 및 무역 변화 추이	62
〈그림 III-2〉 한국의 수출 추이	63
〈그림 III-3〉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의 수출비중 변화	69
〈그림 III-4〉 가공단계별 세계 수출비중 변화	77
〈그림 III-5〉 한국의 가공단계별 수출비중 변화	78
〈그림 IV-1〉 미국과 중국의 가중평균 관세 추이	86
〈그림 IV-2〉 트럼프 집권 후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와 비중	88
〈그림 IV-3〉 미중 분쟁의 한국 거시경제 파급효과 1	95
〈그림 IV-4〉 미중 분쟁의 한국 거시경제 파급효과 2	97
〈그림 IV-5〉 총수출의 부가가치율	99
〈그림 VI-1〉 우리나라 주요산업 수출비중	124
〈그림 VI-2〉 한국 문화컨텐츠에 대한 호감도	126

<요 약>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통상환경은 급변

- 주요국은 자국 산업과 기업 보호를 위한 보호주의 무역조치 도입
- 글로벌 가치사슬 성장이 둔화하기 시작하였으며, 경제위기에 취약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태생적 문제점이 부각
- 미-중간 무역갈등은 점차 패권경쟁 특성을 보이며 장기화 국면으로 진입
- 신흥국들의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역할 축소 가능성은 더욱 확대
- 코로나-19 등 글로벌 불확실성은 점차 빈번하게 발생

☐ 글로벌 경제의 “New Normal” 진입

- 세계 경제는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로 대표되는 경제로 진입
- 이전 위기 시기에 보여주었던 위기 이후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교역의 회복과 안정적 성장은 이번 위기 시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위기 이전의 성장 궤도로 복귀가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

☐ 우리 수출 부진이 지속하는 가운데 새로운 교역 및 수출 확대전략 필요

☐ 최근 교역환경 변화에 따라 수출 부진 지속

- 세계무역은 금융위기 이전의 성장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무역 또한 부진한 흐름을 보이며 세계무역과 동조화 경향 강화
- 그 결과 우리나라 수출의 경제 성장기여도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세계 수요의 축소는 세계무역과 우리나라 무역을 더욱 둔화시킬 것

○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수출 및 교역확대 전략 필요

- 개발연대에 수출은 우리나라 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임무를 수행하였으나, 최근 수출 성장엔진은 서서히 식고 있음
- 향후 지속적이며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한 수출 및 교역확대 전략 수립이 필요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상환경 변화

□ 금융위기 전후 글로벌 경제에 구조적 변화 발생

○ 이전 위기와는 차별화되는 경제 회복과정

-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및 교역은 주요국의 무제한 양적 완화에도 불구하고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위기와 차별화
- 특히, 글로벌 교역의 성장률은 경제성장률에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 성장률을 웃돌며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시기와는 확연하게 대비

○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그리고 교역 둔화로 대표되는 New Normal 시기 진입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것은 경제에 발생한 구조적 변화에 기인

□ 보호주의 확산

○ 보호주의 무역조치 도입을 통한 자국 산업 보호와 고용 확대 추진

- 보호주의 무역조치는 위기 시 자국 경제 보호를 위해 가장 손쉽게 활용되는 정책으로, 국가 간 보복적 정책을 초래하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킴
-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하게 도입하고 있는 보호주의 무역조치는 경제적 목적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실행되는 것으로 보임

○ 자유주의 무역 기조의 쇠퇴 그리고 글로벌 성장에 부정적 영향

- 보호주의 무역조치 도입 확산은 20세기 후반부터 글로벌 성장을 이끌었던 자유주의 무역 기조의 쇠퇴를 초래하여 세계 경제의 회복을 더욱 어렵게 함
- 또한, 자원 배분의 왜곡으로 경제 내 비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경쟁을 약화시켜 생산성과 혁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중장기 측면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을 억제

□ GVC 성장 둔화

○ 세계무역 성장을 주도한 글로벌 가치사슬 성장 둔화

- 세계 국가들의 생산 비교우위에 기초하여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세계 무역 성장을 주도한 글로벌 가치사슬은 금융위기 전후 성장세가 둔화
- 이러한 현상은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 가능한 국가와 적용 가능한 산업에서 이미 충분히 성장하여 현재 기술하에서는 추가적인 확대가 매우 어렵기 때문으로 인식되고 있음

○ 글로벌 가치사슬의 태생적 특성 역시 추가적 확대를 제약

- 수요탄력성이 커서 위기 시에 더욱 급속하게 위축되는 GVC 무역은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함에 따라 지속적인 확대 가능성이 더욱 제약됨

- 또한, 급변하는 소비자들의 기호와 소비자 맞춤형 생산을 요구하는 최근 흐름을 충족시키기에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긴 생산공정은 부적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

○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구축과 서비스 분야에서의 가치사슬 확대 필요

-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다국적기업은 글로벌 가치사슬을 다변화하거나 안정적 생산기지를 중심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을 재구축할 유인이 강하고
- 디지털 경제의 강화 경향에 따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구분이 사라지고 있으며, 가치사슬 확대를 위해 서비스업의 역할 확대가 중요해짐

□ 중국의 경제 정책 및 수입구조 변화

○ 성장에서 안정으로

- 개혁개방 이후 지속된 성장중심 경제 정책은 중국 경제 불균형의 심화시켰으며, 최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경제 구조조정이 추진됨
- 중국 경제 정책 변화의 핵심은 경제성장을 견인하였던 투자와 수출 중심 경제를 소비중심의 경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중국 경제의 리스크 완화를 달성하고자 함
- 또한, 교역의 규모만을 키웠던 가공무역을 지양하고, 자국 산업 육성정책을 통해 수입부품과 소재를 대체하고자 함

○ 중국 경제 정책 변화는 글로벌 중간재 교역에 막대한 영향

- 가공무역을 제한하는 정책은 중국의 중간재 수입을 급격하게 축소하고 있으며, 중국으로 중간재 수출 비중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 반면, 중국산업 굴기를 목표로 하는 ‘중국제조 2025’는 중국산업의 고

부가가치화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그 과정에서 고부가가치 중간재의 수입은 오히려 증가

□ 미-중 무역갈등 지속

○ 대중 무역적자라는 표면적 이유

- 미-중 무역갈등은 표면적으로는 중국의 과도한 대미 무역 흑자에 있으며, 실제 대중국 무역적자가 미국 무역적자의 50%를 상회
- 미국은 대중국 무역적자 이면에 중국 정부가 취한 자국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수입제한,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 등 불공정 무역정책이 자리하고 있음을 지적
- 반면, 중국은 이러한 무역적자 규모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산하에서 부가가치를 고려하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다고 주장

○ 미래기술을 둘러싼 G2 간 글로벌 패권경쟁

- 미-중 무역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미래기술을 둘러싼 미-중간 글로벌 패권경쟁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으로, ‘중국제조 2025’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갈등이 점증
- 미국은 중국의 전략에 대응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첨단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개별 제재 및 미국 첨단기업에 대한 중국 투자 제한 등의 조치로 대응

○ 경쟁을 넘어 대결의 시대

- 과거 중국의 WTO 가입을 용인하며, 중국을 글로벌 파트너로 상대했던 미국의 대중국 인식이 중국의 성장과 함께 중국은 전략적 도전자라는 인식으로 변화
- 중국 또한 그동안의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국가가 주도하는 중국식 사회

주의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

- 2019년 말 봉합된 미-중 무역갈등은 향후 G2 간의 대결국면에서 시시때때로 부각 될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경제는 미-중 간의 디커플링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에 의해 독자적으로 구축될 글로벌 가치사슬의 특정 진영에 설 것을 강요받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

□ 코로나-19를 포함한 불확실성의 증대

○ 디지털 생산, 소비, 통상의 확대

- 코로나-19 이전으로 글로벌 경제 복귀는 불가능할 전망이며,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이 이전 시기 활동을 대체
- 비대면 소비, 스마트 공장의 확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통상 등이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과 ICT 서비스 부문의 확대가 예상됨
- 통상환경도 산업별/분야별로 불균등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료서비스, ICT 서비스 등은 긍정적 영향을 다수의 제조업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

○ 탈세계화의 가속화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향후 수년간 경제성장의 정체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며,
- 주요국은 보호주의 무역조치 도입 확산, 리쇼어링이나 니어쇼어링으로 대표되는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추진 등 자유무역에 기초한 세계화에 역행하는 탈세계화 흐름이 강화될 것

□ 국제 분업구조의 변화

○ 아세안 및 인도의 부상과 중국의 영향력 축소

- 중간재 수입 비중 정체와 원자재 수입이 증가하는 중국의 수입 비중 변화는 국제분업구조에서 중국의 생산기지로서의 영향력이 정체되고 있음을 시사
- 실제, 중국의 최종재 수출에서 제3국 생산 중간재 투입 비중은 최근 급격하게 감소(2005년 0.64→2014년 0.43)하는 반면
- 아세안과 인도는 최종재 수출 비중이 점차 증가하며 생산기지로서 중국 역할을 일정부분 대체(아세안 2011 최종재 수출 비중 29.7%→2018년 39.8%)

○ 주요 제조 다국적기업들의 탈중국화 확대

- 미-중 무역분쟁의 지속, 중국의 가공무역 억제정책, 그리고 경제성장에 따른 비용상승 등으로 주요 글로벌 제조기업들의 중국 이탈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움직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세안 및 인도의 제조역량 강화와 비용 측면에서의 이점이 제조기업의 탈중국 현상과 결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더불어 미국과 중국의 독자적 생산네트워크 구축 경향은 국제분업구조에서 중국의 역할 축소를 가속화 할 가능성 또한 존재

3. 수출구조의 변화

□ 산업별 수출구조 변화

○ EU와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고 경기민감형 산업에 영향이 크게 나타남

- EU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수요부족으로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원유, 철광석 등의 원자재와 이를 가공하는 석유제품, 화학제품, 그리고 광물성연료(원유, 천연가스)의 수출은 더 많이 감소

- 또한, 글로벌 경제의 침체 지속으로 인하여 건설 및 설비투자가 급속하게 축소되고 있으며, 이와 연동된 기계류의 수출 역시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

○ 우리나라 수출은 전기·전자산업에서 강세 지속

- 한국의 수출 주력산업인 전기·전자산업은 금융위기 전후인 2007~2012년 시기에 연평균 5.4%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전체적인 수출 둔화가 나타나고 있는 2012~2018년 사이에도 증가율이 연평균 5.3%로 별다른 변동이 없음
- 가전제품인 디지털 TV와 휴대폰 수요가 증가하고, 관련 IT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서 해당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등 부품의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글로벌 수출도 매우 안정적인 수준 유지
- 반면, 석유제품과 조선, 철강제품 등은 2012년 이후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과 중국의 시장 참여로 발생하는 공급과잉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

□ 지역별 수출구조 변화

○ 신흥국의 위상이 강화되는 글로벌 무역

-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신흥국의 비중은 2007년의 42.0%에서 2012년에는 49.3%로 상승하였으며, 선진국의 비중은 58.0%에서 50.7%로 하락. 다만, 2013년 이후에는 신흥국의 무역 비중은 안정적 수준을 유지
- 과거 선진국의 시장 역할에 머물던 신흥국이 주요 국가의 다국적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생산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위치에 올라섬

○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아세안과 중국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

- 우리나라의 지역별 수출 비중도 전 세계 수출 비중 변화 추이와 동조화

되고 있으나,

- 중국과 아세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차별화 되는데, 중국의 수출 비중은 2007년 22.1%에서 2018년 26.8%로 증가하였으며, 아세안은 동기간 10.4%에서 16.6%로 증가
- EU, 중남미, 중동, 일본으로의 수출 비중은 감소추세

□ 가공단계별 수출구조 변화

○ 글로벌 무역 성장을 주도한 중간재 무역의 정체

- 글로벌 무역에서 중간재 무역은 최종재 무역 비중을 넘어섰으나, 글로벌 경기 침체가 본격화된 2012년 이후 중간재 무역 성장은 정체
- 이러한 현상은 중간재 무역이 경기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으로,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이 성숙화되어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고 있음
- 최종재 수출은 최근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이러한 현상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중간재 무역의 성장 정체에 따라 나타난 현상

○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은 금융위기 이후에도 지속적 상승

-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 비중은 2007년의 57.9%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64.1%, 2017년 66.2%로 꾸준히 올라갔으며 2018년에는 70%를 상회
- 세계적인 추세와 차별화되는 이유는 IT 부문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라 IT 관련 제품 수요 증대가 관련 중간재 수출증가를 견인한 것
- 또한, 우리나라의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 따라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중간재 수출 증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으로의 투자 진출에 증가에 따

른 중간재 수출 확대는 현저하게 나타남

4. 미-중 무역분쟁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 미-중 무역분쟁의 파급효과를 분석을 위한 모형

○ 세 가지 효과를 분석

- 미-중 무역분쟁의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서 발생 가능한 직접효과, 간접효과, 무역전환 효과를 분석
- 직접효과는 미-중 무역분쟁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관세부과 시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함으로써 중국 내에서 해당 품목 생산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중간재 수요가 감소함으로써 발생
- 간접효과는 미-중 무역분쟁 결과 전 세계 소득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대세계 수출이 감소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미 그리고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여 발생하는 효과
- 마지막으로 무역전환 효과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부과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하던 우리나라 기업 상품의 상대적 경쟁력이 강화되어 수출이 증가하는 효과를 의미

○ 시나리오별 효과 분석

- 무역전환 효과가 없다는 가정하에 분석한 기본 모형을 설정하고
- 무역전환 효과를 각각 10%와 30%로 가정한 후 기본 모형에 무역전환 효과를 추가하여 분석

☐ 분석결과

- 무역분쟁으로 30% 관세를 부과한다는 가정하에 기본 모형 분석 시 우리나라의 GDP, 수출 및 고용은 각각 -0.22%, -0.52% 그리고 -0.18% 감소

○ 10% 무역전환 효과 고려 시

- 미-중 분쟁이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 부분 완화
- 우리나라의 GDP 감소 폭은 기존 -0.22%에서 -0.10% 축소되고, 특히 무역전환 효과는 수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기본 시나리오에서 우리 수출이 -0.11% 감소하지만, 무역분쟁이 격화되어 미-중 양측이 상호 25%의 관세를 부과하여 상황에서는 무역전환 효과로 인한 대미 수출증가가 0.04% 발생하여 전체 수출은 0.0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 우리나라 고용 감소 폭도 -0.18%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 기본 모형에서 무역전환 효과의 고려 시 -0.08%만 축소되는 것으로 분석
- 특히 미-중 분쟁의 최대 수혜자는 베트남으로 분석되어 수출과 GDP 그리고 고용에서 각각 1% 이상, 1.17% 그리고 0.1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전 세계 GDP, 수출, 고용은 각각 -0.30%, -1.41%, 그리고 -0.29%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 30% 무역전환 효과 고려 시

- 추가적인 분석은 무역전환 효과가 30% 수준으로 높다고 가정하고 무역분쟁을 분석할 경우 무역분쟁의 직간접효과를 상쇄하는 전환효과로 인하여 우리 경제에 일정 정도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제시
- 구체적으로 무역전환 효과를 30%로 상정하고 분석하면 우리나라의 GDP, 수출, 고용은 각각 0.15%, 0.81% 그리고 0.1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 그러나 이러한 가정하에서도 미국이 전 세계에 자동차 관세인상을 시도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하에서는 GDP, 수출, 및 고용이 각각 -0.25%, -0.63%, -0.21% 감소
- 무역전환 비중을 높게 설정할수록 전 세계에 미치는 충격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국가에서 반사이익을 얻는 것으로 분석됨

5. 경쟁력지수를 활용한 수출 유망지역 및 품목 분석

□ 분석 방법론

- 개별국가와 품목을 기준으로 다양한 수출 및 경제지표를 종합한 매력도 지수 도출
 - 유망 수출시장 매력도는 수출 상대국가의 시장 크기를 나타내는 GDP와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GDP, 그리고 성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GDP와 GDPPC의 연평균 성장률 수치를 활용하여 산출
 - 수출상품 경쟁력은 한국과의 양자 간 수출입자료를 활용하여 HS 6단위 수준에서 현시비교우위지수와 시장비교우위지수를 활용하여 산출

□ 분석결과

- 수출시장 매력도
 - 수출시장 매력도 평가에서 중국(CHN)이 90.5 점으로 가장 진출이 유망한 시장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베트남(VNM), 말레이시아(MYS), 인도(IND), 싱가포르(SGP)등 주로 신남방 지역이 상위권을 차지.
 - 20위권 국가들은 대부분 신남방지역으로 분류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며 이들은 시장매력도 최종 점수는 비슷하지만, 항목별 점수 구성은 상이함
 - 베트남은 시장 규모 순위는 낮지만, 수출시장 점유율이 상위권이고 성장성 지표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3위인 말레이시아는 세 가지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고른 순위를 보여줌
- 주요 수출시장 품목매력도
 -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품 중 매력도가 가장 높은 품목은 전통적

인 수출 주력품목인 메모리반도체(854232)로 5년 평균 수출액은 469억 달러로 다른 품목보다 수출 규모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20위권 내 수출품목에서는 28(무기화학품)과 29(유기화학품)에 속하는 품목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

- 베트남 시장에서는 NRCA와 NMCA를 적용하여 품목매력도 상위 20개 품목을 살펴본 결과 유기화학물 제품인 291735(무수프탈산)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다음이 선박탱커(890120)로 나타났으며, 반도체나 집적회로 등의 전자기기 제품군(85)의 품목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진
- 말레이시아 시장에서는 28(무기화학품)과 29(유기화학품)에 속하는 품목과 72(철강)과 74(동제품)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진되어 있으며, 수출금액으로 1위와 2위를 차지한 품목은 첨단섬유 제품인 400251(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고무의 라텍스)와 선박탱커(890120)로 분석됨
- 인도 시장에는 철강제품(72)과 29(유기화학품) 및 39(플라스틱 제품) 등이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다른 국가들과 달리 NRCA 순위와 NMCA 순위 간의 격차가 크지 않은 것이 특징이며, 우리나라의 주력수출품인 전자기기 제품군은 상위 순위에 적게 분포되어 있음
- 미국 시장의 경우 다른 국가와 달리 다양한 제품들이 상위 20위권에 수출 유망품목으로 분포된 것이 특징으로 품목 매력도가 가장 높은 제품은 845129(건조기)로 가전제품이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철강제품 중에서 강관이나 파이프 종류(730629, 730619)의 제품이 높은 순위에 위치

6. 통상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

□ 대외개방형 통상정책의 지속적 추진

○ 기체결 FTA의 고도화와 신규 FTA의 지속적 추진

- FTA는 효과적인 보호무역주의의 대응방안으로 이를 고도화하고 현재 진행 중인 FTA를 신속하게 추진

○ 자유무역 기조 유지를 위한 협력 확대

- 미-중 갈등을 포함한 글로벌 보호무역 조치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지역협력을 강화하고, 우리와 입장을 공유하는 관련국과의 공조를 통한 글로벌 이슈 공동 제기 등을 통한 보호주의 배격과 자유무역 기조 유지 노력

□ 통상리스크 관리 및 축소를 위한 정책추진

○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 대응

- 미-중간 디커플링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공급망을 구축하되, 최근 가장 핵심적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과 인도를 그 중심축에 선정
- 또한,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요 산업의 국내 공급망을 구축

○ 무역집중도 개선

- 우리나라 수출이 IT 관련 전기·전자 부품에 집중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요 업종별 경쟁력 강화와 수출 다변화 추진
- 또한,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 지역 다변화를 추진하되, 이는 앞서 언급한 공급망의 구축과 연계되어야 함

□ 통상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전략 모색

○ K-Brand를 활용한 통상확대

- 최근 급상승한 국가브랜드의 호감도와 K-방역의 모범을 활용하여 신산업 및 신기술 분야의 선도를 위한 전략을 마련
- 소재/부품 등 중간재를 넘어서 소비재 및 의료분야 교역 확대 추진

○ 주요 산업의 핵심 활동 국내 유치

- 코로나 대응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정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다국적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재배치 시 국내 유치를 추진

○ IT 기술을 활용한 역 비교우위 전략 추진

- 또한, 앞선 IT 기술을 활용하여 이전에 동남아시아 및 중국이 누렸던 비용 측면의 이점을 우리가 국내에서 얻을 방안 모색
- 또한, R&D와 생산 등 생산 관련 활동들을 한곳에 위치 지움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점을 활용하는 방안 모색

□ 글로벌 통상강국으로의 도약

○ 교역 상대별 차별화된 전략 추진

- 개도국과의 협력은 수출보다는 교역에 초점을 두고 해당국의 교역 확대와 이를 통한 성장추구를 지원
- 주요 국가와의 협력은 상호 니즈에 기초한 기술협력이나 표준협력을 수행함으로써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식 도출

○ 통상강국으로서의 위상 정립

- 글로벌 통상강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국내 통상조직(통상본부)을 안정적으로 강화
- 또한, 국제기구 내 활동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위상 강화와 함께 논의 주도를 통한 실질적 통상 이익 획득
- 우리나라의 강점을 살린 ODA의 효과적 활용을 통해 상대국의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해당국 내 향후 입지 확보

I.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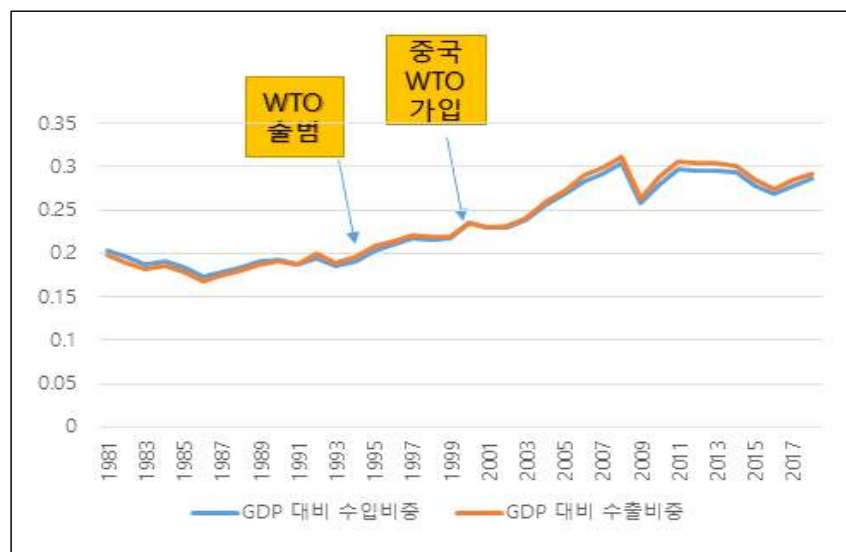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무역 둔화

○ 금융위기 이전 세계무역은 지속적 성장세 유지

- 1990년대 이후 세계무역은 WTO의 출범, 중국 및 동유럽 국가들의 국제 무대 진입함에 따라 지속적 성장세 유지

<그림 I-1> 세계무역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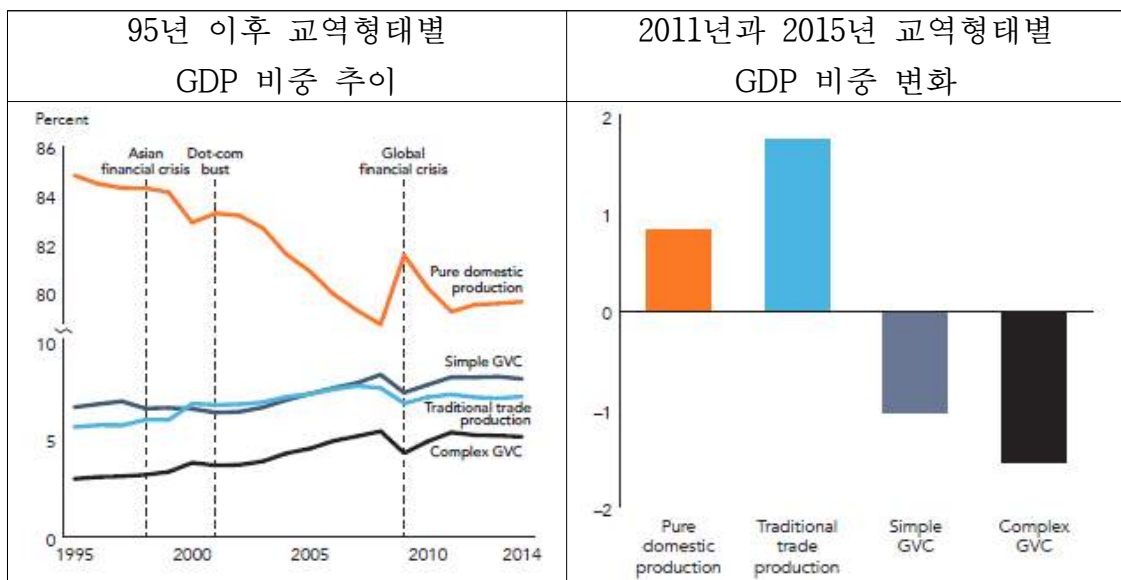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의 확장은 세계무역을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방식과 수준으로 확대하여, GDP 대비 수출입 비중이 1981년 20.3%와 19.8%에서 각각 2018년 28.6%와 29.2%로 증가
- 세계 주요국의 다국적기업은 IT 인프라 구축 확대와 물류 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계무역 확대과정에서 핵심적 역할 수행

○ 2008~9년 금융위기는 글로벌 통상환경을 급격하게 변화시킴

- 주요국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자국 산업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주의 무역정책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 그동안 국제 무역 확산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던 글로벌 가치사슬은 경제위기 시 국제 무역에 더욱 큰 충격을 주는 특성과 함께 내재하여 있던 글로벌 가치사슬의 문제점들이 속속 나타나기 시작

〈그림 I-2〉 교역형태별 GDP 비중 변화



자료: WTO

- 지난 수십 년간 글로벌 가치사슬 구축이 가능한 산업에서 그 확장을 지속한 결과 현재 기술하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을 추가로 확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고위기술산업에서 중국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중국제조 2025’ 전략은 글로벌 패권경쟁 측면에서 미-중간 긴장 관계를 조성하여 글로벌 교역을 위축시킴
- 특히, 패권경쟁 특성을 보이는 미-중 갈등은 장기적으로 지속할 현상임
- ‘중국제조 2025’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중국은 제조 강국 달성을 위해 자국 내 부품/소재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강화

함으로써 글로벌 가치사슬의 핵심축을 담당하는 중국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는 환경 조성

- 더불어 최근 중국의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중국을 대체하는 신흥개도국들이 대거 국제무대에 진출하기 시작하며, 글로벌 분업구조의 변화 조짐이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아세안의 글로벌 분업구조 참여 확장세가 두드러짐
- 마지막으로 최근 Corona 19는 통상과 관련된 대부분의 관행을 바꾸고 있으며, 디지털 무역은 이러한 환경하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음

○ 글로벌 경제의 “New Normal” 진입

- 세계 경제는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가 지속되는 경제로 진입을 한 것으로 평가되며
- 이전 위기 시기에 보여주었던 위기 이후 급격한 교역의 회복과 안정적 성장은 이번 환경변화에서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가운데, 위기 이전의 성장 궤도로 복귀가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

□ 우리나라 수출 또한 동반 부진

○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을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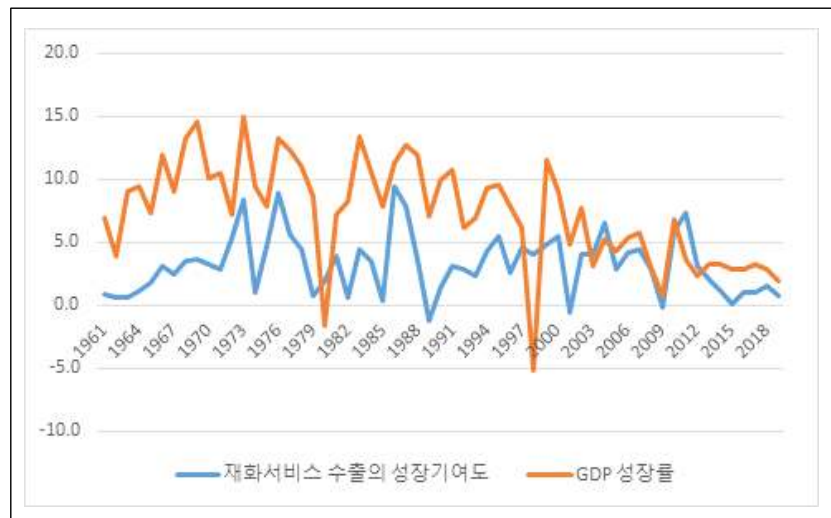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1960년대 경제성장 시작 이래 협소한 내수시장을 극복하고 지속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수출 주도형 경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
- 수출 주도형 경제 정책은 우리나라의 지속적 고도성장에 기여했으며, 수출의 성장기여도를 통해 명확하게 증명됨
- 그 결과 우리나라는 2011년에 교역 1조 달러 국가에 속하게 되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등 몇몇 국가에서만 달성되었음
- 이제 우리나라는 글로벌 교역에서 주변부에 있는 국가가 아닌 핵심 입

무를 수행하는 국가임을 입증된 것

○ 최근 교역환경 변화에 따라 수출 부진 지속

- 세계무역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나타난 통상환경에 변화에 따라 금융위기 이전 성장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 우리나라 수출 역시 비슷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음
- 그 결과 우리나라 수출의 경제 성장기여도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음

〈그림 I-3〉 재화 및 서비스 수출의 성장기여도



자료: 한국은행

- 특히,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세계 수요의 축소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의 수출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단기간에 전환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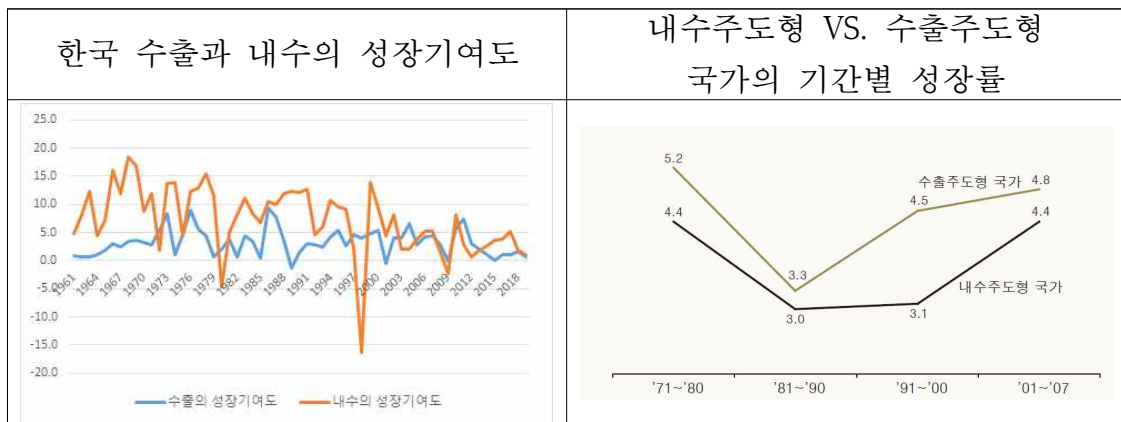
□ 새로운 교역 및 수출확대 전략 수립 필요

○ 수출은 우리나라 성장의 핵심 분야

-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수출은 우리나라의 경제환경 속에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으로

- 일각에서 제기되는 내수시장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수출의 회복 없이 우리나라의 성장을 견인하기에는 한계, <그림 I-4>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내수주도형 국가보다 수출주도형 국가의 성장률이 높았던 사실을 통해 수출의 중요성은 재차 강조될 수 있음
-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계속해서 하락

<그림 I-4> 내수 VS. 수출의 성장기여



자료: 한국은행, LG 경제 연구원

○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수출 및 교역 확대 전략 모색이 필요한 시점

- 글로벌 경제의 부진과 그에 따른 통상환경의 변화로 수출 및 교역의 확대가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나
- 그동안 우리 경제성장에 수출이 미친 영향과 향후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한다면
- 이러한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수출 및 교역 확대 전략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

2. 연구의 구성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통상환경의 변화를 먼저 주요 사안별

로 살펴보고

- 개별 환경 변화가 우리나라 수출 및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정성적으로 분석
- 이후 3장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 변화를 통계분석을 통해 살펴봄으로서 통상 환경변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분석
- 4장에서는 통상환경 변화가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 5장에서는 통계적 방법을 활용하여 수출 유망 지역과 품목을 분석
- 마지막으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수출 및 교역 확대 전략을 모색

II.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상환경의 변화

□ 글로벌 무역의 성장

○ WTO의 출범과 개도국의 세계교역 참여

- 지난 세기 후반부부터 글로벌 무역은 매우 빠르게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무역 확대는 세계 경제를 지속적 성장으로 견인
- 개도국은 글로벌 무역 참여를 통해 경제성장과 함께 개도국의 핵심 국가 정책인 빈곤퇴치를 포함한 삶의 질 향상을 추구
-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의 글로벌 무역 참여 확대는 무역 성장의 핵심적 요인

○ 자유주의 무역의 확대

- 동 기간 글로벌 무역의 방향성은 무역자유화를 통한 교역 확대로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었으며
- 이러한 기조하에 개별국가 간 자유무역협정과 복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지역 무역협정의 체결은 계속해서 증가
- 무역자유화를 저해하는 정책들이 철폐 혹은 약화되었으며, 물류와 기술 혁신은 국가 간 무역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

□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무역 성장세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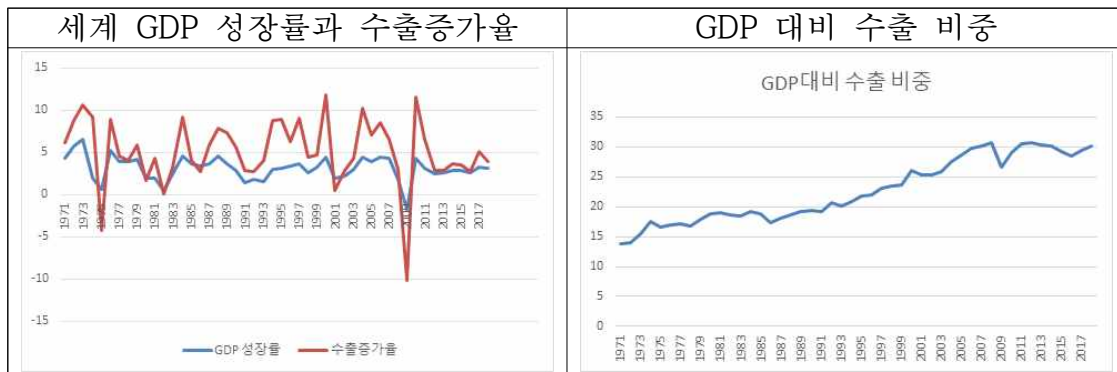
○ 금융위기 전후로 수출증가율은 경제성장률에 수렴하는 경향

-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글로벌 무역에 2009년 금융위기 전후로 변화가 발생

- 1970년대 이후 GDP 성장률을 압도해왔던 수출증가율은 금융위기를 지나며 서서히 GDP 증가율에 수렴하는 모습

<그림 II-1> GDP 성장률, 수출증가율, GDP 대비 수출비중

단위:%



자료: World Bank

○ 금융위기 전후 글로벌 교역에 구조적 변화 발생

- GDP 대비 수출 비중도 2010년 이후 그동안의 증가세가 정체되는 모습인데, 위기 이전의 증가세를 회복하지 못한다는 점은 이전 글로벌 경제 위기와는 다른 특성
- 특히,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에서 무한정 양적 완화를 포함하는 경제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 중임에도 무역 증가세가 회복되지 않는 것은 글로벌 교역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한 것이라는 추론 제기
- 이러한 현상에 대해 보호주의 확산, GVC의 정체, 중국의 재균형화 등을 구조적 변화를 가져온 원인으로 분석

○ 본 장에서는 구조적 변화를 가져온 개별 요인을 분석

- 본 장에서는 금융위기 전후 세계 경제와 교역에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했다는 전제하에,
- 구조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들로 제기되는 보호주의의 확산, GVC 확산 둔화, 중국 경제 정책 변화, 미-중 무역갈등, 국제분업구

조의 변화 그리고 최근 발생한 코로나-19를 포함하는 불확실성의 증대를 분석

1. 보호주의 확산

□ 보호주의 무역정책 확산 원인

○ 자국 산업 보호와 고용 확대를 위한 수단

-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호주의 무역 조치는 인식됨
- 대공황 시기에 미국에서 도입된 스무트-홀리법(Smoot-Hawley Acts, 1930)은 대표적인 보호주의 무역정책으로 주요 국가 간 보복적 보호주의 무역 조치를 초래하여 글로벌 무역의 붕괴를 촉진
- 보호주의 무역정책은 해외기업과의 경쟁으로부터 자국 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자국의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고 경제적 안정을 추구
-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증가하기 시작한 주요국의 보호주의 무역 정책은 지난 수십 년간 글로벌 교역과 경제성장을 이끌어왔던 자유무역 흐름과 정면으로 대치

○ 장·단기 경제적 효과가 불확실한 보호주의 무역정책

- 2009년 금융위기 대응 정책으로 도입 및 확산하기 시작한 보호주의 무역 조치는 그 의도와는 다르게 자국 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
- 일반적으로 보호주의 무역정책은 중장기적으로 국가 내 자원 배분을 왜곡하여 보호주의 무역 조치로 보호되는 해당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단기적으로도 특정 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또는 수입규제가 해당 상품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자국 내 최종재 생산 기업에 비용상승을 초래하여 생산에 악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음

〈표 II-1〉 보호주의 무역 조치 도입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

- 미국내 태양광 패널 생산업체인 Suvina와 Solarworld America에서 고용된 노동자는 3,200명인 반면, 태양광 관련 업계 종사자는 미국내 260,000명이라는 현황과 함께,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부과로 800개의 생산관련 일자리가 플로리다에서 증가할 것이나, 비용상승으로 인하여 23,000개의 일자리가 미국내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 - The Wall Street Journal(2018.1.30) - 철강관세가 부과되면 라인 파이프의 비용이 25% 상승할 것이고, 이에 따라 파이프라인 건설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파이프라인의 건설이 취소되거나 지연되어 많은 미국내 노동자들이 실직할 것이라는 우려 표명 - Andrew J. Black 석유파이프라인 협회 회장(The Association of Oil Pipe Lines, 2018.2.26)

자료: 주요신문

□ 금융위기 이후 보호주의 무역정책 도입의 특징

○ 정치적 측면에서 보호주의 조치의 도입 및 확산

- 트럼프 행정부는 ‘America First’ 라는 기조하에 보호주의 무역 조치를 적극적으로 행사
-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하여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보호주의 무역 조치들을 경제적 이익보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이익, 즉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 강화와 이를 통한 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
- 특히 미국 내 이익집단들의 이해관계와 트럼프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영역에서 보호주의 무역 조치들은 더욱 광범위하게 도입
- 미국의 이러한 행보는 주요국의 보복적인 보호주의 무역 조치 도입을

촉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정 기간 이러한 흐름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

- <표 II-2>는 철강 관세부과와 관련된 이익집단들의 활동이 미국 무역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를 보여줌

<표 II-2> 철강 관세부과 관련 이익집단의 활동

관세부과 찬성	관세부과 반대
- 2016년 4월 미국 철강 노동자들은 ITC에 수입산 알루미늄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와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를 청원 - 2017년 7월 Barbara Smith 상업철강회사(Commercial Metals Company) 회장은 미국내 철강회사 일자리 보호를 위한 철강관세 도입을 청원 - 2월 초 미국철강학회 (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는 외국으로부터의 무자비한 철강 수입을 막아달라는 서한 발송	- 2017년 5월: GM과 포드를 위한 로비를 수행하는 자동차정책위원회 (Automotive Policy Council)는 철강관세 인상은 자동차부문의 일자리 축소를 가져올 것이라 경고 - 2018년 2월 22일: 6개 자유무역지지 단체(미국입법교환위원회 (ALEC), ALEC Action, R street 연구소, 기업경쟁력 연구소, FreedomWorks, 납세자 조합)가 트럼프에 관세부과 법안 철회 요청 공개서한 전달

자료: 민혁기외(2018), “트럼프 보호주의 무역정책의 지속성 여부와 대응방안

○ 비전통적인 방식의 보호주의 무역정책

- 최근 주요국이 취하고 있는 보호주의 양상은 전통적인 보호주의 정책이었던 관세부과 혹은 쿼터를 통한 수입 규제 무역정책과는 차별화된 형식을 취하고 있음
- <그림 II-2>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전 세계 실행관세율은 계속해서 낮아져 왔으며, 2009년 전후로도 이러한 감소추세는 지속
- 이러한 추세는 그동안 확대된 국가 간 그리고 지역 내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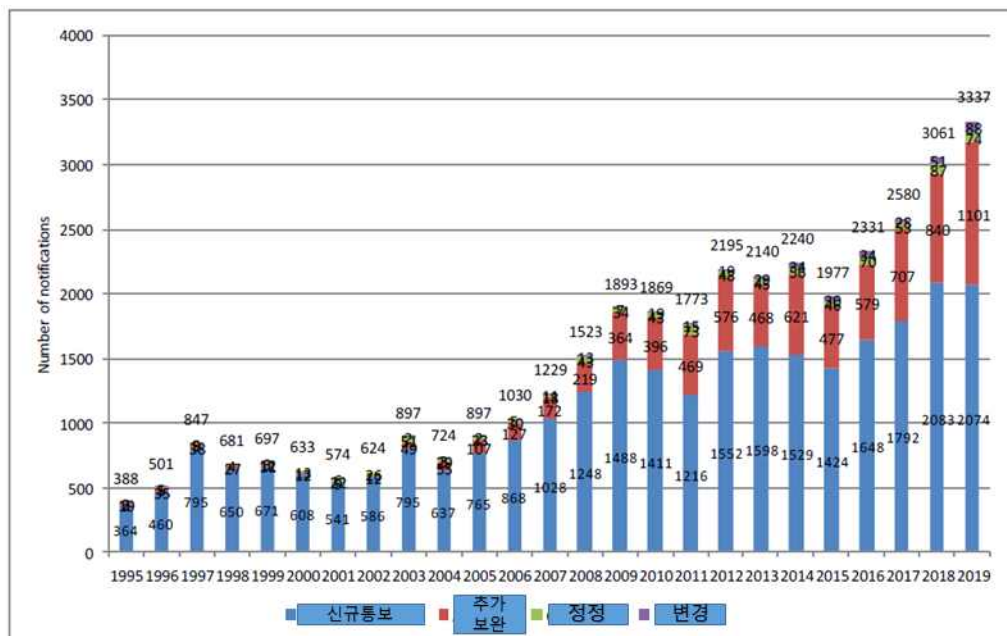
〈그림 II-2〉 실행관세율 추이 (%)



자료: World Bank

- 반면, 최근 보호주의 무역정책은 비정통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는 기술장벽이나 보조금 지급 등 비관세 조치를 주요 수단으로 활용
- 무역관련 기술장벽 도입 추이는 지속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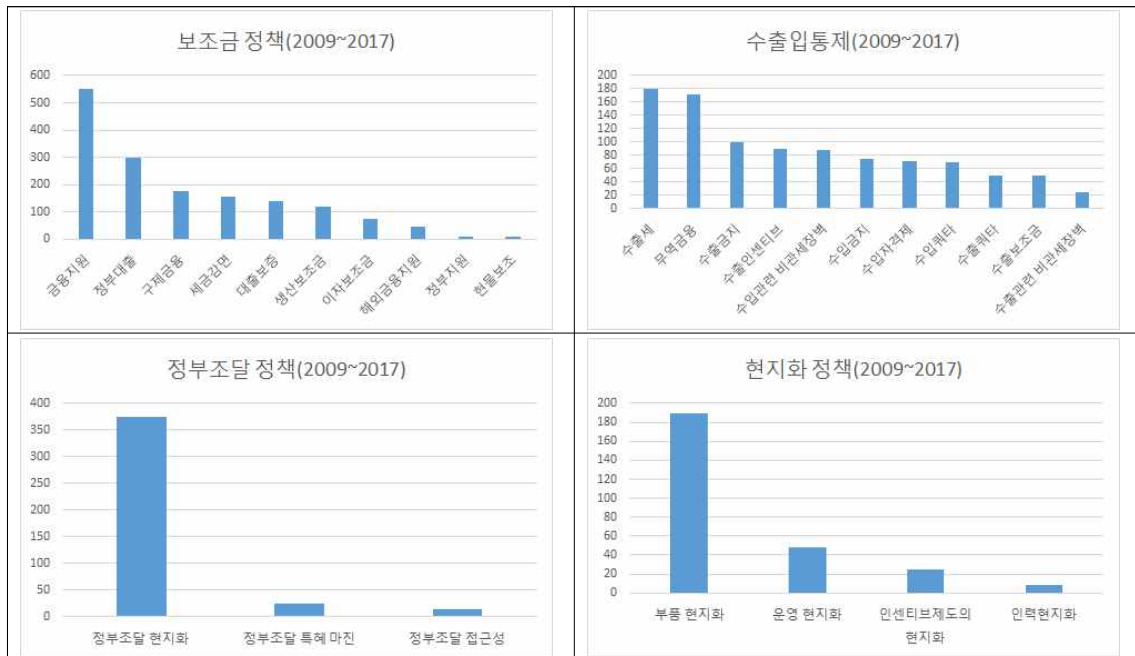
〈그림 II-3〉 TBT 통보의 연도별 추이



자료: WTO

- <그림 II-4>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술장벽 이외에도 보조금정책, 수출입통제, 정부조달정책, 현지화 정책 등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 장벽이 활용됨

<그림 II-4> 주요 비관세 장벽 도입건수



자료: Global Trade Alert

□ 보호주의 확산에 따른 영향

○ 자유주의 무역의 퇴조

- 보호주의 무역 조치 도입 확산과 동시에 자유무역을 주도할 수 있는 글로벌 이벤트는 점차 상실
- 실제, 2018년 1월 CPTPP 이후 글로벌 교역의 자유화를 상징하는 사건은 사라지고, CPTPP마저도 미국의 탈퇴로 국제 무역에 미치는 파급력이 급격하게 축소
- 글로벌 무역의 자유화와 확대에 이바지한 북미의 NAFTA(1994) 출범, WTO의 탄생(1995), 중국의 WTO 가입(2000)이나 EU(2007) 등과 같은 자유무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건이 상실됨

○ 글로벌 무역과 성장에 부정적 영향

- 수출기업의 입장에서 보호주의 무역 조치의 확대가 미치게 될 가장 명확한 영향은 시장의 축소이며, 이에 따라 기업의 수출 감소는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 단기적으로는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지닌 국가, 그리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증가하는데, 이는 자체적인 시장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
- 또한, 원자재와 중간재 수입 비용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보호주의 무역 정책을 도입하는 국가에 위치하는 기업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는 위기에 직면
- 아울러, Aghion et al.(2001) 등 많은 논문에서 설명되고 있듯이 보호주의 정책에 따른 경쟁의 축소는 기업 생산성 개선이나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보호주의 정책의 지속과 상호보복적 보호주의 정책의 확산

- 보호주의 무역정책의 도입은 개별국가 내에서 조직된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이익집단은 자신들의 이익 유지를 위해 보호주의 무역정책 지속을 위한 활동 수행
- 그러므로 보호주의 무역 조치는 일단 도입이 되면 이전상태로 되돌리기가 어렵고 상당 기간 지속할 가능성 큼
- 더불어, 최근 코로나-19 등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의 증가는 보호주의 무역 조치의 확산 경향을 강화할 것
- 또한, 과거 대공황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일단 특정 국가에서 보호주의 무역정책이 도입되면 피해를 보게 되는 상대국가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정책 도입 가능성 증대로 보호주의 무역 조치는 점차 확산할 개연성이 높아짐.

〈표 II-3〉 미국 보호주의 무역조치에 대한 주요국들의 법률적 대응 현황

- 2018년 1월 세탁기 및 태양광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이후 한국, 대만, 중국을 이어 EU가 분쟁 해결의 첫 절차로서 WTO 세이프가드 양자협의요청서(Request for Consultations) 제출
- 캐나다의 태양광 패널 제조업자들은 미국이 태양광에 부과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미국 무역법(Trade Act of 1974) 및 NAFTA Implement Act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트럼프 행정부를 미국국제무역분쟁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제소
- 캐나다는 지난 1월 자국산 침엽수 목재 등을 겨냥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결정 및 부과 과정이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제소
- 한국은 지난 2016년 5월 미국이 한국 철강 제품에 부과한 60.81%의 고율관세와 관련하여 지난 2월 WTO에 제소

자료: 주요신문

- 〈표 II-3〉은 미국의 보호주의 조치들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으로, 대개 초기 대응은 WTO 등 국제기구를 통한 협상을 시도하지만, 많은 경우 보복적 무역 조치의 도입을 통해 대응하는 방식으로 발전
- 일례로 미국이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시행하자, EU에서는 같은 날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196개 품목에 대한 보복관세 조치를 마련하고, 미국의 정책 전환이 없으면 90일 이내에 발효시킬 것을 발표

○ 자유무역협정의 개정 요구가 증가

- 보호주의 무역정책의 확산과 국가 간 갈등의 증폭은 기존에 체결되었던 국가 간 혹은 지역 내 자유무역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증가시킬 것이고, 개별국은 자국의 이해득실에 따라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증가
- 미국과 EU는 2019년을 거치면서 새로운 무역협정을 추진하기 위한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였으며,
- 우리나라 역시 2018년 미국과의 FTA 재협상을 자동차 시장의 추가적 개

방을 포함한 개정에 합의하였으며, 2019년 개정 FTA가 발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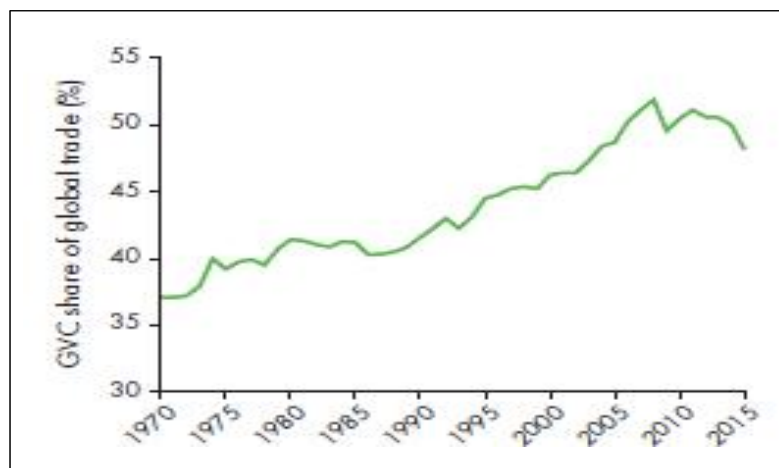
2. GVC 성장 둔화

□ 글로벌가치사슬 확산에 따른 글로벌 무역의 확대

○ 글로벌가치사슬 확산 추이

- 글로벌가치사슬은 연구개발에서 판매 후 서비스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별국가가 지닌 비교우위에 근거하여 전 세계에 걸쳐 효율적으로 분산 배치하는 과정 혹은 시스템을 의미
- 글로벌가치사슬의 확장은 글로벌 무역의 확대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아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글로벌가치사슬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지속적 성장

〈그림 II-5〉 전체무역 대비 GVC 무역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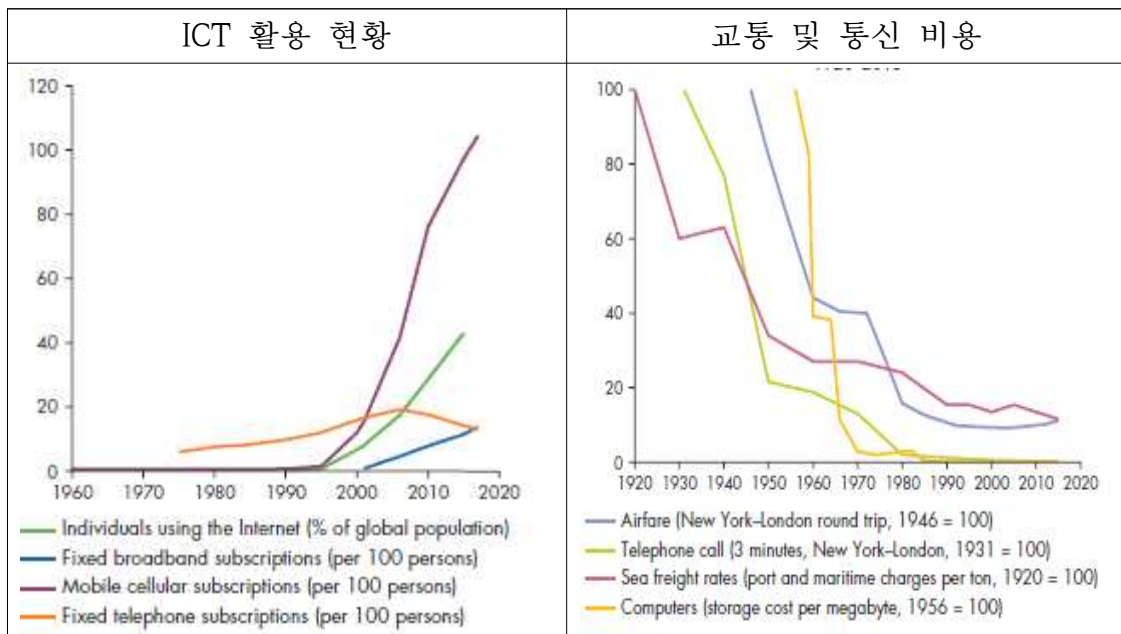
자료: WTO(2020)

○ 글로벌가치사슬 확산의 원인

- 국가 간 혹은 지역 내 자유무역협정 확산에 따른 교역 자유화의 확대, 중국을 비롯한 신흥 개발도상국의 글로벌 교역 체제 내로의 편입, 글로벌 경쟁 확대에 따른 비용 절감 등은 글로벌가치사슬의 확대에 기여

- 특히, ICT 기술의 발전은 글로벌 생산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물류비용의 인하는 원자재 및 중간재 상품의 국가 간 이동에 따른 비용을 현격히 낮추었음

〈그림 II-6〉 ICT 활용 현황과 물류관련 비용 추이



자료:WTO(2020)

-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개별국가에서 생산하던 상품은 전 세계 생산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생산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를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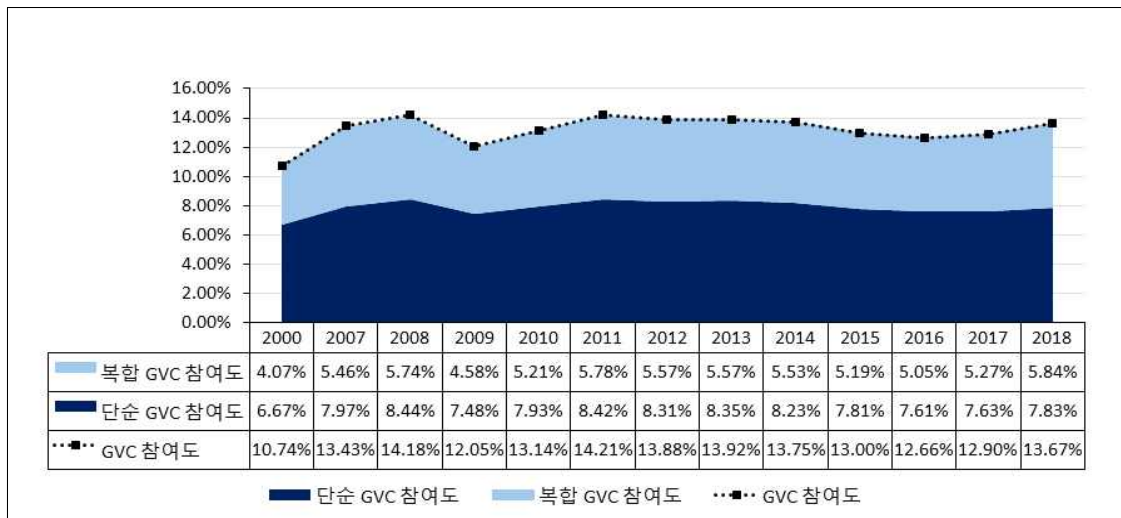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가치사슬 위축

-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글로벌가치사슬 성장 추세는 뚜렷하게 구분

- 그러나 글로벌가치사슬의 확대는 200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증가세가 둔화하기 시작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정체 혹은 축소
- 산업연구원 보고서(2019)에서 설명되듯이 2008년까지 확대되던 GVC 참여도는 2009년을 기점으로 둔화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 이후에는 점차

축소 안정화되는 모습

<그림 II-7> 전세계 GVC 참여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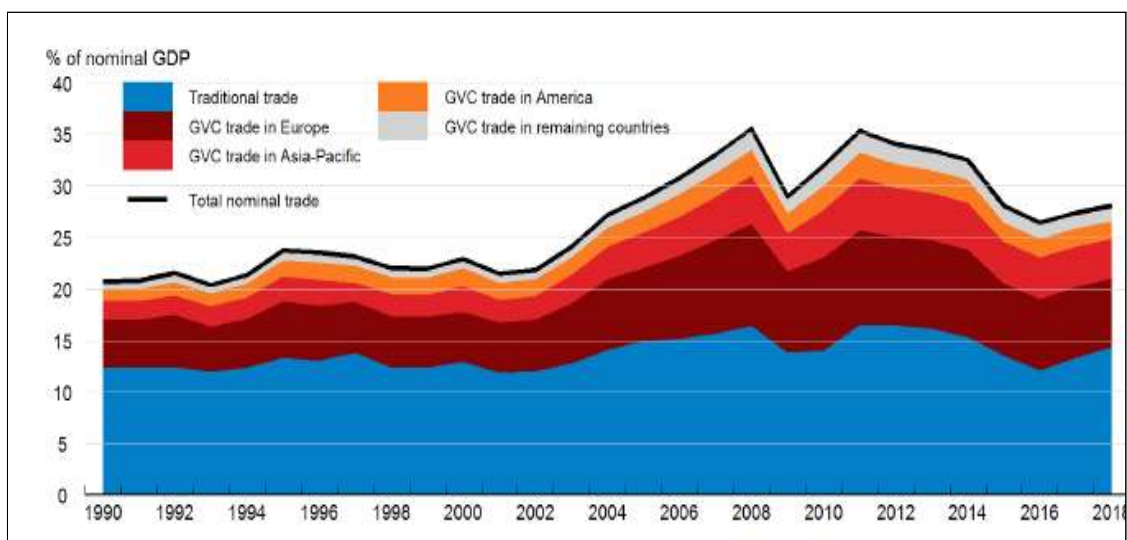


자료: 산업연구원 용역보고서(2019) 인용

○ 글로벌 가치사슬을 대표하는 지표들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

- GDP 대비 교역형태별 비중을 통해서도 2009년 이후 GDP 대비 GVC 무역의 비중은 정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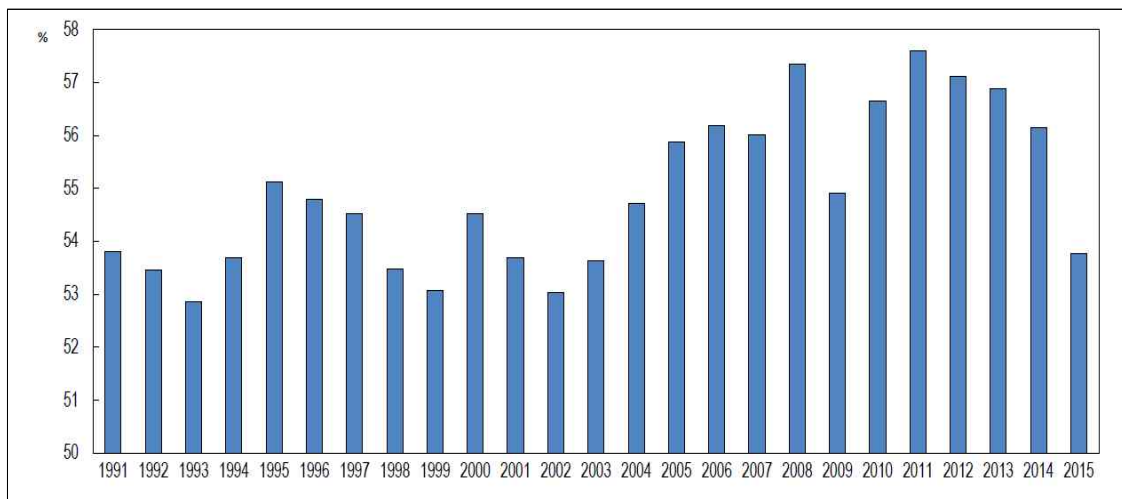
<그림 II-8> 명목 GDP 대비 형태별 교역비중



자료: OECD(2020)

- 글로벌가치사슬의 확대 추세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인 중간재 무역 비중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축소
-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가치사슬에 경기적 변화가 아닌 구조적이며 근본적 변화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

〈그림 II-9〉 중간재 수입비중



자료: OECD(2016) 재인용

- 〈그림 II-9〉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간재 수입 비중은 2008년까지 꾸준히 상승하여 57%를 기록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성장세가 둔화하기 시작하여 2015년에는 53% 수준으로 감소

□ 글로벌가치사슬 둔화의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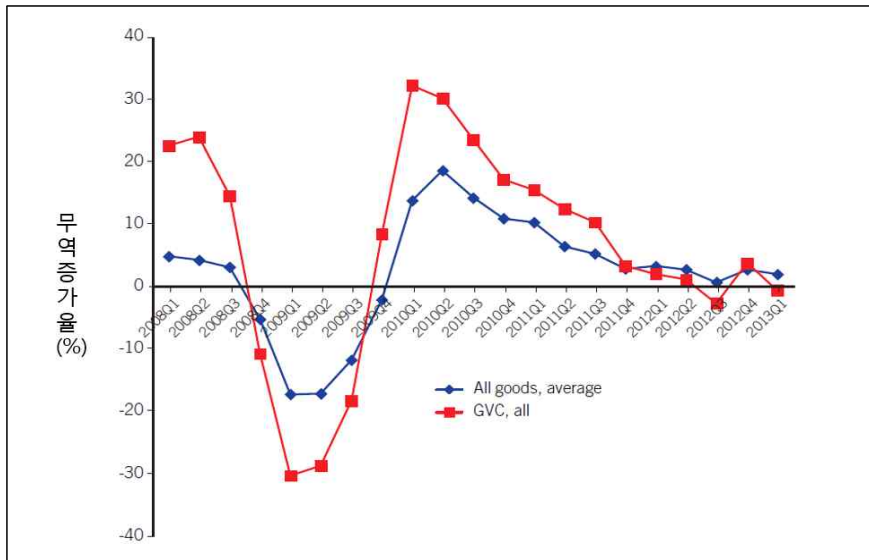
○ 수요탄력성이 큰 GVC 무역

- 글로벌가치사슬 성장 둔화의 한 가지 원인으로 GVC 무역의 수요탄력성이 크다는 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감소가 GVC 무역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옴
- 〈그림 II-1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GVC 무역은 경제 위기시 더욱 많이 감소하는데, 이것은 소득 감소에 따른 영향이 전통무역에 비해 크

다는 것을 입증

- 반대로 소득이 증가할 때 GVC 무역은 더욱 많이 증가하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GVC 무역의 회복력을 증명

<그림 II-10> GVC 무역과 전통무역 증가율



자료: Ferrantino et. al(2014) 재인용

- 금융위기 직후 일시적으로 반등했던 글로벌 경제는 이후 저소득, 저물가, 저금리 등으로 대표되는 New Normal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GVC 무역 역시 재차 급속하게 축소

○ 글로벌가치사슬 성장 여력 축소

- 글로벌가치사슬이 이미 활용 가능한 지역과 국가 그리고 산업 분야에서 충분히 성장하였다는 의견이 제시
- 2008년 GVC 무역이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2%를 차지할 만큼 성장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GVC의 확대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특히, 자유주의 무역 기조 쇠퇴와 자동화 및 3D 프린팅 등 생산비용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혁신은 개도국의 비용 우위를 활용한 GVC의 확장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

○ 글로벌가치사슬의 태생적 특성

- 글로벌가치사슬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 즉 긴 생산공정에 따른 생산과정 변경 혹은 생산품 변경이 수월하지 않은 특징은 최근 급속하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선호나 소비자 맞춤형 상품생산에 한계
- 이러한 특징은 긴 생산공정 가운데 특정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면 전체 공정이 멈추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내포
- 효율성 측면에서도 기업이 글로벌가치사슬을 구축함으로써 얻는 비용 측면의 이점이 글로벌가치사슬 구축으로부터 발생하는 생산품의 질, 경영 관리상의 어려움 포함하는 비효율성을 적용한 총소유비용(Total Cost of Ownership)을 고려하면 선진국 내에서 생산활동과 개도국에서의 생산활동 간의 비용 차이가 급격하게 축소

□ 글로벌가치사슬의 변화와 전망

○ 리쇼어링과 니어쇼어링의 확대

- 각국의 보호주의 경향,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글로벌가치사슬 구축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음
- 미국과 EU를 비롯한 주요국은 자국 내 제조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동화 등의 효율적 생산공정 도입을 통해 중국을 위시한 개도국과의 제조비용 차이를 축소함에 따라 세계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오프쇼어링의 매력은 감소
- 주요국은 생산과 R&D의 지리적 인접성을 통해 생산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전체적 생산공정의 관리를 위한 집적의 필요성이 확대
- 이러한 변화에 따라 리쇼어링과 니어쇼어링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되며,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국에서 리쇼어링 현상은 확산

○ 안정적 생산공장의 확보를 위한 글로벌가치사슬의 재구축

- 코로나-19를 포함하는 글로벌 리스크 확대는 글로벌가치사슬에서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 중요성을 부각
- 주요국은 자국 산업의 핵심부품에서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공급망의 재편을 추진할 것
- 이를 위해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위기 관리 능력이 검증된 지역으로 핵심부품의 생산기지를 옮기거나 확대를 통해 위험분산 및 안정적 가치사슬을 구축할 것
- 또한, 하나의 공급망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대체적인 공급망을 추가로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할 가능성도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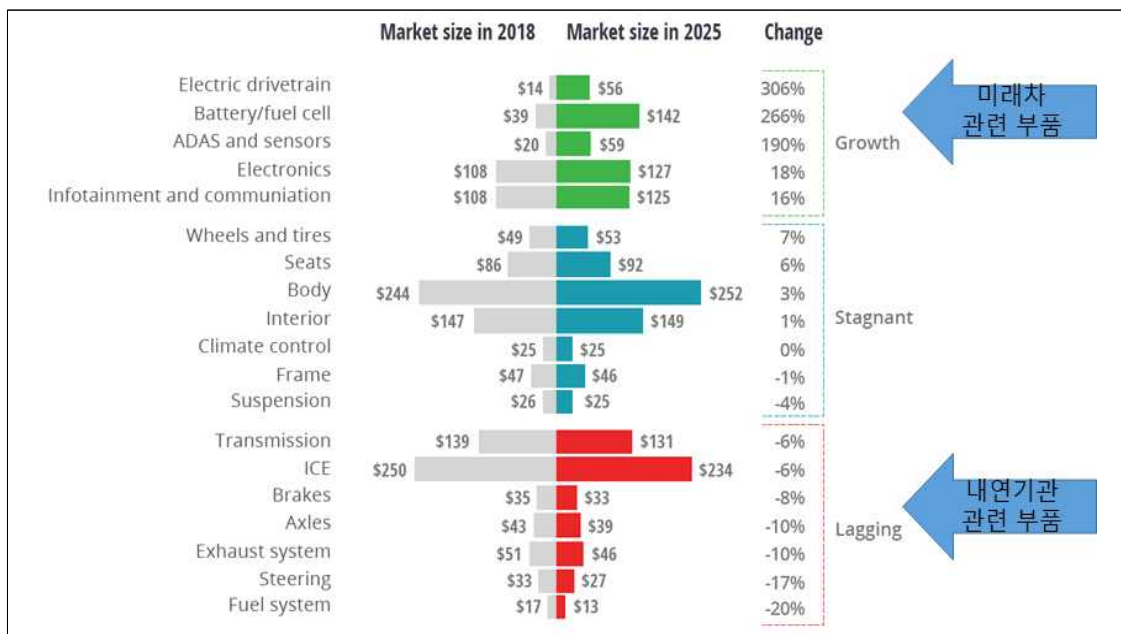
○ 서비스 부문 글로벌가치사슬의 확대

- 글로벌가치사슬 확대는 대부분이 전자, 자동차, 섬유 등 글로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전
- 최근 글로벌가치사슬의 성장 추이를 보면 더는 해당 부문에서 기존의 방식으로 가치사슬의 확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
- 반면, 최근 제조업의 서비스화나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따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전통적인 구분 방식이 사라지고 있으며, 더 많은 부가가치가 서비스 부문에서 창출되고 있음
-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면 향후 글로벌가치사슬에서 서비스 부문의 성장 가능성이 높는데,
- <그림 II-1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자동차 산업의 경우 시장 규모가 전통적인 제조업 부분인 내연기관이나 차체의 시장 규모는 감소하거

나 정체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통신, 엔터테인먼트 등 서비스 분야의 시장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그러므로 향후 글로벌가치사슬은 확대는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그림 II-11〉 자동차 부문별 시장 규모 변화



자료 :Deloitte Analysis “2019 Global automotive supplier study”

3. 중국 경제 정책 및 수입구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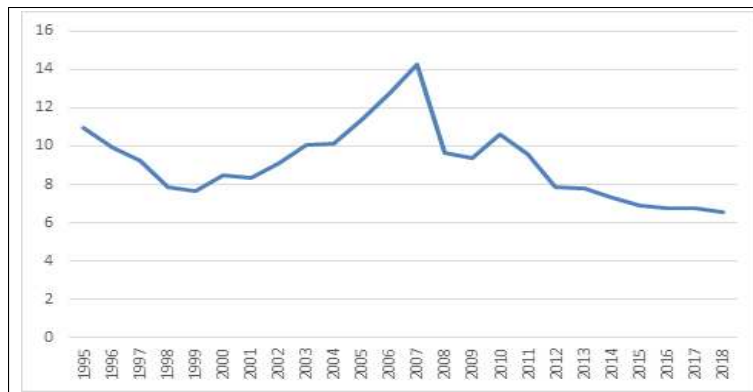
□ 중국의 최근 경제 정책의 변화

○ 성장에서 안정으로 정책 기조 변화

- 개혁개방 정책추진 이후 지속된 중국의 고도성장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조정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며, <그림 II-12>에서 나타나듯 중국 정부 역시 6%대의 성장을 뉴노멀(New Normal)로 규정하고 이를 용인
- 중국은 성장률보다는 고도성장과정에서 고착화한 중국경제의 불균형 개선을 더욱 중요한 정책적 목표로 설정하였는데, 최근 투자수익률의 하락

한 악화는 중국경제 구조조정 필요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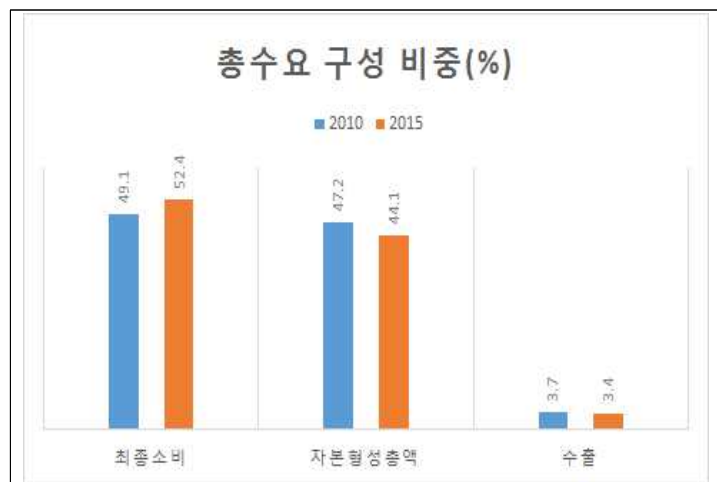
〈그림 II-12〉 중국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World Bank

- 이에 따라 수출과 투자 중심의 경제구조를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 성장을 위한 구조로 변화시키는 정책을 추진 중이며, 그 결과 중국의 투자 비중은 감소하고 소비 비중이 증가

〈그림 II-13〉 중국 총수요 구성 비중 변화



자료: 이장규 외(2016) 자료 재정리

- 최근에는 자본차입비율의 감축 정책을 통해 경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

○ 자국 산업 육성 정책

- 중국의 거시정책과 함께 산업부문의 정책도 변화
- 산업정책은 자국 내 산업 역량 강화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전통적인 가공무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자국 내 산업 육성을 목표로 설정
- 대중국 수출에서 원자재와 부품을 포함하는 중간재의 비중이 절대적인 우리나라 수출은 이와 같은 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특히 중국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제3국의 경기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계를 지님

〈표 II-4〉 중국의 가공무역 금지 및 제한조치 현황

	내용
1999	가공무역제품의 3분류 시행(허용, 제한, 금지)
2004	금지품목 발표, 341개 -중고 기계, 전자제품, 향생제 등
2006	금지품목 발표 804개 -철광석, 희토류, 원목
2007	금지품목 발표 1140개 -강철관, 철파이프, 농약
2008	금지품목 발표 1816개 -광산품, 화학제품, 철강제품
2009	금지품목 1759개로 축소 제한대상품목 500개로 축소
2010	금지품목 1803개로 확대
2014	금지품목 1871개로 확대

자료: 박솔 외(2015) 재인용

- 특히 ‘중국제조 2025’로 대표되는 중국 산업정책은 제조역량의 강화와 함께 향후 글로벌 경제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산업 위주의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우리나라 수출 기업과 중국 및 제3국 시장에서 경쟁할 가능성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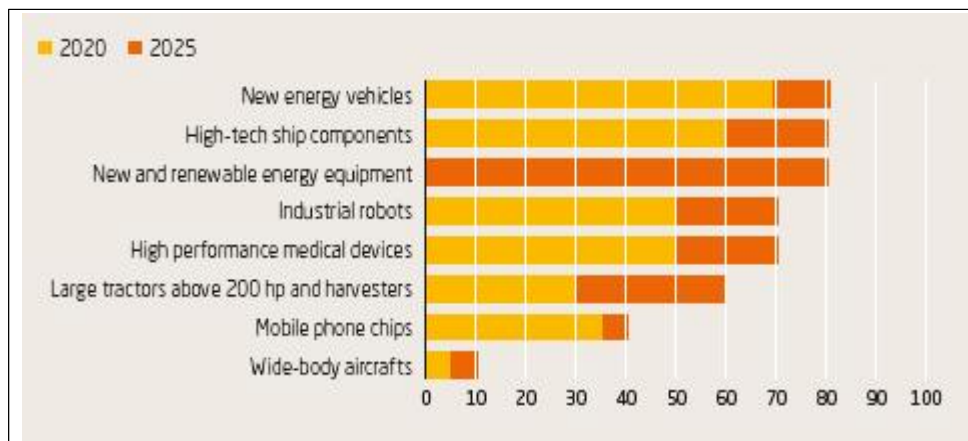
〈표 II-5〉 중국제조 2025 내용

핵심산업 : 정보기술산업, 기계로봇,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신소재, 약물의약 및 의료기계, 항공우주장비, 농기계 및 장비, 해양공정장비 및 고기술 선박, 선진 궤도교통 장비, 전력장비	
시기	내용
1단계(2025)	- 공업화 기본실현, 제조대국 지위 공고화, 제조업 정보화 제고 - 제조업 혁신능력강화, 생산성제고, 공업화+정보화 융합
2단계(2035)	- 세계 제조강국 중 중간수준의 제조강국 도약
3단계(2049)	- 건국 100년, 제조대국 공고화, 제조강국 진입

자료: 중국제조 2025

- ‘중국제조 2025’에서는 핵심부품과 재료의 국산화율 목표를 2020년 40%, 그리고 2025년까지 70%로 설정하고 정책 추진

〈그림 II-14〉 주요 산업의 수입대체 목표



자료: Merics Paper on China(2016)

□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 전망

○ 수입수요의 증가세 둔화

- 2000년 이후 중국이 세계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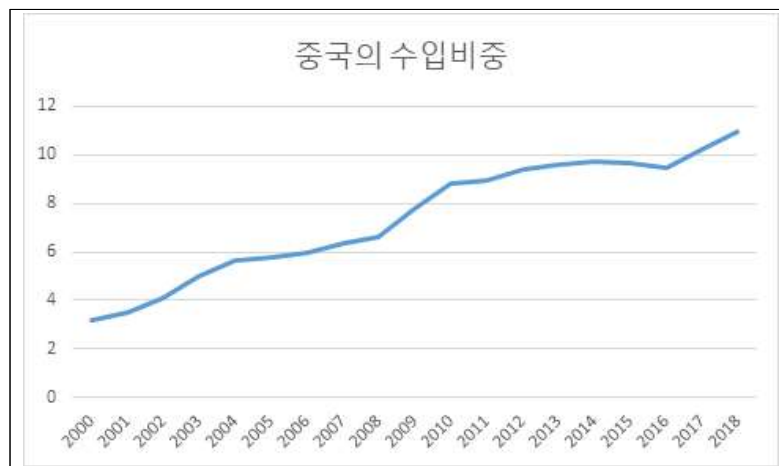
〈표 II-6〉 중국 경제의 비중 (대세계 대비)

항목	비중(2000)	비중(2018)
수입	3.2%	10.9%
원자재 수입	4.6%	22.4%
중간재 수입	4.1%	11.6%
최종재 수입	1.7%	6.2%

자료: RIETI

- 2009년 이후 둔화되었던 중국 수입비중 증가세는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이후 중국 수출 축소로 인하여 수입수요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그림 II-15〉 세계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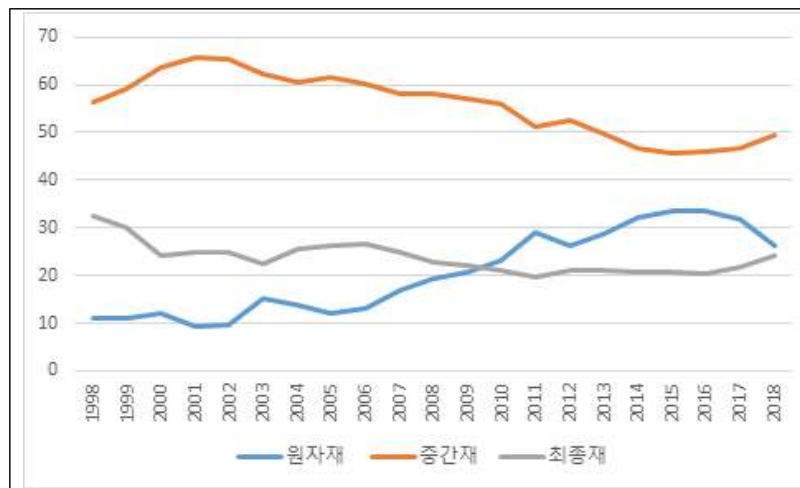
자료: RIETI

○ 중간재 수입 감소

-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중국제조 2025와 가공무역 제한을 통한 자국 산업 발전정책은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통해 조립가공 후 수출하던 방식의 탈피를 의미하고 이에 따라 중국의 중간재 수입은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
- 2000년대 초반 60% 중반에 이르던 중간재 수입비중은 2018년 50% 아래

로 하락하였는데, 이것은 가공무역에 가해지는 많은 규제를 통해 가공용 수입수요를 감소시킨 결과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중간재 수입 비중의 감소추세는 지속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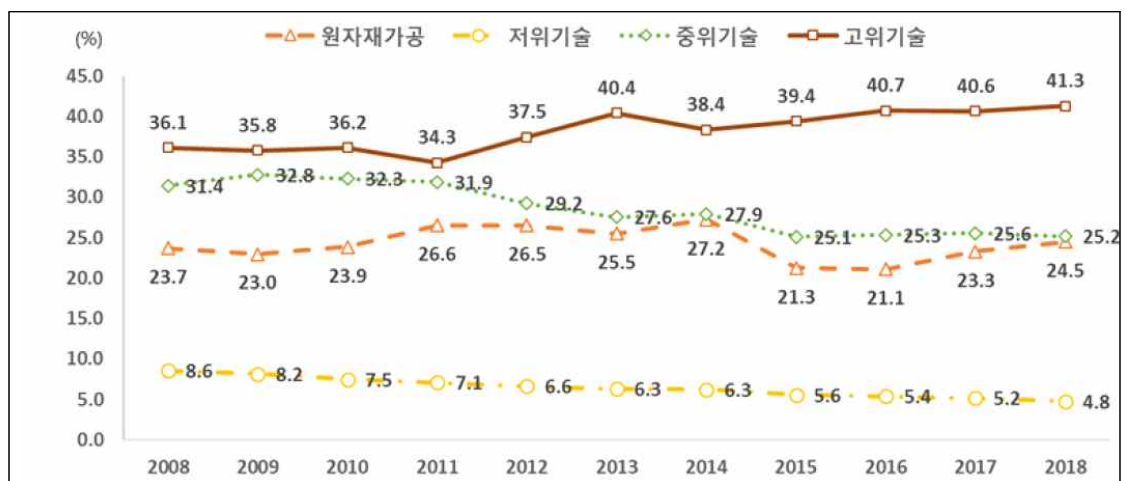
〈그림 II-16〉 중국 생산단계별 수입비중



자료: RIETI

- 중국 중간재 수입의 기술 수준별 비중을 보면, 고위기술 산업에서 수입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중저위기술 산업에서의 지속적으로 하락
-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제조업 발전전략에 따라 일정부분 중저위산업에서 수입대체 성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 가능

〈그림 II-17〉 중국의 중간재 기술수준별 수입 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2019) 재인용

4. 미-중 무역갈등

□ 미-중 무역갈등의 배경

○ 미국의 과도한 대중 무역적자

- 미-중 무역갈등의 표면적 이유는 중국의 과도한 대미 무역 흑자로 포장되고 있으며, 실제 대중국 무역적자가 미국 무역적자의 50%를 상회

〈표 II-7〉 미국의 제조업 무역적자의 무역 상대국별 비중: 2000, 2010, 2017년

	CAN	JPN	4 Asian NICs	DEU	MEX	ASEAN 9	CHN	Rest of OECD	ROW	G7
1990	7.5	49.4	25.7	10.2	-1.9	6.1	10.3	-6.7	-0.5	70.4
2010	-5.9	15.1	-0.2	7.9	8.1	11.0	67.1	9.7	-12.8	22.9
2017	-4.7	10.5	1.2	8.5	8.1	14.9	56.1	12.8	-7.2	20.1

자료: World Bank

- 미국은 이러한 대중국 무역적자 이면에 중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자국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수입제한,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 등 불공정 무역정책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반면, 중국은 이러한 무역적자 규모는 글로벌가치사슬의 확산하에서 부가가치를 고려하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다고 주장

○ 미래기술을 둘러싼 G2간 글로벌 패권 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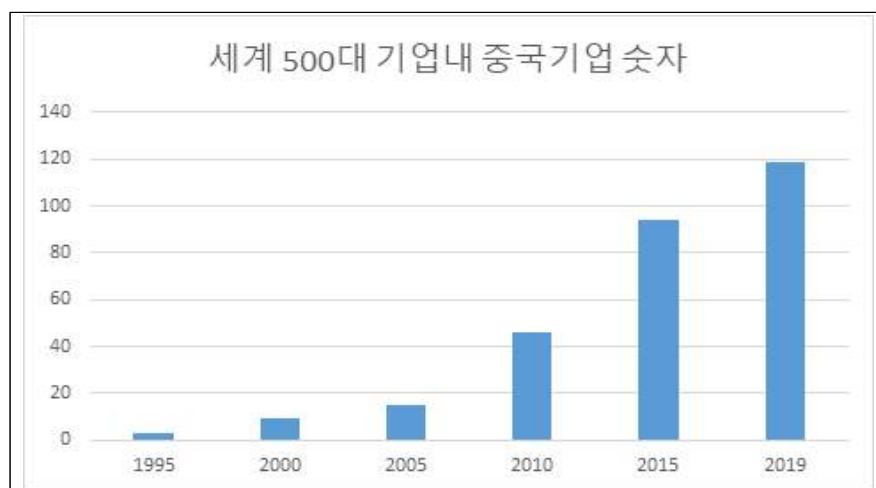
- 미-중 무역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미-중간 무역 불균형보다는 미래기술을 둘러싼 미-중간 글로벌 패권경쟁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해석
- 중국몽(中國夢)을 위시하여 ‘중국제조 2025’ 등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부상을 추구하고 있으며,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중국의 경제적 패권을 점차 강화해가는 양상

- 미국은 중국의 전략에 대응하여 지적재산권 보호, 첨단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개별 제재 및 미국 첨단기업에 대한 중국 투자 제한 등의 조치로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미-중 무역협상과 연계하여 중국을 압박하는 양상

○ 서구식 자본주의와 중국식 사회주의 간 체제 경쟁

- 2010년 전후로 중국은 자국의 국가 주도 시장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획득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배경으로 2013년 3중 전회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제도화”를 선언
- 이는 서구식 자본주의에 대한 도입을 중단하고, 중국 체제에 입각한 자본주의 방식을 도입하는 것
- 체제 발전 방향에 대한 방향성의 전환은 미국 등 서구 자본주의 국가의 입장에서는 기업간 불공정 경쟁을 야기할 수 있는 조치로 해석가능
- 실제 중국의 국영기업 숫자는 2011년을 전후 감소추세가 증가세로 전환¹⁾되었는데, 이러한 중국 국영기업과 서구 민간기업의 경쟁은 불공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

〈그림 II-18〉 중국기업의 성장



자료: Fortune(2019)

1) 중국 국영기업 숫자는 98년 6.5만개에서 11년 1.7만개로 감소하였으나, 19년 다시 1.9만개로 증가

- 특히, 2015년 94개 중국기업 중 88개가 국영기업으로 나타나 글로벌 시장500대 기업에 속하는 중국기업 대부분이 국영기업임

□ 미-중 무역갈등의 전개와 전망

○ 상호보복적 Tip for Tap 전략은 잠정적으로 봉합

- 2018년 3월 미국은 전년도 3750억 달러의 대중국 무역적자를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며 미-중 무역갈등은 시작
- 중국 역시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의 관세부과와 관련된 협상 실패 시 128개 미국산 품목에 대한 15~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천명
- 미-중간 협상의 부진과정에서 미국은 7월 추가로 340억 달러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부과를 선언하고, 중국 역시 같은 규모의 보복관세를 예고
- 이후 냉각기를 거치던 양국간 갈등은 2019년 5월 미국이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 시행하며 다시 가열되었으며, 같은 해 9월에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3000억 달러에 1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5~10% 안팎의 보복관세를 미국산 수입품 750억 달러에 부과함으로써 더욱 격화
- 2019년 12월 미-중간 1단계 무역합의 도출을 통해 잠정적으로 봉합

〈표 II-8〉 미-중 무역갈등 전개

날짜	미국	중국
2018.3	500억 달러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부과	
2018.4	통신장비 등 25% 관세부과 대상 품목 발표	8개품목에 25%, 120개 품목에 15% 관세 부과 미국산 대두, 자동차 등 160개 품목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방침 발표
2018.5	첨단기술 품목에 25% 관세 부과	
2018.7	340억 달러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 발효	동일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 45개 품목에 25% 관세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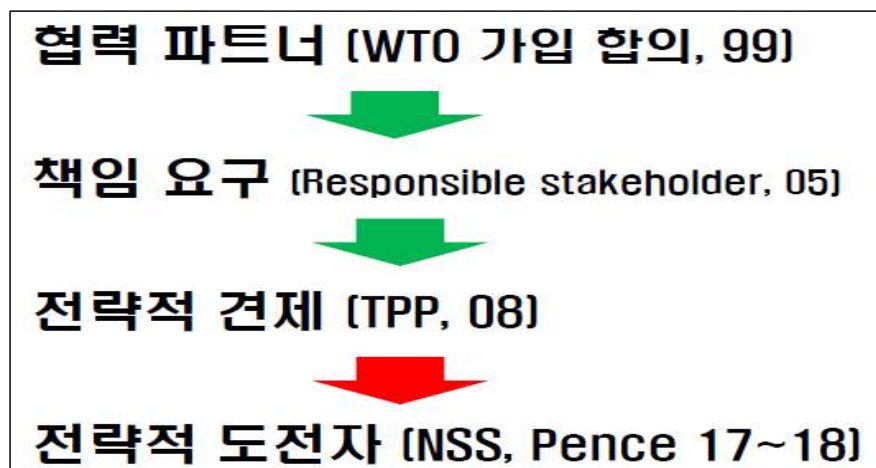
2018.8	160억 달러 규모에 25% 관세 부과	동일 규모로 25% 관세 부과
2018.9	2000억 달러 규모 중국상품에 10% 관세 부과	600억 달러 규모 미국상품에 관세 부과
2019.5	2000억 달러 규모 중국 상품에 25% 관세 부과	
2019.6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5~25% 관세 부과
2019.8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위안화 환율 급등
2019.9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에 15% 관세 부과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5~10% 관세부과
2019.12	1단계 무역협상 합의 발표	

자료: 중앙일보 2019.12.15. 참조

○ 경쟁에서 대결의 시대로 진입

- 중국은 WTO 가입 이후 글로벌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오고 있으며, 초기에 지녔던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쟁력을 첨단제조업 분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일대일로 정책 등을 통해 경제적 영토와 패권을 확대 중
- 미국도 무역갈등의 발단이 되었던 무역적자의 해소보다는 중국 시장 개방, 지적재산권 보호, 전략산업에 대한 중국의 보조금 지급 금지 등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전환 중

<그림 II-19> 미국의 대중인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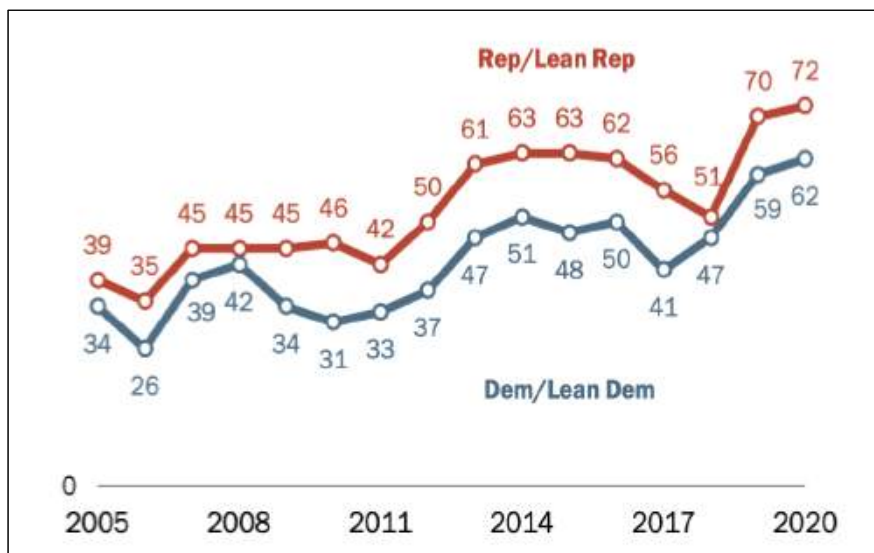
자료: 지만수 금융연구원 발표자료(2020)

- 결국, 미-중간 글로벌 지형에 대한 전략적 방향성은 정확하게 상반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1단계 무역 합의를 지속하고 보다 안정적인 미-중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운 형국
- 이제 중국은 WTO 가입을 통해 미국의 협력파트너로서 역할이 끝나고 전략적인 도전자의 입장으로 변화한 것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미-중 분쟁의 불확실성은 증폭

-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미-중간의 갈등은 다시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며, 미국의 대선 시기까지 이러한 갈등을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양국 간의 갈등은 다시 증폭될 가능성이 높음
- 미-중 무역갈등의 전개 과정에서 미국은 정파를 초월하여 대중국 견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므로 미국에서 정권이 교체된다고 하더라도 양국 간 갈등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
-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 내 대중국 비호감도는 정파를 초월하여 점차 증가 추세

<그림 II-20>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대중국 비호감도



자료: Pew Research center(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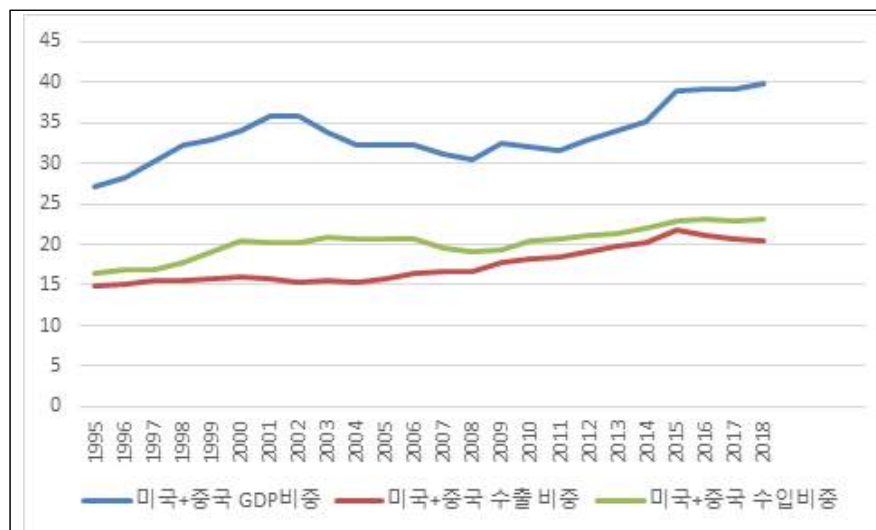
- 2단계 미-중 협상은 산업보조금 제한, 국영기업을 통한 불공정 경쟁 규제, 첨단기술 탈취방지 등을 포함하는 중국경제의 구조 변화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합의를 위해서는 더욱 어려운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

□ 미-중 무역갈등이 글로벌 교역에 미치는 영향

○ 전세계 생산과 무역에 부정적 영향

- 미국과 중국의 GDP, 수출, 수입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2018년 기준으로 각각 39.7%, 20.4%, 23.1%로 증가
- 이러한 글로벌 거대 경제권 간의 갈등은 그 자체만으로도 글로벌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들 국가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을 통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은 증폭
-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미국과 중국에 매우 집중된 교역구조를 지닌 국가들의 경우 그 파급효과는 더욱 방대할 것

〈그림 II-21〉 전 세계 대비 미국과 중국의 GDP, 수출, 수입 비중



자료: World Bank

○ 자유무역 기조의 후퇴

- 보호주의 무역 조치의 확대와 함께 미-중간의 갈등은 20세기 후반부부터 강화되어 온 자유무역의 확대를 저해할 가능성이 큼
- 특히,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공정무역은 생산과정에 관한 이슈를 제기하는 것으로, 이는 재화의 가격과 품질에 기초한 자유로운 경쟁 체제에 대한 반기
- 이러한 흐름은 2019년 G20 회의 합의문에서 “보호주의의 배경이나 반대”를 제외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채택한 것으로부터도 확인 가능
- WTO 분쟁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3인으로 구성된 상소 기구 위원 중 2인의 임명을 하지 않아, WTO 분쟁제도의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 됨으로서 국가 간 분쟁제도의 해결을 위한 수단이 없어짐
- 특히, 20년 1월 미국-일본-EU의 WTO 개혁방안(Joint Statement of the Trilateral Meeting of the Trade Ministers of Japan, the US and the EU, 2020)을 통해 과잉설비와 불공정 경쟁을 야기하는 “제3국의 비시장 경제적 정책과 관행”에 대한 공동대응을 천명함으로써 기존에는 제재하지 않던 특히 개도국의 다양한 정부 지원 활동과 정책에 재갈을 물림

○ 디커플링을 통한 새로운 글로벌생산네트워크의 구축

-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미국과 중국은 상호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제와 무역의 성장과 안정화를 유지하였으며, 중국은 국가 간 분업체제와 협력 체제를 통한 글로벌 무역의 확대에 중심축 역할
- 그러나 미-중 무역갈등과 코로나-19 등으로 촉발된 미국의 중국 배제 움직임은 미국뿐 아니라 중국 내에서도 위기감을 인식
- 미국의 경우 공개적으로 중국을 배제한 미국에 우호적인 국가들로 구성된 경제번영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 구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중국 내에서도 탈글로벌화가 탈중국화라는 다른 표현이라는 인식

확산²⁾

- 이러한 변화는 미-중간 글로벌생산네트워크에서의 디커플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상대방을 배제한 독자적인 글로벌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중 모두와 경제적 관계로 얽여 있는 많은 국가에 어떠한 진영이나 동맹에 가담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강요하게 될 것
- 더불어, 리쇼어링과 니어쇼어링 경향은 미-중 디커플링과 함께 글로벌생산네트워크의 재구조화를 촉진할 것

5. 코로나-19를 포함한 불확실성 증대

□ 코로나-19 이후 교역환경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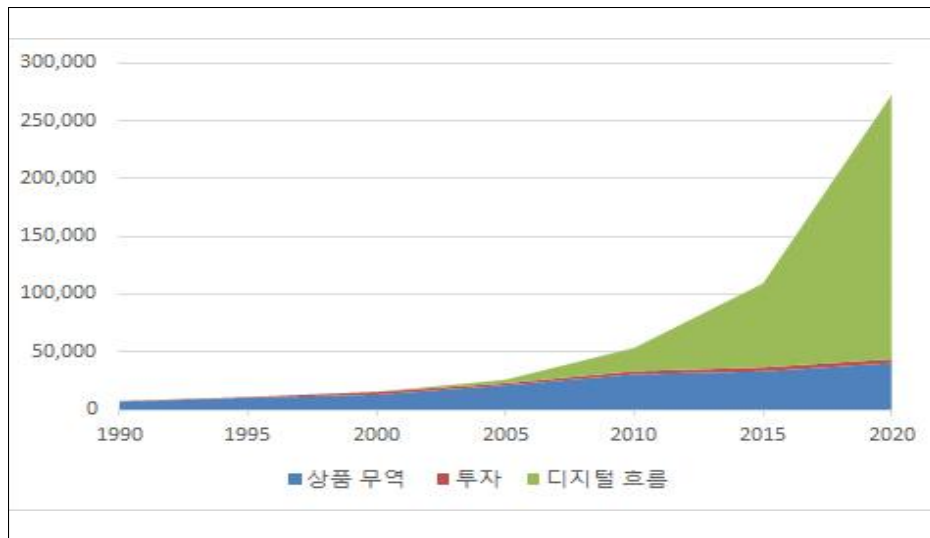
○ 디지털 생산, 소비, 통상의 확대

-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해 많은 전문가가 글로벌 경제의 코로나 이전 시기로의 복귀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
- 그러므로 코로나-19에 적응된 교역형태나 환경이 향후 국제 무역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
- 소비 측면에서 온라인 형태 사업의 확장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이미 많은 부분 변화한 대형 오프라인 쇼핑몰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
- 생산 측면에서는 스마트 공장 등의 도입이 더욱 활성화되어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방식의 생산형태가 급격하게 확산될 것
- 통상 분야에서는 종이없는 교역(Paperless Trade) 이나 전자서명 등 최근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방식들이 선호될 가능성이 크고, 데이터 산업, AI, 로봇, 3-D 프린팅, 클라우드 컴퓨팅 등 디지털 부문의

2)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21220000009?input=1195m> 참조

성장과 발전이 가속화 될 것

〈그림 II-22〉 데이터 흐름의 변화 추이



자료: PIIE(2018) Can digital flows compensate for Lethargic trade and investment?

〈그림 II-23〉 ICT기반 서비스 무역 현황

(단위: 백만달러, 실질가격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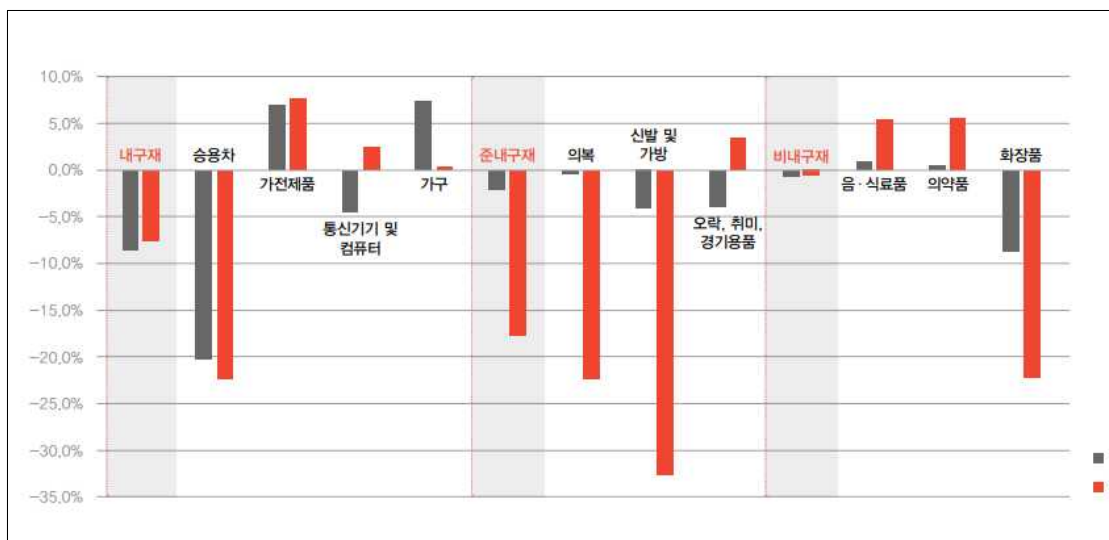
자료: UNCTAD Statistics 바탕으로 저자 구성

○ 산업별/분야별 불균등한 통상환경 조성

- 코로나-19 위기는 산업별 교역에서 차별화된 통상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
- 관광, 교통 등 인적 이동이 필요한 서비스산업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환경에 직면할 것이지만, 같은 서비스 업종인 의료서비스 그리고 의료기기 분야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오히려 개선된 통상환경을 향유할 수 있을것으로 보임.
- 특히, 최근 원격진료 등의 논의가 제기되는 등 이전에는 국가별 규제 때문에 불가능했던 국가 간 서비스의 가능성이 증가
- 우리나라의 지난 1월과 2월 상품별 판매현황을 통해서도 코로나가 업종별로 차별화된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림 II-24〉 상품별 매출액 증감

단위: %



자료: PwC(2020) 재인용

- 이러한 차별화는 국내 소비뿐 아니라 해외 소비에도 유사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에 따라 무역 및 투자 등의 환경 역시 차별화되어 전개될 전망

□ 코로나-19 등 불확실성이 글로벌 교역에 미치는 영향

○ 투자, 수요, 생산에 부정적 영향

- 투자 측면에서 코로나-19, 트럼프 행정부의 자의적 경제 정책, 유럽국가 내 극우 정치세력의 전면화와 브렉시트 등은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어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음
- 소비 측면에서도 소비자들은 현재 소비 지연을 통해 미래 소득 감소라는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있음
- 더불어 최근 급격하게 확산하는 코로나-19는 투자, 소비 이외에도 전 세계에 분포하고 긴밀하게 연결된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쳐 기업들의 경영 활동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생산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II-9〉 세계 실질 GDP 성장률 예상

	2018	2019	2020	2021
전세계	3.6	2.9	-3	5.8
선진국	2.2	1.7	-6.1	4.5
개도국	4.5	3.7	-1	6.6

자료: IMF(2020)

- IMF가 4월 발표한 전망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 실질 GDP 성장률은 3%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며, 2021년에는 기저효과로 인하여 5.8% 상승할 것으로 예상

〈표 II-10〉 상황별 세계 실질 GDP 성장률 예상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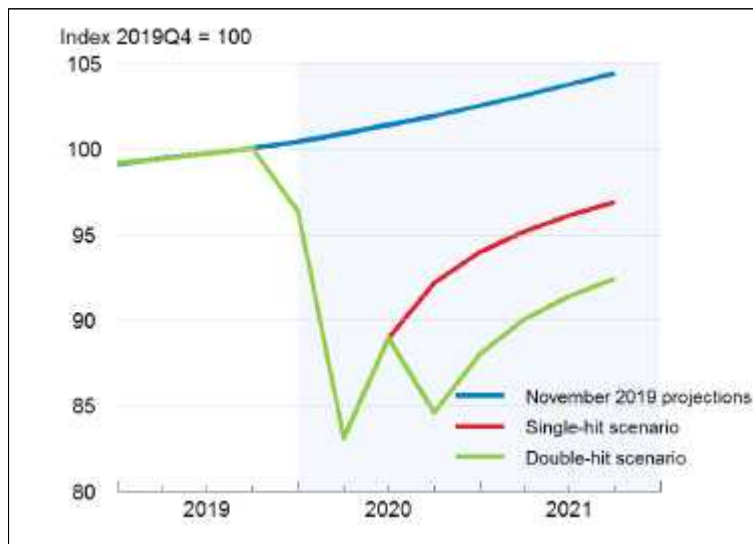
	2020	2021	2022	2023	2024
2020년 Corona 지속시	-2.82	-1.92	-1.44	-1.24	-1.05
새로운 발병이 2021년 발생시	0.00	-4.75	-3.28	-2.46	-2.15
2020년 지속과 2021년 발병시	-2.82	-7.29	-5.57	-4.53	-4.14

자료: IMF

- 그러나, 앞서 전망은 코로나 사태가 적절하게 극복된다는 가정하에 추정

한 것으로, 2020년을 관통하여 코로나가 지속할 경우와 2021년 코로나의 재유행 시 실질 GDP 성장률 예상치는 향후 수년간 네거티브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그림 II-25〉 코로나 19 시나리오별 무역량 전망



자료: OECD(2020)

- OECD의 전망에서도 현재 무역의 감소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예상치 역시 어떠한 시나리오를 상정하더라도 2021년까지 코로나 이전 시기의 무역량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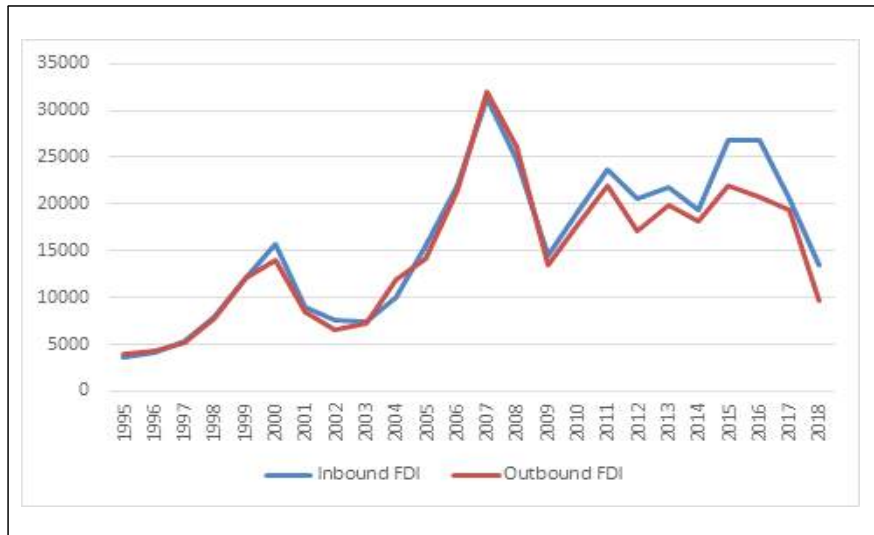
○ 탈세계화의 가속화

-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도 나타난 현상과 같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위기에 대응하여 주요국은 자국 중심적인 정책, 특히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증가
- 미국의 경우 에너지 기업들의 파산 압박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해당 분야에서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부과 등의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증가, EU는 철강업계에서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해당 품목의 수입제한 조치를 요구하는 실정
- 더불어, 불확실성의 증대는 길게 연결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여실

히 드러냈으며, 주요국에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제조업의 부활을 목표로 추진하던 주요 산업에서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리쇼어링이나 니어쇼어링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 중

〈그림 II-26〉 FDI 추이

단위: 억달러



자료: World Bank

- 최근 전 세계 FDI 추세에서도 탈세계화 흐름은 반영되고 있는데, 1990년대 이후 위기 시 등락은 존재하였으나 전반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던 외국인직접투자는 2009년 이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더욱 급격하게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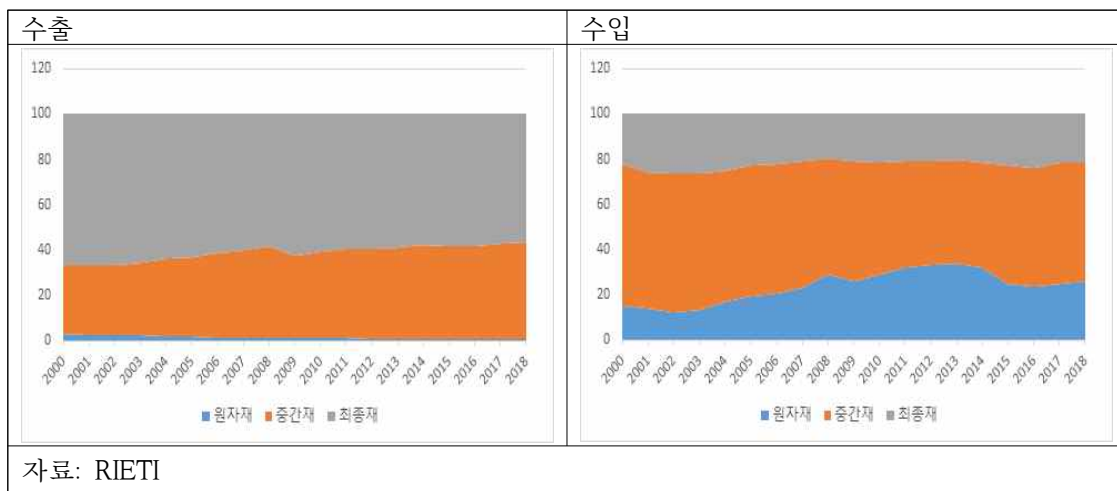
6. 국제 분업구조의 변화

□ 국제 분업구조 추이

- GVC 확대에 따른 국제분업구조의 핵심축을 담당하던 중국의 제조기지로서 역량 확대 둔화
 - 중국의 글로벌 생산기지 역할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중국 수출에서 최종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통해 변화 감지

- 2000년 67%에 이르던 최종재 수출비중은 2018년 56.4%로 감소했지만, 중간재 수출 비중은 동기간 30.2%에서 42.8%로 증가하였음

〈그림 II-27〉 중국의 생산단계별 수출입비중 변화 추이



- 반면, 수입에서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중간재의 수입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최종재의 수입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가공무역 억제정책과 자국 내 산업발전 정책추진 결과로 볼 수 있음

〈표 II-11〉 중국 최종재 수출에서의 글로벌 공급망 추이

(단위 : 억 달러)

	2000	2005	2010	2014
중국의 최종재 수출(a)	1,445	4,478	8,962	12,026
중간재 생산액(d=b+c)	2,859	10,152	21,163	29,334
중국 생산(b)	2,224	7,264	16,329	24,137
제3국 생산(c)	634	2,887	4,834	5,196
(+2,253)		(+2,253)	(+1,946)	(+363)
- 한국	64	311	438	563
(+246)		(+246)	(+127)	(+125)
제3국의 생산유발율(c/a)	0.44	0.64	0.54	0.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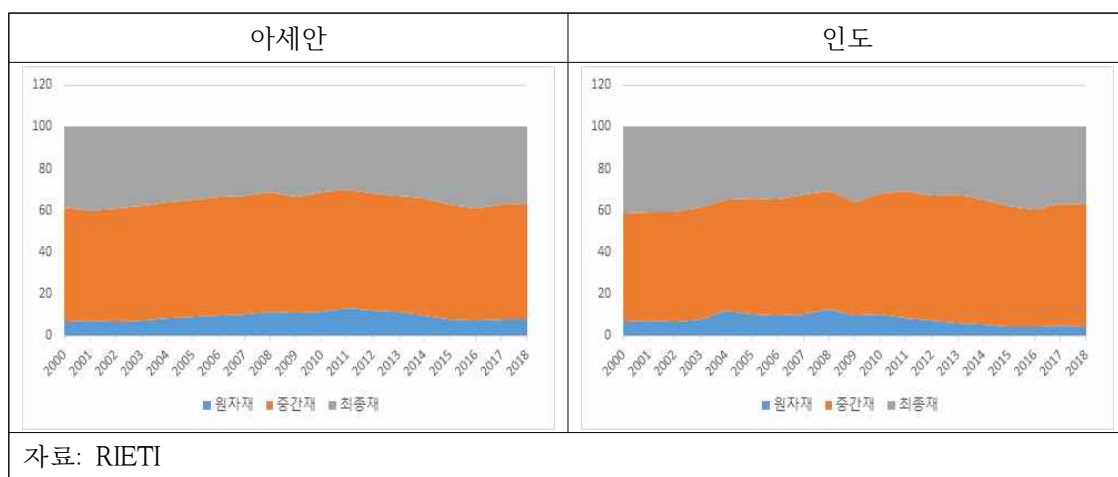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2018)

- 그 결과 <표 II-1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의 최종재 수출에서 외국이 기여하는 생산유발률이 최근 0.43으로 낮아지고 있는 사실로부터도 확인 가능

○ 아세안 및 인도의 글로벌 생산기지 역할 증가

- 중국과는 다르게 생산역량 발전에 따라 아세안 국가 및 인도의 글로벌 제조기지 역할이 확대
- 아세안의 최종재 수출 비중은 2010년 전후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 29.7% 였던 최종재 수출 비중은 2018년 39.8%까지 상승하였으며,
- 인도 역시 2011년 30.7% 수준에서 2018년 37% 로 증가하였는데, 동기간 중국의 최종재 수출 비중이 4~5%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최종재 생산에서의 글로벌 분업구조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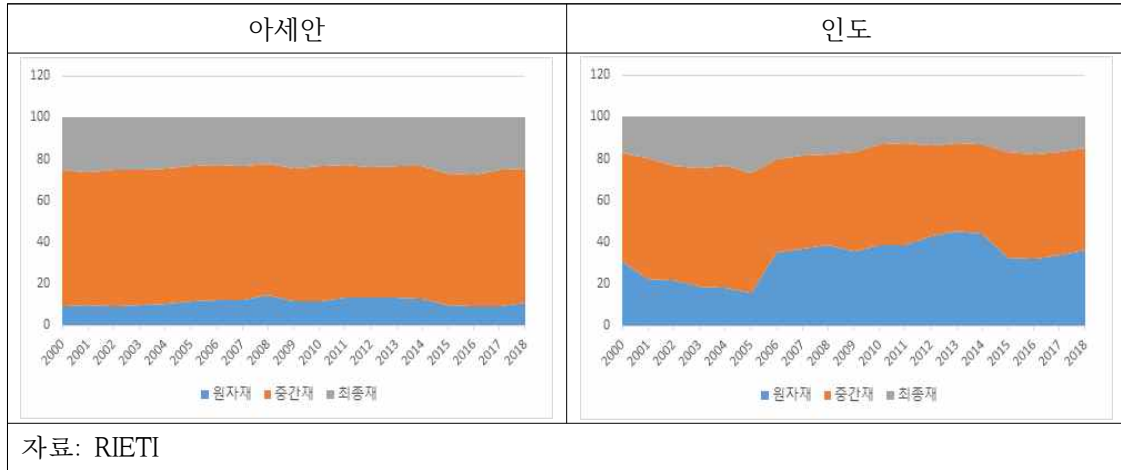
<그림 II-28> 아세안과 인도의 생산단계별 수출



- 반면, 최종재 조립에 필요한 중간재 수입비중은 아세안과 인도에서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데, 아세안은 65% 안팎 그리고 인도 역시 50% 정도를 계속 유지 중
- 이러한 수치는 중국의 중간재 수입 비중이 2000년대 62.3%에서 최근 50% 초반으로 하락한 사실을 고려하면 추세의 전환이 아세안과 인도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

〈그림 II-29〉 아세안과 인도의 생산단계별 수입



□ 향후 전망

○ 주요 제조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화 확대

- 미-중 무역분쟁의 지속, 중국의 가공무역 억제정책, 그리고 경제성장에 따른 비용상승 등으로 주요 글로벌 제조 기업들의 중국 이탈이 증가할 것

〈표 II-12〉 최근 기업의 탈중국 움직임

시기	내용
2019. 12월	미국의 중국산 신발과 의류에 15% 관세 부과 이후 제조업체들이 베트남과 캄보디아로 이전 추진(Bloomberg)
10월	폭스콘이 인도 휴대폰 제조설비 업그레이드(Wall Street Journal)
9월	삼성전자 광둥성 스마트폰 공장 철수(Financial Times)
7월	크록스(신발), 예티(맥주캔), 아이로봇(청소기) 등이 베트남, 인도, 대만, 말레이시아로 생산기지 이전 및 중국내 생산물량 축소

자료: 주요 신문

- 이러한 움직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세안 및 인도의 제조역량 강화와 비용 측면에서의 이점이 제조기업의 탈중국 현상과 결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미-중 디커플링을 통한 독자적 분업체계 구축 경향 강화

-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전략과 미국의 대응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으며, 탈글로벌화 혹은 탈중국화를 통해 미국은 중국을 자신들이 구축하는 글로벌생산네트워크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강화
- 중국 또한 5G를 비롯한 신산업 혹은 디지털 산업에서 자신들이 주도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일대일로 등의 대외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을 통해 중국 중심의 분업체계를 주도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III. 수출구조 변화

1.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수출 변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 지속

○ 금융위기 직후 글로벌 국제공조를 통한 금융시장 불안감 해소

- 글로벌 금융위기 불안감이 일정정도 해소되면서 금융위기 직후 대폭 감소하였던 세계 수출 규모는 빠른 속도로 회복
- 2009년 22.3%나 대폭 감소하였던 세계 수출액은 2010년에 21.8%나 증가한 데 이어 2011년에 다시 19.8%나 증가

○ 2012년 발생한 EU 재정 위기는 세계 무역의 침체를 장기화

- 2012년 그리스, 스페인 등에서 발생한 EU국가들의 재정위기가 다시 글로벌 무역을 강타하면서 세계무역은 장기간의 부진한 흐름을 지속
- EU지역의 경기침체는 세계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EU국가들의 수입 규모가 급속히 위축시키고 있으며, 그 영향이 EU 경제에 의존하는 중국과 미국 등에 파급되었고, 이는 다시 신흥국으로 연쇄 확산
- 세계수출액은 2011년의 18조 3,416억 달러에서 2018년 19조 4,681억 달러로 연평균 0.9% 증가에 그침

□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은 이전시기 위기와 차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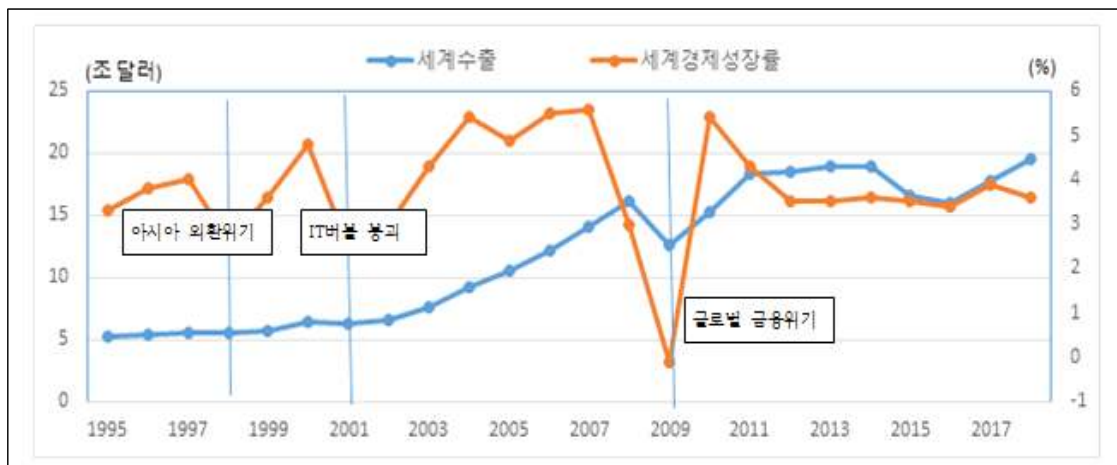
○ 금융위기 이후 경제 회복의 지연

- 아시아 외환위기와 IT 버블 위기시에는 급격하게 하락했던 경제성장률이 위기를 거치면서 곧바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번 금융위기 시에는 세계경제의 성장률의 반등이 더디게 이루어져 여전히 위기 이전 경

제성장률인 4% 대를 회복하지 못함

- 이는 이전 위기가 특정분야(외환위기와 IT 산업)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위기의 충격이 제한적이었으며, 경제 위기의 수습과 조기 회복이 가능
- 반면 2009년 금융위기는 미국에서 발생한 위기가 글로벌 영향을 미치면서 무역과 자본을 통해 신흥개도국에도 막대한 파급효과를 미치게 된 전분야의 위기로 결국 글로벌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고 위기의 조기 극복을 더디게 함으로서 글로벌 저성장세가 고착화

<그림 III-1> 최근 주요 경제위기 이후 GDP 및 무역 변화 추이



자료: WTO(세계수출), IMF(세계경제성장률)

- 이전 두 번의 위기와 달리 경제위기의 여파로 급격히 위축되었던 세계무역량이 추세적인 수준으로 바로 복귀되지 않고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지속

○ 우리나라 수출 역시 글로벌 추세와 동조

- 한국 수출 또한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동조, 금융위기 직후 급격하게 감소하였던 수출액이 2010년 빠른 속도로 반등하여 2011년에는 5,500억 달러를 상회하였으나, 이후 계속 정체되는 모습
- 2005~2011년 사이 11.8%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하였던 수출은 2011~2019년 사이 -0.3% 감소하는 현상을 보임

- 우리나라의 수출도 2011년 5,552억로 증가하고 반도체 경기의 반등을 통해 2018년 6천억 달러를 넘어섰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글로벌 경기 하락으로 2019년 5,422억 달러로 감소하여 2011년 보다 낮은 수준

〈그림 III-2〉 한국의 수출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 우리나라 수출 부진은 경쟁력 약화보다는 글로벌 환경의 구조 변경에 기인
 - 2010년대 나타난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 약화되었다기 보다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New Normal로 불리는 글로벌 저성장률과 교역 위축을 포함하는 구조적 변동에 따른 것으로 인식
 - 세계 수출액은 2000년 6.5조 달러에서 2011년 18.3조 달러로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으나, 2010년대 들어와서는 정체되어 2018년에도 19.5조 달러에 불과
 -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글로벌 교역 순위는 2005년 12위에서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위상은 2005년 세계 12위에서 2010년과 2015년 각각 세계 7위와 세계 6위로 계속해서 상승하였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수출 하락이 수출경쟁력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

2. 산업별 수출구조의 변화

- 금융위기가 미치는 영향은 산업에 따라 차별화

○ EU와 중국경제 의존도 그리고 경기민감형 산업에 영향이 큼

- EU 경기 침체 지속과 중국의 성장률 하락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또한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 역시 영향을 많이 받음

<표 III-1> 산업별 세계 수출액 추이

	수출액(억달러)			연평균 수출증가율(%)		
	2007	2012	2018	2007-2012	2012-2018	2007-2018
전기전자	1,819	2,365	3,221	5.4	5.3	5.3
(전자부품)	(525)	(707)	(1105)	(6.1)	(7.7)	(7.0)
(통신기기)	(287)	(382)	(606)	(5.9)	(8.0)	(7.0)
(가전)	(431)	(497)	(569)	(2.9)	(2.3)	(2.6)
자동차	1,133	1,319	1,538	3.1	2.6	2.8
화학제품	862	1,208	1,344	7.0	1.8	4.1
기계류	963	1,164	1,280	3.9	1.6	2.6
광물성연료	707	1,725	1,112	19.5	-7.1	4.2
음식료품	407	740	816	12.7	1.6	6.5
석유제품	436	977	790	17.5	-3.5	5.5
섬유류	458	664	748	7.7	2.0	4.6
농림수산업	334	665	709	14.8	1.1	7.1
의약	380	529	635	6.9	3.1	4.8
전체	10,995	16,490	17,877	8.4	1.4	4.5

자료:UN Comtrade

-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원유, 철광석 등의 원자재는 EU와 중국의 경제성장둔화로 인한 수요부족으로 수출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이를 가공하여 생산되는 제품들인 석유제품, 화학제품, 그리고 광물성연료(원유, 천연가스)의 수출은 더 크게 감소
- 또한, 글로벌 경제의 침체 지속으로 인하여 건설 및 설비투자가 급속하게 축소되고 있으며, 이와 연동된 기계류의 글로벌 수출 역시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음

○ 우리나라 수출은 전기전자산업에서 강세 지속

- 반면, 한국의 수출 주력산업인 전기전자산업은 금융위기 전후인 2007~2012년 시기에 연평균 5.4%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전체적인 수출 둔화가 나타나고 있는 2012~2018년 사이에도 증가율이 연평균 5.3%로 별다른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전기전자 산업의 대표업종인 통신기기는 중국을 포함하는 신흥국에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2012년 이후 오히려 증가세가 확대되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임
- 가전제품인 디지털 TV와 휴대폰 수요가 증가하고, 관련 IT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서 해당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등 IT 관련 부품의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글로벌 수출도 매우 안정적인 수준 유지

□ 세계 산업별 수출구조와 우리나라 산업별 수출구조 변화의 동조화

○ 글로벌 금융위기는 화학제품, 광물성연료, 그리고 자동차 산업에 부정적 영향

<표 III-2> 산업별 세계 수출비중 변화

(단위 : %)

	2007	2010	2013	2016	2017	2018
전기전자	16.5	16.0	14.4	16.3	18.0	18.0
(전자부품)	(4.8)	(4.9)	(4.4)	(4.9)	(6.0)	(6.2)
(통신기기)	(2.6)	(2.4)	(2.5)	(3.1)	(3.5)	(3.4)
(가전)	(3.9)	(3.5)	(2.9)	(3.3)	(3.3)	(3.2)
자동차	10.3	8.1	8.0	9.4	8.8	8.6
화학제품	7.8	7.5	7.3	7.4	7.3	7.5
기계류	8.8	7.3	6.8	7.3	7.1	7.2
광물성연료	6.4	8.6	11.1	5.6	5.5	6.2
음식료품	3.7	4.3	4.6	4.9	4.8	4.6
석유제품	4.0	4.9	6.0	3.7	4.0	4.4
섬유류	4.2	4.2	4.2	4.6	4.3	4.2
농림수산업	3.0	3.9	4.0	4.5	4.3	4.0
의약	3.5	3.5	3.2	3.8	3.5	3.6

자료: UN Comtrade

- 경기에 민감한 기계류의 수출이 전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글로벌 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2007년의 8.8%에서 2018년에는 7.2%로 감소하였으며, 자동차의 수출 비중도 동 기간 10.3%에서 8.6%로 하락

- 반면, 경기에 덜 민감한 농림수산업(3.0%→4.0%)과 음식료품(3.7%→4.6%)의 수출 비중은 상승
- 특히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매우 높은 산업인 휴대폰과 반도체는 전자부품과 통신기기를 중심으로 세계의 수출 비중이 지속적 상승

○ 한국의 수출 증가세도 글로벌 수출과 비슷한 흐름

- 한국의 수출증가율은 2007~2012년의 연평균 8.1%, 2012~2018년의 연평균 1.7%로 세계수출 증가율과 비슷한 흐름을 유지
- 그러나 산업별로는 2010년대 들어와 전기전자와 화학제품, 기계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는 등 세계의 산업별 수출 흐름과 다소 상이한 모습을 노출
- 한국과 세계의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산업별 수출 비중은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수출은 전기전자 품목이 36.9%나 차지하고 있으며, 화학제품(12.3%), 자동차(부품 포함 10.7%), 기계류(7.8%), 석유제품(7.7%) 등이 수출상위 업종

〈표 III-4〉 한국의 산업별 수출비중 변화

(단위 : %)

	2007	2010	2013	2016	2017	2018
전기전자	35.9	33.7	30.6	32.4	35.0	36.9
(전자부품)	(16.0)	(18.2)	(17.3)	(18.4)	(23.6)	(25.6)
(통신기기)	(9.6)	(7.4)	(6.1)	(6.4)	(4.2)	(3.7)
(가전)	(5.2)	(3.4)	(3.0)	(3.5)	(2.8)	(2.7)
화학제품	9.6	10.0	11.2	10.9	11.4	12.3
자동차	13.4	11.8	13.5	13.3	11.3	10.7
기계류	6.8	6.9	7.0	7.7	7.5	7.8
석유제품	6.5	6.8	9.5	5.4	6.2	7.7
철강제품	5.2	5.4	4.8	4.4	4.6	4.7
조선	7.2	10.0	6.4	6.7	7.1	3.4
정밀기기	1.4	2.0	3.0	3.5	2.4	2.5
섬유류	3.6	3.0	2.8	2.7	2.3	2.3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UN Comtrade

- 이들 수출상위 5개 업종은 세계 수출상위 5개 업종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수출구조가 세계시장의 수출구조 변화에 맞추어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다만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 한국의 수출 비중이 세계시장에서 전기전자 업종이 차지하는 수출비중의 2배에 이를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휴대폰 생산에 필수적인 전자부품의 경우에는 거의 4배에 이를 정도로 무역의 집중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 수출의 품목별 집중도 증가

○ 전기전자산업의 수출의 성장세 지속

- 전기전자산업은 2012년의 1,566억 달러에서 2018년 2,235억 달러로 이 기간 중 연평균 6.1%의 증가를 나타내 한국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표 III-3〉 한국의 산업별 수출 추이

단위(%)

	수출액(억달러)			연평균 수출증가율(%)		
	2007	2012	2018	2007-2012	2012-2018	2007-2018
전기전자	1,335	1,566	2,235	3.2	6.1	4.8
(전자부품)	(596)	(902)	(1549)	(8.6)	(9.4)	(9.1)
(통신기기)	(358)	(284)	(223)	(-4.5)	(-4.0)	(-4.2)
(가전)	(193)	(162)	(162)	(-3.5)	(0.1)	(-1.6)
화학제품	357	593	747	10.7	3.9	6.9
자동차	499	727	645	7.8	-2.0	2.4
기계류	252	402	472	9.8	2.7	5.9
석유제품	241	565	466	18.5	-3.1	6.2
철강제품	193	306	284	9.7	-1.2	3.6
조선	266	378	203	7.3	-9.8	-2.4
정밀기기	51	156	150	24.9	-0.7	10.2
섬유류	134	155	137	3.0	-2.0	0.2
전체	3,715	5,479	6,048	8.1	1.7	4.5

자료:UN Comtrade

- 특히 전기전자 중에서도 전자부품의 수출은 연평균 9.4%나 증가하였는데, 이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대비한 선진국 기업들의 서버 구축 등으로 반도체

수출규모가 크게 확대된 데 기인

- 반면, 통신기기 및 가전은 중국 등 해외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다, 동 기간 개도국인 중국, 멕시코 및 베트남에서의 현지 생산을 증가와 최종재 생산에 사용되는 중간재의 현지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감소

○ 석유제품과 조선, 철강제품 등은 2012년 이후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

- 석유제품과 철강제품의 수출 감소는 글로벌 경제 침체에 따른 수요측면에서의 감소와 그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이 주도하였으나, 중국이 시장에 참여하며 확대된 공급측면에서의 과잉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침
- 조선산업은 특히 EU 경제 침체로 글로벌 조선산업의 업황 악화로 수출 물량이 감소하고 마찬가지로 수출단가의 하락이 중요한 영향을 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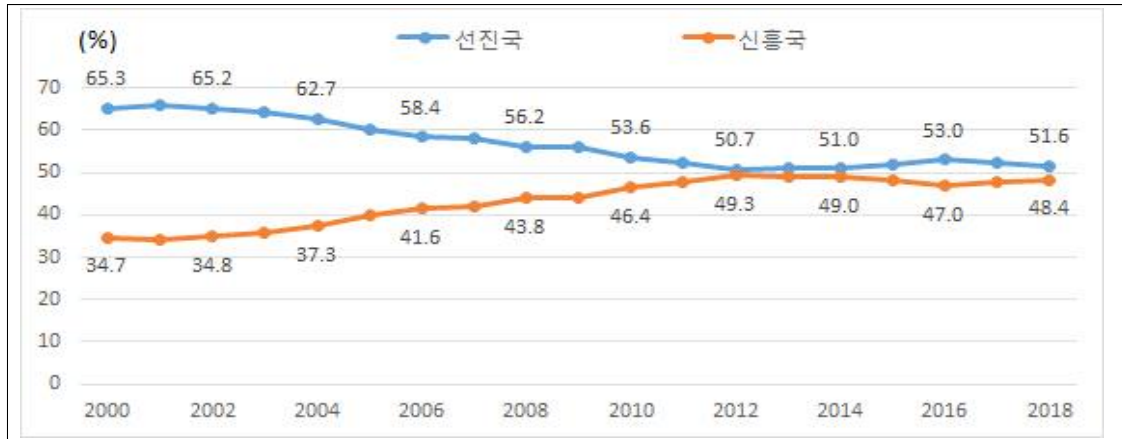
3. 지역별 수출구조의 변화

□ 신흥국의 글로벌 무역에서 위상 확대

○ 2000년대 신흥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에 따라 글로벌 무역의 성장을 주도

- 과거 선진국의 시장 역할에 머물던 신흥국이 주요 국가의 다국적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생산능력 확보와 함께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위치에 올라섬
- 더욱이 중국과 동구권 국가들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세계 무역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동하고 이들 국가들의 중요성은 점증
- 그 결과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신흥개도국의 비중은 2000년의 34.7%에서 2007년에는 42.0%로 상승한 반면, 선진국의 비중은 이 기간 중 65.3%에서 58.0%로 하락(<그림 III-3> 참조).

〈그림 III-3〉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의 수출비중 변화



자료 : WTO.

주 : 수출비중은 세계수출에서 차지하는 해당 경제권의 비중임.

○ 신흥개도국의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가

-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2012년까지는 계속 상승세
- 이는 금융위기가 미국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주로 선진국에 크게 영향을 미친 반면, 이에 벗어나 있는 신흥개도국은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았기 때문
-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신흥개도국의 비중은 2007년의 42.0%에서 2012년에는 49.3%로 상승하였으며, 선진국의 비중은 이 기간 중 58.0%에서 50.7%로 하락

○ 2013년 이후 신흥국 비중 확대 둔화

- 세계수출에서 차지하는 신흥개도국의 비중이 2013년 이후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안정적 수준에 머무는 등 이러한 양상에 변화가 발생
- 특히 그동안 꾸준히 확대되었던 중국의 수출 비중도 2013년 11.7%에서 2015년 13.8%의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18년에는 12.8%로 하락하는 등 정체 상태
- 이러한 중국의 수출비중 하락은 임금상승, 가공무역 억제조치 등으로 중국시장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생산기지로서 중국의 역할

이 과거보다 약화된 것도 한 요인으로 평가

〈표 III-5〉 주요 지역별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

	선진국	미국	EU	신흥개도국	중국	ASEAN
2000	65.2	(12.1)	(33.7)	34.8	(3.9)	(6.7)
2007	57.8	(8.2)	(35.1)	42.2	(8.7)	(6.2)
2012	50.6	(8.3)	(28.8)	49.4	(11.1)	(6.8)
2013	50.8	(8.3)	(29.2)	49.2	(11.6)	(6.7)
2014	50.9	(8.5)	(29.7)	49.1	(12.3)	(6.8)
2015	51.6	(9.1)	(29.8)	48.4	(13.7)	(7.0)
2016	52.8	(9.0)	(31.0)	47.2	(13.1)	(7.1)
2017	52.1	(8.7)	(30.8)	47.9	(12.8)	(7.4)
2018	51.6	(8.5)	(30.8)	48.4	(12.8)	(7.4)

자료 : WTO.

주 : 수출비중은 세계수출에서 차지하는 해당 경제권의 비중임.

□ 신흥국의 비중확대와 선진국의 비중 축소

○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의 성장

- 21세기에 들어서며 나타난 글로벌 무역에서 국가별·지역별 비중은 중국이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급격히 부상한 반면, 일본과 EU의 수출비중은 계속 하락
- 중국이 세계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9%에 머물렀으나, 2008년 미국을 넘어 세계 제1의 수출 국가로 부상하였으며, 2015년에는 13.7%까지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
- 반면 전세계 수출에서 미국의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2.1%에서 2008년 8.0%로 감소하였으나, 최근에는 다소나마 상승하는 모습
- 이전시기 미국과 함께 중요한 세계 수출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EU와 일본의 수출 비중은 한국과 중국의 수출시장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2000년

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신흥국들의 가격경쟁력이 EU와 일본을 앞서기 때문으로 분석

- 그러나 여타 신흥국들이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단기적으로 부침은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이 지속됨

○ 신흥국의 성장과 선진국의 정체

- 2000년대 이후 세계수입에서 차지하는 국별·지역별 비중의 변화도 수출과 유사한 흐름을 나타내, 중국과 신흥개도국의 비중은 상승한 반면, EU와 일본, 그리고 선진국의 비중은 계속 하락

〈표 III-6〉 주요국(지역)의 세계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

	2000	2007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신흥개도국	30.9	36.7	45.2	46.0	45.6	45.0	43.9	44.7	45.1
중국	3.4	6.7	9.7	10.3	10.3	10.0	9.8	10.3	10.8
ASEAN	5.7	5.4	6.6	6.5	6.5	6.6	6.7	7.0	7.2
한국	2.4	2.5	2.8	2.7	2.8	2.6	2.5	2.7	2.7
중동	2.5	3.4	4.1	4.2	4.3	4.6	4.4	4.1	3.8
중남미	3.1	3.3	4.0	4.1	3.9	3.7	3.3	3.2	3.3
선진국	69.1	63.3	54.8	54.0	54.4	55.0	56.1	55.3	54.9
미국	18.9	14.2	12.5	12.3	12.7	13.8	13.9	13.4	13.2
EU	32.7	34.6	27.7	27.7	28.1	27.6	28.5	28.7	29.0
일본	5.7	4.4	4.7	4.4	4.3	3.9	3.8	3.7	3.8

자료:WTO

- 수입시장에서는 중국의 성장에 따른 비중 증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최대의 수입국으로서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선진국과 신흥국의 수입에서의 전체적인 비중 차이도 지속
- 즉, 신흥국의 수입측면에서 선진국을 압도하는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지 못해 미국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됨

□ 한국의 지역별 수출에서 중국과 아세안의 중요성 증대

○ 중국과 아세안으로의 수출이 급격히 확대

-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지역별 수출액을 살펴보면, 중국과 아세안을 포함하는 신흥국의 수출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중국 수출은 2000년 185억 달러에서 2008년에는 914억 달러로 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아세안의 수출도 동 기간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 증가가 이루어짐
- 반면 2000~2008년 시기 선진국의 수출은 EU 수출을 제외하면 미미한 증가세

○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에 따른 수출증가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글로벌 수출은 중국 등 신흥국에 대한 수출 확대에 의하여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글로벌 가치사슬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이에 편입되는 신흥국의 글로벌 무역으로의 편입에 따른 것

〈표 III-7〉 한국의 지역별 수출 추이

	수출액(억달러)						연평균 수출증가율(%)	
	2000	2007	2012	2014	2016	2018	2007~12	2012~18
(개도국)	-	1,924	3,138	3,334	2,837	3,492	10.3	1.8
중국	185	820	1,343	1,453	1,244	1,621	10.4	3.2
ASEAN	201	387	791	846	745	1,001	15.4	4.0
중동	76	197	366	348	262	217	13.2	-8.4
중남미	94	258	367	359	254	278	7.3	-4.6
(선진국)	-	1,762	2,301	2,340	2,086	2,539	5.5	1.7
미국	376	458	585	703	665	727	5.0	3.7
EU	234	560	494	517	466	577	-2.5	2.6
일본	205	264	388	322	244	305	8.0	-3.9
전세계	1,723	3,715	5,482	5,727	4,954	6,049	8.1	1.7

자료 : 한국무역협회

- 특히 우리나라의 한-중 FTA나 한-ASEAN FTA는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에 따른 지역내 공급망을 구축한 결과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 수출 역시 정체

- 신흥국으로의 수출증가세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어느 정도 유지되었으나, 2012년 이후에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다소 벗어났던 대개도국 수출은 2007~12년 중에도 매년 10.3%의 상당히 가파른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2012~18년에는 증가율이 1.8%로 급격히 둔화
- 이는 선진국의 경기 침체 여파로 선진국의 수요 감소가 이들 지역으로 수출을 하는 신흥국의 수출 감소를 야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흥국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이 차례로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
- 국별로는 대중국 수출이 2012년 이후 한자릿 수로 증가율이 크게 낮아졌으며, 신흥국 중에서 중남미와 중동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은 감소
- 반면, 선진국의 가운데 유일하게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경기 회복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미국으로의 수출은 최근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본과 EU 지역으로의 수출은 여전히 위축되고 있음

□ 신흥국 중심의 우리나라 수출 비중 변화

○ 우리나라 수출의 선진국 비중 감소

-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지역별 수출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7년 47.4%에서 이르렀던 선진국으로의 수출 비중은 2010년 41.9%로 하락한 이후 최근까지 42% 내외를 유지
- 국별로는, 미국의 경우 2010년 이후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접어들면서 수출비중이 오히려 상승한 반면, EU와 일본에 대한 수출비중은 2010년대 들어와서도 계속 하락
- 대일 수출비중의 하락은 일본의 성장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이나, 한·일 산업구조가 유사한 것도 우리나라

가 일본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

- 대EU 수출비중의 하락은 2012년 EU 재정위기 이후 최근의 영국 브렉시트까지 이어지는 EU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EU경제가 저성장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

○ 신흥국으로의 수출비중 확대 및 정체

- 신흥개도국으로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급증하여 2007년 51.8%에서 2013년 59.2%로 상승하였으나, 최근 들어와서는 57%대에서 정체상태에 머물고 있는 상황
- 국별·지역별로는 중국과 아세안에 대한 수출비중이 최근 들어와서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반면, 2000년대에 그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던 중동과 중남미의 수출비중은 2010년대에는 계속 하락
- 중동·중남미의 수출비중 하락은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기의 저성장세가 고착되면서 국제 원자재가격이 약세를 보여 왔고, 이로 인해 자원보유국이 많은 중동·중남미 지역에 대한 수출이 더 타격을 받았기 때문
- 대중국 수출비중은 2013년 이후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2018년에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다시 26.8%라는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

○ 베트남의 중요성 증대

- 지역별 수출구조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2010년대 들어와 대베트남 수출 확대에 힘입어 대아세안 수출비중이 크게 상승하였다는 점임
- 대아세안 수출비중은 대베트남 수출비중의 확대(2.1%→8.0%)에 힘입은 바가 큰데 2010년 11.4% 였던 비중은 2018년에 16.6%로 크게 확대
- 대베트남 수출비중의 급상승은 최근 임금상승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 여건의 악화로 중국 진출 국내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이전하면서 베트남에 대한 신규

투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

-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베트남이 부상하면서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중간재 수출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그 결과 베트남은 2017년 이후 우리나라 제3위 수출교역국으로 부상

〈표 III-8〉 지역별 수출비중 변화

(단위 : %)

	2007	2010	2013	2016	2017	2018
중국	22.1	25.1	26.1	25.1	24.8	26.8
ASEAN	10.4	11.4	14.7	15.0	16.6	16.6
(베트남)	(1.6)	(2.1)	(3.8)	(6.6)	(8.3)	(8.0)
미국	12.3	10.7	11.1	13.4	12.0	12.0
EU	15.1	11.5	8.7	9.4	9.4	9.5
일본	7.1	6.0	6.2	4.9	4.7	5.0
중남미	6.9	7.8	6.5	5.1	4.9	4.6
중동	5.3	6.1	5.8	5.3	4.2	3.6
선진국	47.4	41.9	40.2	42.1	42.2	42.0
신흥국	51.8	56.7	59.2	57.3	57.3	57.7
신남방	12.2	13.9	16.7	17.4	19.2	19.1

자료: 한국무역협회

4. 가공단계별 수출구조의 변화

□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에 따른 중간재 무역 중요성 증대

○ 글로벌 무역은 중간재 무역이 주도

-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는 글로벌 무역에서 중간재의 중요성과 비중을 크게 증가시켜 최종재의 글로벌 무역비중을 넘어섰으며, 최근까지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
- 90년대 이전 국제무역은 선진국이 공산품을 수출하고, 신흥개도국의 1차 산품을 수출하는 산업간 무역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국제무역에서 최종재의

교역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그러나 90년대 이후에는 중간재 교역 비중이 계속 증가. 이는 선진국 기업들이 신흥개도국에 최종재를 직접 수출하는 대신, 신흥개도국에 대한 투자를 통해 중간재를 수출하고 이를 활용, 현지에서 생산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기 때문

○ 중간재 수출 증감률은 경기에 보다 민감

- 가공단계별 세계 수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2011년까지는 수출증가율에서 중간재가 최종재를 압도하였으나, 2012년 이후에는 중간재의 수출증가율이 최종재보다 더 큰 폭으로 둔화
- 세계 경제의 침체가 본격화된 2012년 이후 국제 무역에서 성장 둔화는 1차 상품인 원자재에서 우선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글로벌 가치사슬이 확대된 환경에서 중간재 부문으로 확대

<표 III-9> 가공단계별 세계 수출액 추이

	수출액(10억달러)			연평균 수출증가율(%)		
	2007	2012	2018	2007~12	2012~18	2007~18
1차상품	1,033	2,368	1,663	18.0	-5.7	4.4
중간재	5,003	7,374	8,238	8.1	1.9	4.6
(반제품)	(3,288)	(5,214)	(5,380)	(9.7)	(0.5)	(4.6)
(부품)	(1,715)	(2,160)	(2,858)	(4.7)	(4.8)	(4.8)
최종재	4,526	6,064	7,124	6.0	2.7	4.2
(소비재)	(2,565)	(3,480)	(4,138)	(6.3)	(2.9)	(4.4)
(자본재)	(1,961)	(2,584)	(2,986)	(5.7)	(2.4)	(3.9)
전 체	10,995	16,490	17,877	8.4	1.4	4.5

자료 : UN Comtr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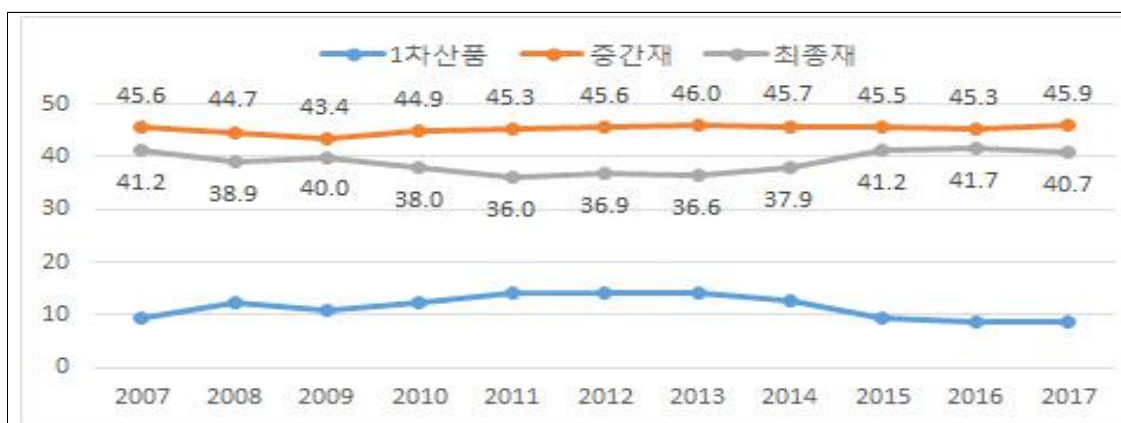
-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글로벌 경기 둔화로 1차 상품인 철광석과 원유의 수요 감소와 이에 따른 가격 인하 그리고 1차 상품을 활용한 생산품인 화학 및 석유제품 등 중간재 상품으로 전이 되었기 때문

○ 가치사슬 성숙화에 따른 중간재 무역 정체

- 가공단계별 세계 수출비중의 변화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중간재가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대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정체된 상태
- 세계수출에서 차지하는 중간재 비중이 정체상태에 머문 것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성숙화로 생산기술 및 생산비의 국가간 격차가 축소되면서 과거에 비해 생산의 글로벌화 유인이 약화되었기 때문
- 2007년 40.9%에 이르렀던 최종재의 수출비중은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 36.8%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금융위기 이전 수출 비중을 2015년에 도달
- 반면, 1차산품의 수출비중은 2007년의 9.3%에서 2011~13년에는 14.0%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1차산품 가격 하락으로 다시 8%대로 하락

〈그림 III-4〉 가공단계별 세계 수출비중 변화

단위:%



자료: UN Comtrade에 의거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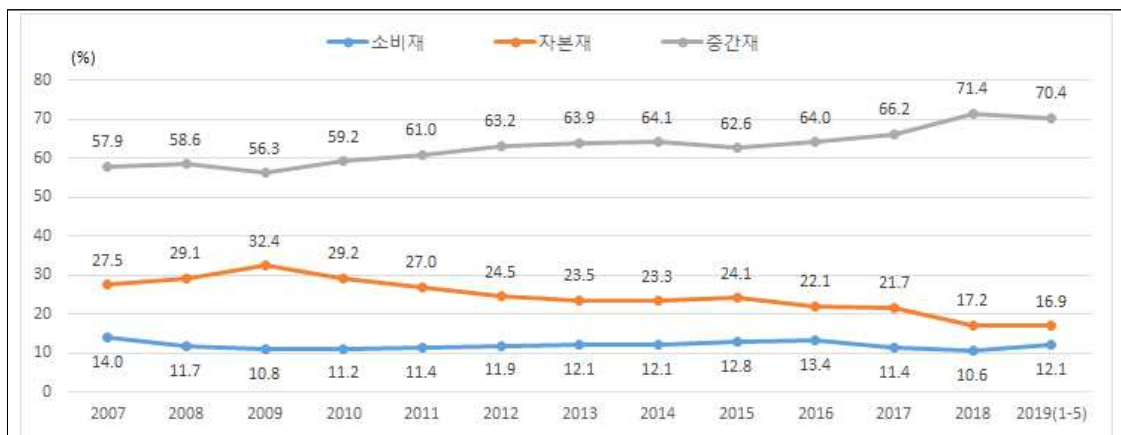
□ 우리나라 생산단계별 수출 구조는 중간재 상품 중심으로 재편 중

○ 한국의 중간재 수출은 금융위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

- 최근 들어 가공단계별 수출에서 세계시장의 경우 중간재와 최종재의 수출비중에 큰 변화가 없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중간재의 비중이 꾸준히 상승
- 2007년의 57.9% 수준이었던 중간재 수출비중은 금융위기 이후 상승세로 전환하여 2014년 64.1%, 2017년 66.2%로 꾸준히 올라갔으며 2018년에는 70%를 상회
- 그러나 2007년 41.5% 수준이었던 최종재 수출비중은 2014년 35.4%, 2018년 27.8%로 계속 하락
- 세부적으로는 소비재의 수출비중이 2007년 14.0%에서 2018년 10.6%로 소폭 하락한 반면, 자본재의 비중은 이 기간 중 27.5%에서 17.2%로 대폭 하락

〈그림 III-5〉 한국의 가공단계별 수출비중 변화

단위: %



자료: 한국무역협회

○ IT 부문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중간재 수출비중 증가

- 최근 한국에서 중간재 수출비중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은 2차 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수출비중이 경쟁력 향상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등에 힘입어 크게 늘어났기 때문
- 특히 반도체의 경우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어지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처리,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등을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서버용 투자 수요 확

대로 수출규모가 급격히 확대

- 우리나라의 해외진출 확대에 유발 수출 확대도 중간재 수출 증가에 기여
 - 한국의 해외투자 확대에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중간재 수출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풀이
 - 국내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접 수출하는 대신 해외투자를 통해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해 중간재를 수출하고 이를 현지에서 조립가공 후 현지에서 판매하거나 제3국에 수출
 - 최근 들어 대베트남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해외투자 확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국내 기업들이 점차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면서 대베트남 수출도 중간재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

5. 소결

□ 구조변화를 동반하는 이전 위기와는 다른 글로벌 금융위기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위축되었던 세계무역은 이전시기 위기와는 달리바로 추세적인 수준으로 복귀되지 않고 2010년대 들어와서도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지속
- 한국 수출 또한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동조, 금융위기 직후 급격하게 감소하였던 수출액이 2011년까지는 바로 회복되었으나, 이후 세계무역의 부진한 흐름 속에 계속 정체되는 모습
- 그러나, 우리나라 수출 부진의 원인은 수출경쟁력보다는 2009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발생한 글로벌 경제의 New Normal이라 할 수 있는 저성장세와 글로벌 무역의 축소 등 구조적 변화에 있는 것으로 평가

□ 글로벌 금융위기는 산업별로 차별화된 영향

- 글로벌 무역의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산업별 영향도 차별화되고 있는

데, 구체적으로는 EU와 중국 의존도가 높은 산업들인 석유화학과 석유제품 그리고 경기침체 지속에 따라 경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내구재인 자동차와 기계류 산업에서 수출 둔화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 우리나라의 산업별 수출비중을 세계와 비교해 보면, 전기전자, 화학제품, 자동차, 기계류, 석유제품 등 상위 5개 업종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산업별 수출구조가 세계시장의 산업별 수출구조와 동조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우리나라 최대 수출업종인 전기전자의 수출비중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의 두 배 정도에 달하고 있어 한국의 경우 수출편중도가 비교적 심한 것으로 분석

□ 신흥국의 중요성이 증대하는 글로벌 무역구조 변화

- 지역별로는, 2000년대 들어와 꾸준히 확대되었던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신흥개도국의 비중이 2013년 이후에는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안정적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이는 그동안 꾸준히 확대되었던 중국의 수출비중 정체가 가장 큰 요인으로, 중국시장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생산기지로서 중국의 역할이 과거보다 약화되고 있기 때문

-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지역별 수출구조도 2000년대 들어와 대개도국 수출비중이 57%대에서 정체상태에 머물고 있는 상황

- 다만, 국별로는 최근 들어 베트남이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부상하면서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수출비중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베트남이 2017년 이후 우리나라 제3위 수출교역국으로 부상

□ 중간재 무역의 성장과 정체 그러나 한국 중간재 수출은 지속성장

- 생산단계별로는, 금융위기 이전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산으로 꾸준히 상

승하였던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중간재 교역의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 46%전후에서 정체된 상태

- 이는 최근 들어 글로벌 가치사슬의 성숙화로 생산기술 및 생산비의 국가간 격차가 축소되면서 과거에 비해 생산의 글로벌화 유인이 약화되었기 때문

○ 생산단계별 수출에서 세계시장의 경우 중간재와 최종재의 수출비중에 큰 변화가 없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중간재의 비중이 꾸준히 상승

- 이는 해외투자 확대로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중간재 수출이 증가한데다, 경쟁력 향상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등에 힘입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전자부품산업의 수출비중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

□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 수립 필요

○ 첫째, New Normal이라 평가되는 저성장, 저물가, 교역 축소 등 구조적 변화로 인해 앞으로도 한국의 수출은 과거와 같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전망

- 수출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이 점차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보여, 수출과 내수의 균형성장 방안 모색

○ 둘째, 우리나라의 수출상품 구조 변화가 세계시장의 수출구조 변화에 동조화되고 있으나,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의존도 심화는 수출의 불안정성을 야기

-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부응하는 신산업의 육성 및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나타난 한국의 위상 증가를 활용한 바이오 등 신수출 유망품목의 적극적인 발굴 등 수출상품의 다변화 추진

○ 셋째, 최근 들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중국 및 개도국의 비중이 점차 정체되고 있어 중국 등 개도국에 대한 해외투자를 통한 중간재 수출 확대라는 현행 수출전략을 재검토할 필요

- 중국 일변도에서 벗어나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과 인도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진출 확대 방안 모색
 - 중간재 중심의 대개도국 수출구조에서 점차 벗어나 선진국에 대한 수출 확대 방안 마련 및 한국의 위상 강화를 활용한 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 모색
- 마지막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의 성숙화 등으로 중간재가 글로벌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정제되고 있으나, 한국은 여전히 중간재 중심의 교역에 치중하고 있어 수출의 불안정성이 발생할 우려
- 특히 중국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중간재 산업의 육성에 주력하고 있어 중국과 차별화될 수 있는 초격차 전략의 수립이 시급

IV. 미-중 무역분쟁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 무역기조 강화

-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후 지속적으로 글로벌 통상질서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며 한미FTA와 NAFTA를 비롯하여 그간 체결된 무역협정을 인정하지 않으며 재협상을 하거나 TPP 탈퇴 등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음.
- 특히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2017년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및 강제적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통상법 301조에 트럼프 행정부가 서명함으로써 미-중간의 무역분쟁이 발발

□ 예견되었던 미-중 무역분쟁

- 2019년 말 양측이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호 관세부과와 보복관세를 경쟁적으로 부과하면서 양국간 무역장벽을 높여왔으며 양자 간 합의와 번복을 반복하는 등 지난한 과정을 이어왔으며 글로벌 경제에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하였음
-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TPP 탈퇴와 기체결 FTA를 수정할 것을 제시하면서 특히 중국에 대한 불만도 함께 언급해왔기 때문에 미-중 간의 갈등은 예견되었던 문제
- 본 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의 경과를 살펴보고 미-중 무역 분쟁이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을 ADB(Asia Development Bank, ADB)가 제시하고 있는 시나리오별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고자 함³⁾

1. 미-중 무역분쟁의 경과

□ 미-중 무역분쟁의 시작과 전개

-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법 301조 서명 이후 미-중 무역분쟁 촉발

3) ADB (2018) “The Impact of Trade Conflict on Developing Asia” Asia Development Bank Working Paper

-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문제와 외국기업에 대한 강제적 기술 이전 관련 조사를 2017년 자국의 통상법 301조에 의거하여 서명함으로써 미-중 간 무역분쟁 촉발
- 미-중 무역분쟁은 국가안보를 사유로 적용 가능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하여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10%와 2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고 중국도 미국의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125개 미국 농축산물에 보복관세 부과

○ 상호보복적 관세부과 시행

- 2018년 5월에 양국 간 무역협상 결렬 이후 미국은 재차 추가 관세부과 의지를 확인
- 2,5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품목에 10~25%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중국도 5~25% 관세를 1,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
- 2018년 말 미-중 정상은 G20 회의를 통해 추가적인 관세부과를 연기 및 무역협상을 재개를 선언하였으나, 2019년 5월 다시 결렬
- 이를 이유로 미국은 기존 중국에 부과하던 관세를 10%에서 25%로 상향하여 적용하였으며, 개별기업인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실행하였으며, 중국도 600달러 규모 품목에 대해 추가 관세를 인상
- 이후 6월부터 8월까지 무역전쟁을 중단하고 협상에 돌입하였으나, 협상은 교착상태에 직면하였고 중국 환율이 평가절하되자 미국은 환율조작국⁴⁾으로 중국을 지정
- 이에 대응해 중국은 미국 농산물에 대한 추가관세 면제조치를 취소하고 국유 기업들이 사실상 수입금지 조치를 발동하였으며 증폭되는 미-중 갈등과정에서 국제 금융시장은 폭락과 반등을 반복
- 미국은 재차 9월 중국산 수입품 3,000억 달러에 15% 추가 관세를 부과하였는

4) 미국의 교역촉진법에 의거한 환율조작국 지정요건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대미 경상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둘째, 경상수지 흑자가 GDP대비 2%를 초과하는 경우, 셋째, 해당국의 환율시장 개입여부.

데, 여기에 더해 10월 부터는 15% 관세를 30%로 상향할 것이고, 12월까지 지속적인 추가 관세를 예고하면서 미-중간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함

□ 미-중 무역분쟁의 완화와 1단계 무역합의 도달

○ 미-중 협상을 통한 1단계 합의 도출

- 2019년 9월 중국이 미국 수입의 일부 품목에 대한 추가적으로 부과된 관세를 유예하는 발표를 하고 미국도 이에 상응하여 10월 1일로 부과 예정된 추가 관세 계획을 연기하며 협상에 돌입
- 2019년 12월까지 양측은 본격적으로 합의 도출을 위한 협상에 돌입하며 12월 15일 발효 예정이던 양측의 추가 관세부과를 보류
- 2020년 1월 15일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하며 18개월 만에 무역분쟁 잠정 종료
- 무역합의를 통해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수입제품의 구매를 대폭 확대하고, 미국은 중국 수입품에 대한 대규모 추가 관세를 철회함
- 중국측 : 2년간 2,000억불 규모의 상품 및 서비스 추가 수입, 지적권 보호 조치 강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 환율 조작 금지, 금융시장 외국인 지분제한 철폐 등의 이행을 약속
- 미국측: 2019년 12월 15일에 부과 예정이었던 1,600억\$ 상당의 수입품에 대한 15% 관세 철회, 1,120억불 규모 수입품에 부과하던 관세를 15%에서 7.5%로 인하

○ 코로나-19와 미-중 무역분쟁 재점화 가능성

- 미중 무역분쟁이 합의된 직후부터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사태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중국이 1차 합의에서 약속한 만큼 대미 수입을 이행하지 못하자 미국측은 중국에 대한 무역분쟁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임
- 미국은 중국에 대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책임론을 내세우면서 1차 합의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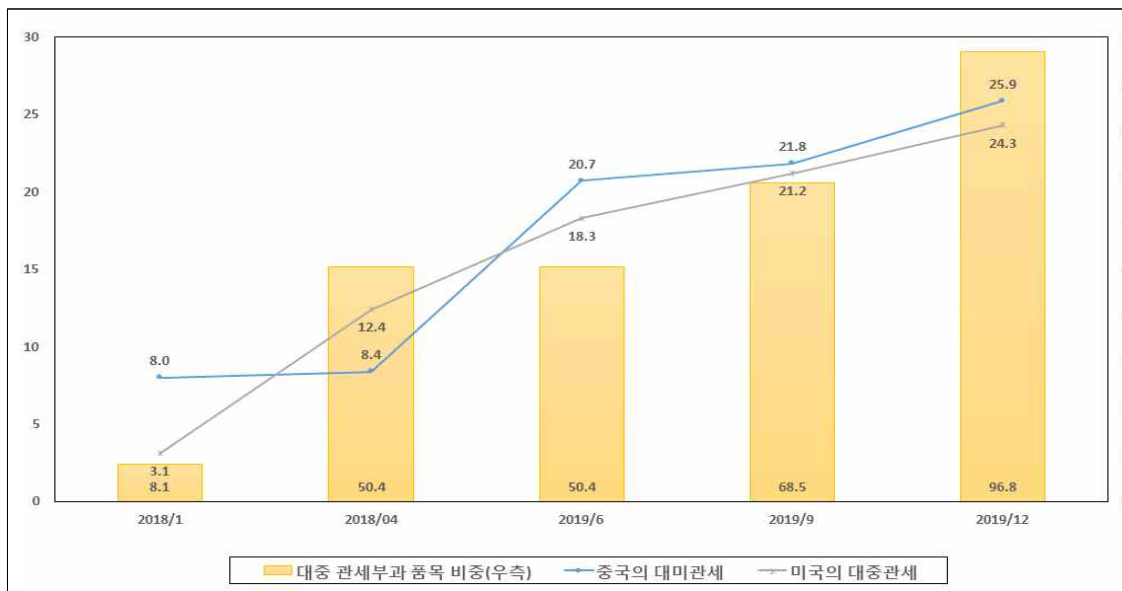
행은 물론 추가적인 수입확대를 요구하거나 화웨이 등 중국 IT산업에 대한 제재 및 통제를 강화

□ 미-중 무역분쟁 과정에서 무역수지 및 관세 추이

○ 미-중 무역분쟁 이후 양국 부과 관세 폭등

- Bown(2019)이 평가한 방식에 따르면 무역 미-중 무역분쟁 이전시기 대중관세는 3.1%수준⁵⁾이었으며, 대미관세는 8% 정도
- 그러나 미-중의 무역갈등의 최고조 시점에서 양국이 부과하기로 한 관세는 대중 21.2% 그리고 대미 21.8%로 상승하였는데, 만약 2019년 12월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12월 15일에 양측이 공표한 추가적인 관세인상 조치가 단행됐다면 약 25%수준까지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

〈그림 IV-1〉 미국과 중국의 가중평균 관세 추이



주: 관세는 무역량으로 가중 평균한 실효관세이며 대중관세부과 품목 비중은 미국의 대중 수입 품목에서 무역 분쟁으로 인한 관세조치로 영향을 받은 품목의 비중을 의미
 자료: 김재덕(2019) 재인용.

- 이 경우 중국의 대미수출액 중 96.8%가 추가 관세를 부담할 것으로 예측

5) Bown(2019) “US-China Trade War: The Guns of August” Trade and Investment Policy Watch, PIIE

〈그림 IV-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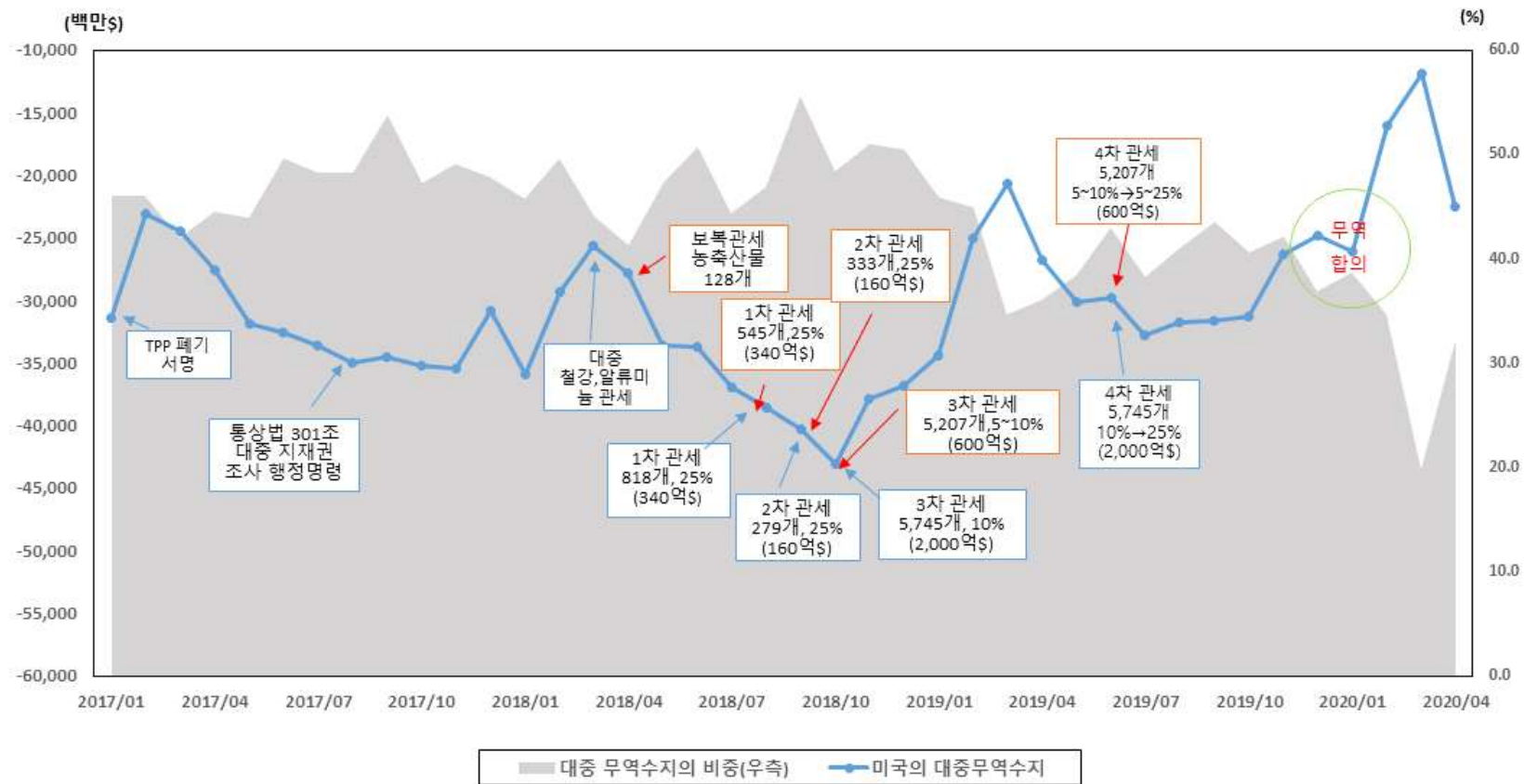
○ 보복관세 부과 이후에도 축소되지 않는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차 추이를 살펴보면, 트럼프 집권이후 3차 관세조치까지 부과하는 동안 미국의 대중무역수지가 꾸준히 감소하여 대중국 무역적자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그림 VI-2〉 참조).
- 특히 2018년 3월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이후 오히려 급격하게 대중 무역적자가 증가했는데 이는 미국의 수입업자가 대중국 관세가 시행되지 전에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이 기간 대중 무역수지가 대세계 무역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수준을 유지

○ 무역량 감소에 따른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 감소

- 2018년 10월 이후 반전된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 감소는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것은 전체 교역량 감소에 그 원인이 있음
- 2019년 5월 4차 관세부과 조치가 시행되고 양측이 협상과 번복을 반복하고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시기에도 대중무역수지 적자는 300억 달러를 조금 상회하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다 협상 과정에 들어가면서 대폭 축소되는 움직임을 보임

〈그림 IV-2〉 트럼프 집권 후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와 비중



주: 그래프 하단 파란색 상자는 미국의 관세부와 조치이며 붉은색 네모는 중국의 대응 관세조치
 자료: 미국 Census국 자료 이용 저자 작성

○ 코로나-19에 따른 대중 무역수지 적자 축소 추세 전환

- 2020년 1월 양측이 1차 합의에 서명하고 중국의 우선적인 이행조치로 대미수입이 급증하면서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급격히 축소되는 모습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봉쇄조치로 추세가 반전됨
- 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분기까지 중국의 미중 무역합의 내용에 따라 수입하기로 했던 432억 달러 중에서 실제 수입한 규모는 200억달러 수준으로 분석됨⁶⁾
- 중국이 약속한 추가 구매액 639억달러 품목별 구성은 공산품 329억 달러, 농산물 125억달러, 에너지 185억달러
- 이중 중국의 1분기 대미 공산품 수입액은 148억달러로 전년동기비 16.8% 감소해 이행해야할 규모의 53.4% 수준이며 농산품은 51억 달러로 이행률이 역시 절반 수준이나 전년대비로는 두배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에너지 수입액은 1억달러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상황으로 미국측의 불만을 야기
- 중국은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종식으로 경제가 회복세에 진입하여 미국은 중국의 대미수입을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나 전세계적 코로나-19 장기화로 중국 경제의 회복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

2. 미-중 무역분쟁의 파급효과 분석 모형

- 이 절에서는 ADB(2018)의 연구를 참조하여 미-중간 무역 분쟁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별국의 GDP와 수출 및 고용 등 주요 거시변수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⁷⁾
- ADB(2018)는 세부 품목별 무역자료를 바탕으로 무역분쟁의 대상이 되는 품목의 수입수요 탄력성을 도출하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국제산업연관표와 고용자료를 바탕으로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시나리오 분석을 시도하였음.

6) 이유진(2020) “미중 1단계 무역합의 경과와 우리 수출의 영향” Trade Brief,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한국무역협회

7) ADB (2018) “The Impact of Trade Conflict on Developing Asia” Asia Development Bank Working Paper

□ 자료 구축

- 무역 분쟁의 대상이 되는 세부 품목의 수입수요 탄력성을 도출하기 위해 프랑스 국제경제연구소(CEPII)의 BACI 자료를 기반으로 HS 6단위 수준에서 자료를 구축
- 거시경제 및 산업단위 수준에서의 무역분쟁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품목별 결과를 ADB자체의 다지역 산업연관표(ADB Multi-regional Input-Output Table, MRIOT)를 기준으로 35개 산업수준으로 집계하여 분석
 - ADB는 세계산업연관표(WIOD)를 바탕으로 WIOD에 포함되지 않은 아시아 일부 국가들을 포함하고, 시점을 2017년도까지 확장한 다지역 산업연관표(ADB Multi-regional Input-Output Table, MRIOT)를 구축하여 제공
 - ADB 자료는 세계산업연관표(WIOD)의 최신연도가 2014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7년까지의 연장표 자료를 구축하여 단점을 보완
 - 또한 품목단위의 탄력성을 산업단위로 집계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시장점유율과 상품고도화 지수(Product Complexity Index)를 활용하여 보완
- 보정한 자료를 바탕으로 무역 분쟁의 정도에 따는 시나리오별 영향을 산업연관 분석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야별 파급효과를 분석⁸⁾

□ 무역분쟁 시나리오 설정

- ADB(2018) 연구의 기본 시나리오는 2019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해 3740억 달러, 중국이 미국에 1180억 달러 상당의 상품에 대한 관세인상 조치를 바탕으로 분석
 - 기본 시나리오(Base scenario)는 미-중간 이루어지고 있는 상호관세부과에 더해 미국이 대세계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조치 및

8) 여기서는 해당 연구가 설계한 모형을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자세한 모형설정과 세부 자료구축은 원문을 ADB (2018) 참고.

한국과 브라질 등이 관세 예외 대신 받게 된 쿼터를 포함

- 두 번째 상호 보복(Bilateral Escalation) 시나리오는 미-중 양국의 무역 상품 모두에 동일하게 30% 관세 부과를 상정
- 여기에 자동차 관세인상은 이전 관세 조치에 추가해 미국이 12월로 결정을 연기한 자국이 수입하는 모든 자동차와 자동차 관련 부품에 부과한 25% 관세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한 한국 포함 모든 국가의 보복관세 포함
- 최악의 시나리오(Worst-Case Scenario)는 상술한 모든 보호주의 조치를 포함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글로벌 경제의 뚜렷한 하강에 따라 미국이 자동차 부문 관세인상을 선택할 가능성은 낮게 선정하였음

○ 무역분쟁의 세 가지 파급 경로 바탕 분석

- 2020년 현재 미-중간에 1단계 무역 합의가 이뤄졌으나 일부 품목에만 관세가 낮아지고 대부분 2019년 9월 수준의 관세 수준이 유지되고 있으며 2019년 12월에 예정되었던 추가 관세인상만 철회한 상황
- 첫 번째 경로는 직접효과(Direct effect)로 관세부과로 영향을 받는 국가와 품목에서 상품의 가격인상으로 인하여 해당 품목의 수입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점
- 두 번째 경로는 간접효과(Indirect effect)로서 국내 및 글로벌 공급망에 연결된 글로벌 경제를 고려한 효과로 특정 품목의 수입 또는 수요의 감소는 관련 중간재 수요의 감소를 유발할 것이라는 점
- 세 번째 경로는 무역의 전환(Trade Redirection effect)효과로 추가 관세부과에 따라 관세부과 대상이 되지 않은 국가 및 기업이 관세 부과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
- 무역전환 효과는 관세 조치가 차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관세 조치 부과 대상이 아닌 국가의 기업이 생산과 수출 확대를 얻게 될 것

○ 무역전환 효과의 유무 및 크기에 따라 상이한 파급효과

- 세 가지 경로는 무역 분쟁의 대상이 되는 품목이나 경과 시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무역전환 효과의 크기에 따라 한국과 같은 일부 국가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관세부과의 직접적인 효과는 부과 즉시 나타나는 특징을 지니는데 반해, 간접효과는 직접효과에 의해 유발되는 효과로서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무역전환 효과는 시장구조 등 대체 가능성에 따라 그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남
- 특히 무역전환 효과가 발생 및 비중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기 때문에 대세계 시자 점유율이 높거나 중국과 미국시장에서 경쟁하는 국가의 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국이 이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어, 미-중 무역분쟁의 격화시 우리 기업에게는 위기와 함께 일정정도의 기회 발생 여지도 존재

3. 미-중 무역분쟁의 파급효과 분석결과

□ 세 가지 파급경로와 무역전환 효과의 규모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

○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만을 고려 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미-중 무역분쟁의 부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남

- 본 절에서 설명하는 분석결과는 현재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인 상호 보복 단계, 즉 미-중 양측이 상호 교역하는 모든 상품에 30%의 관세를 부과한 상황에서의 파급 효과를 분석
-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만을 고려한 기본모형(Base Model) 결과 미-중 무역분쟁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GDP -0.22%, 수출 -0.52% 그리고 고용은 -0.18%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그림 IV-3>의 좌측 그래프)

○ 무역전환 효과 고려시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완화 혹은 개선

- 무역전환 효과를 고려한 모형은 각각 10%와 30%의 무역전환 효과를 고려하여 분석
- 이러한 무역전환 효과 분석의 결과는 그 동안 미-중간 무역 갈등 속에서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증가한 원인의 일정부분을 설명, 무역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미-중 무역분쟁시작 이후 중국 제품의 미국시장 점유율이 20%수준에서 18%로 2018년 상반기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우리나라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소폭이지만 상승⁹⁾
- 추가 관세가 부과된 품목에서의 시장점유율의 상승폭도 비슷하게 증가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에서도 우리 수출품의 점유율이 상승하는 등 양국 모두에서 무역전환 효과는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 10% 무역전환 효과 가정

○ 미-중 분쟁이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부분 완화

- <그림 IV-3>의 우측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만약 미-중 간 상호 관세를 부과한 품목에서 무역전환 효과가 10%정도 발생한다면 한국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일정부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 우리나라의 GDP 감소폭은 기존 -0.22%에서 -0.10% 축소되고, 특히 무역전환 효과는 수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기본 시나리오에서 우리 수출이 -0.11% 감소하지만, 무역분쟁이 격화되어 미-중 양측이 상호 25%의 관세를 부과하여 상황에서는 무역전환효과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0.04% 증가하여 전체 수출은 0.07% 감소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분석
- 우리나라 고용 감소폭도 -0.18%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 기본모형에서 무역전환 효과의 고려 시 -0.08%만 축소되는 것으로 분석

○ 미-중 분쟁의 최대 피해자 중국과 최대 수혜자 베트남

- 중국이 미국보다 미-중 분쟁에 따른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큼

9) 문병기 외 (2019) “미중 무역 분쟁의 수출 영향” Trade Focus 24호, 국제무역연구원

- 미-중 무역 분쟁에 따라 전세계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GDP가 -0.30%, 교역 -1.41% 고용 -0.29%가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 특히, 미-중 무역분쟁에 따라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직접적이고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고, 일자리 감소폭도 중국만의 일자리 감소가 전 세계 고용전체의 감소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미국의 일자리 감소는 크지 않음
- 베트남은 미-중 무역분쟁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베트남의 수출과 GDP 그리고 고용에서 각각 1%이상, 1.17% 그리고 0.1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 IV-1〉 미중 무역분쟁의 주요국 거시경제 파급효과-1

(%, 천명)

	GDP	수출	고용
전세계	-0.30	-1.41	-0.29
미국	-0.29	-3.80	-0.25
중국	-1.28	-9.39	-1.16
일본	-0.03	-0.05	-0.02
베트남	0.29	1.17	0.12
EU	-0.02	-0.02	-0.01

주: 무역전환효과 10% 수준에서 상호보복단계(미-중간 30% 관세부과)에서의 분석결과

자료: ADB 자료 이용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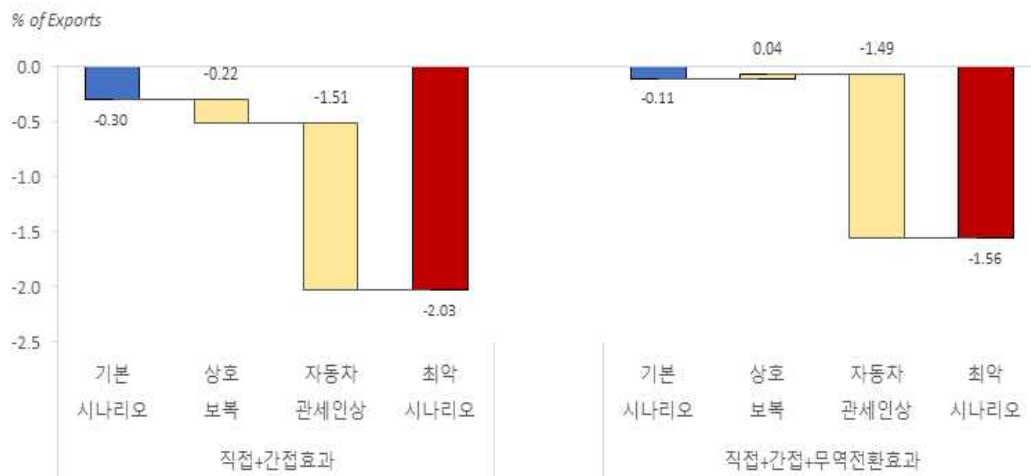
- 일본과 EU도 상대적으로 미-중 무역분쟁의 파급효과가 크지 않게 나타남

<그림 IV-3> 미중 분쟁의 한국 거시경제 파급효과 1(기본분석 vs 무역전환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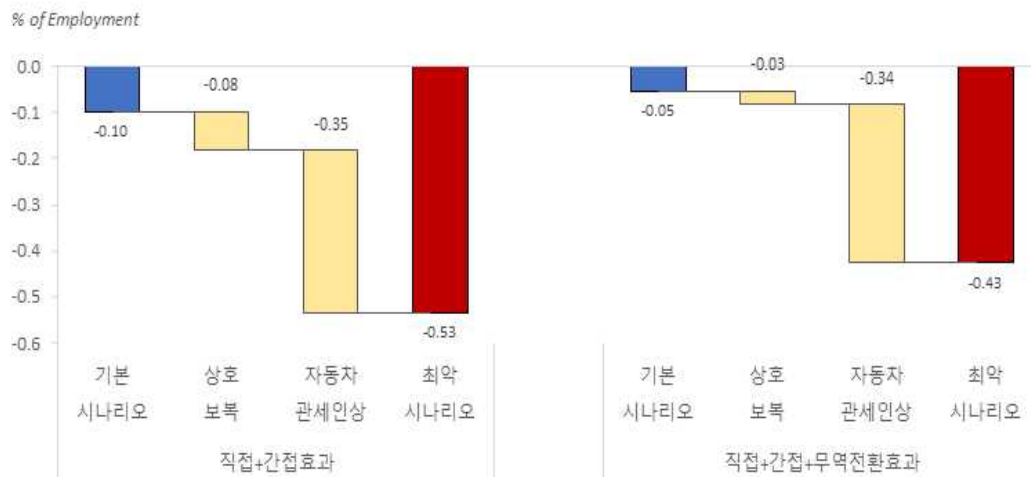
GDP 파급효과



수출 파급효과



고용 파급효과



자료: ADB 자료 이용 저자 작성

□ 30% 무역전환 효과 가정

○ 미-중 무역분쟁은 우리나라에게는 기회로 작용

- 추가적인 분석은 무역전환 효과가 30% 수준으로 높다고 가정하고 무역 분쟁을 분석할 경우 무역분쟁의 직간접효과를 상쇄하는 전환효과로 인하여 우리 경제에 일정정도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제시
- 구체적으로 무역전환 효과를 30%로 상정하고 분석하면 우리나라의 GDP, 수출, 고용은 각각 0.15%, 0.81% 그리고 0.1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 그러나 이러한 가정하에서도 미국이 전세계에 자동차 관세 인상을 시도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하에서는 GDP, 수출, 및 고용이 각각 -0.25%, -0.63%, -0.21% 감소

○ 무역전환 비중을 높게 설정할수록 전세계에 미치는 충격 완화

- 미-중 무역분쟁이 전 세계에 미치는 충격은 무역전환 비중이 높아지면 미국과 중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국가에서 점차 완화되며
- 많은 국가에서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반사 이익을 얻는 것으로 분석됨

<표 IV-2> 미중 무역분쟁의 주요국 거시경제 파급효과(무역전환 30%)

(%,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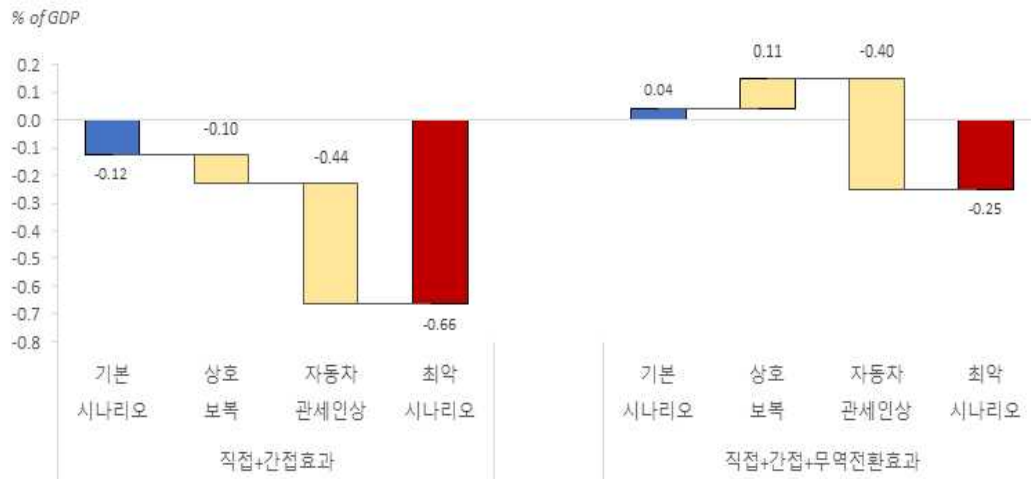
	GDP	수출	고용
전세계	-0.24	-1.08	-0.22
미국	-0.26	-3.75	-0.23
중국	-1.25	-9.34	-1.13
일본	0.04	0.44	0.04
베트남	1.35	4.75	0.70
EU	0.05	0.20	0.05

주: 무역전환효과 10% 수준에서 상호보복단계(미-중간 30% 관세부과)에서의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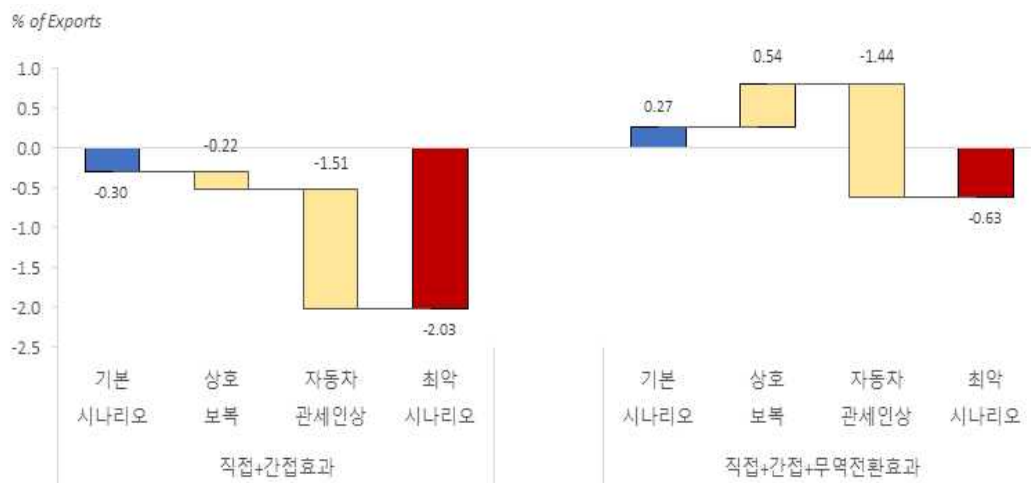
자료: ADB 자료 이용 저자 작성

<그림 IV-4> 미중 분쟁의 한국 거시경제 파급효과 2(기본분석 vs 무역전환 30%)

GDP 파급효과



수출 파급효과



고용 파급효과



자료: ADB 자료 이용 저자 작성

4. 소결

□ 미-중 무역분쟁은 장기화할 것

○ 미국의 대선까지는 이어질 가능성 높음

- 앞서도 언급했듯이 2년여간 이어온 미-중 무역분쟁이 1차 합의에 도달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현재 상황에서 2차 무역분쟁 재점화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미국의 대선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다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 상황의 악화와 미국 내 부정적인 여론의 증가로 2차 분쟁으로 확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혼재

○ 다양한 분야에서 분쟁은 이어질 것

- 관세 부과 이외에도 지적재산권,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기술 이전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분쟁의 가능성이 높아 미국과 중국 모두 쉽게 물러나기 어려운 형국
- 또한 홍콩 사태 등 정치적 이슈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과 같이 향후 미-중간 대립과정에서 외환시장과 금융부문으로 분쟁 범위가 확대할 우려도 존재
- 아울러, 중국 이외에도 미국은 EU, 한국, 일본 등과도 지속적으로 자국 이익을 위한 혹은 정치적 이익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

□ 미-중 무역분쟁의 파급효과 완화를 위한 다양한 부분의 대응 필요

○ 경기 침체의 지속에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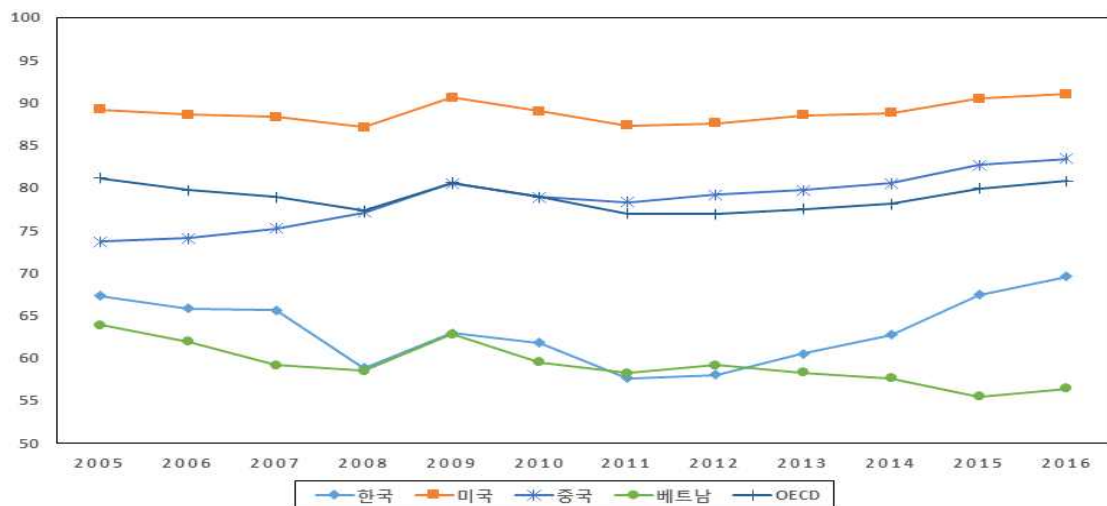
- 미-중간 무역 분쟁 범위의 확산과 장기화는 글로벌 불확실성을 확대하여 글로벌 경기하락을 더욱 부채질 할 가능성이 높음
- 미-중 무역 분쟁의 장기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중장기적 대응방안의 마련이 필

요

○ 글로벌 공급망의 재구축 대응 필요

- 우리나라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코로나-19 사태 등을 통해 경험하였듯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화가 경제 안정화에 필수적
- 최근 주요국은 공급망의 안정화를 통한 자국 산업과 경제의 안정화를 추구하는 리쇼어링과 니어쇼어링 확대 경향을 강화
- 여기에 더해, 각국은 단순 교역이 아닌 자국내 경제 효과 극대화를 위해 부가가치의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데, ‘중국제조 2025’ 역시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이해 가능

<그림 IV-5> 총수출의 국내부가가치율



자료: OECD 자료 이용 저자 계산

□ 미-중 무역분쟁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

- 무역전환 효과를 고려한다면, 미-중 무역 분쟁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에 기회로 활용될 여지가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각국의 대응방식에 따라 차별화될 것
- 무역전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국산화 및 수입대체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가치사슬에 연동되어 있는 우리 교역 구조를 분석하고 경쟁력을 가진 고부가가치 산업과 글로벌 가치사슬 내 활용가능 산업과 기능을 선별하고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

- 최근 정부에서는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을 발표¹⁰⁾했는데, 그 동안의 무역정책을 총망라하여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전략, 그리고 시장별 우리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포함
- 무역 및 산업정책을 통해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의 확대 속에서 무역전환 효과의 이점을 극대화하고 우리경제의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10) 관계부처합동 (2019. 9)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

V. 경쟁력 지수를 활용한 수출 유망지역 및 품목 분석

1. 유망지역 및 유망 품목력 분석 방법론

- 본 장에서는 한국의 수출 경쟁력 및 유망 수출시장에 대한 매력도를 분석하고자 개별 국가와 품목을 기준으로 다양한 수출 및 경제지표를 종합하여 매력도 지수를 도출하고자 함
- 유망 수출시장 매력도는 수출상대국가의 시장크기를 나타내는 GDP와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GDP(GDP per capita, GDPPC), 그리고 성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GDP와 GDPPC의 연평균 성장률 수치를 활용하여 해당 지표의 평균치와 전체 자료에서 해당국가가 차지하는 순위를 평균하여 산출
 - 또한 유망 수출시장으로서의 매력도를 판단하기 위해 한국의 수출에서 상대국이 차지하는 비중과 상대국 총 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포함
- 수출상품 경쟁력은 한국의 양자간 수출입 자료를 활용하여 HS 6단위 수준에서 수출품목의 대세계 경쟁력을 나타내 주는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RCA)와 상대국 시장에서 품목의 경쟁력을 표시하는 시장비교우위지수(Market Comparative Advantage Index, MCA)를 도출하고 해당 국가에서 해당품목이 차지하는 순위를 평균하여 산출
 -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와 시장비교우위지수(Market Comparative Advantage Index)는 정규화(Normalize)하여 활용함.
 - RCA Index는 수출시장에서 특정 품목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특정국의 수출에서 동 품목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사이의 비율을 의미

$$RCA = \frac{X_{ik}/X_i}{X_k/X}$$

X_{ik} : i 국의 k 품목 수출,
 X_k : k 품목 총수출,

X_i : i 국 총수출,
 X : 세계총수출

- 특정 품목의 비교우위를 판단하는 데 널리 쓰이며 이 지수가 1보다 크면 비교우위 산업으로 해당 품목의 경쟁력이 높아 전 세계 평균보다 많이 팔린다는 의미
- 하지만, RCA 지수는 0부터 무한대에 걸쳐 분포하는 비대칭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품목별 상대적 비교에 있어서 불편함을 가지므로 다음과 같이 정규화함.

$$NRCA = \frac{RCA - 1}{RCA + 1}$$

- 정규화를 통해 NRCA는 대칭적 구조로 -1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며 NRCA가 양수인 품목은 비교우위를 가지고 음수값을 갖는 품목은 비교열위 품목으로 정의
- RCA지수는 전세계 수출시장에서 해당품목의 비교우위를 분석하는 지수이어서 특정 교역상대국 시장에서 해당 품목의 비교우위를 설명하지는 못하는 단점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장비교우위지수(Market Comparative Advantage Index, MCA)를 제시
- 시장비교우위지수(Market Comparative Advantage Index, MCA)는 다음과 같음

$$MCA = \frac{X_{ijk}/X_{ik}}{M_{ij}/M_j}$$

X_{ijk} : k 품목에 대한 i 국의 j 으로 수출, X_{ik} : i 국 의 j 국 총수출,
 M_{ij} : j 국의 i 국으로부터의 총수입, M_j : j 국의 총수입

- MCA 지수가 의미하는 것은 수출국가의 특정품목의 수출 비중과 수출국이 특정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상대적인 비율을 의미하며 1 이상이면 해당시장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함.
- MCA 지수도 다음과 같이 정규화를 통해 NMCA의 대칭적 구조로 도출하여 -1부터 1까지의 값을 가도록하여 NMCA가 양수인 품목은 해당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음수값을 가지면 비교열위 품목으로 정의

$$NMCA = \frac{MCA - 1}{MCA + 1}$$

2. 분석 자료

- 본 장에서 사용한 분석대상 및 분석기간은 한국의 교역상대국 중 다음의 분석 자료에서 자료가 누락되지 않는 193개 국가를 대상으로 HS 6단위 품목 수준으로 분석하며 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자료의 평균치를 활용
- 교역 자료는 프랑스 국제경제연구소(CEPII)의 BACI Database를 활용하여 HS2012 기준 6단위 수준에서 전세계 193개국 자료를 활용함.
- BACI Database는 UN의 COMTRADE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국가가 보고한 수출입자료의 불일치나 결측치 등을 통계적인 방법으로 보완한 교역 자료임.
- 수출시장을 분석하기 위한 경제규모(GDP) 및 소득수준(GDP per capita) 자료는 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 Database 활용
- 이전 연구에서는 무역비용을 기준으로 접근성을 분석한 지표도 포함하였으나 현재 가용한 최근 자료가 2015년까지로 본 연구에서 활용한 무역자료의 연도와 불일치 하여 무역비용을 고려한 지표는 제외함

3. 분석 결과

□ 수출 시장매력도

- 수출 유망 시장매력도 및 유망 품목지수의 구성을 위해서 우선 시장매력도는 시장의 규모와 성장률 그리고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구성하여 순위를 도출
- 시장규모는 총생산(GDP)과 소득수준(1인당 GDP)으로 구성하고 성장성을 반영하는 변수는 GDP 성장률과 1인당 GDP 성장률, 수출시장은 총수출에서 상대국이 차지하는 비중과 상대국 시장에서 우리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구성
- 수출시장 매력도 평가에서 중국(CHN)이 90.5 점으로 가장 진출이 유망한 시장

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베트남(VNM), 말레이시아(MYS), 인도(IND), 싱가포르(SGP)등 주로 신남방 지역이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음.

- 중국은 GDP 규모에서 전세계 2위를 했지만 GDP 성장률에서 14위 차지했고, 소득수준에서는 80위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소득 성장률에서는 5위로 높은 점수를 받았음.
- 또한 한국의 대세계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으므로 1위를 차지하였고 중국의 대세계 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순위는 11위를 차지

○ 시장매력도 점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중국만이 90점 이상이고 7위인 이란(IRN)과 8위인 아일랜드(IRL)를 제외하면 80점대 초반과 70점대 후반의 점수를 받은 국가들은 대부분 소위 신남방으로 불리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임

- 이들 신남방국가들은 시장매력도 최종 점수는 비슷하지만 항목별 점수구성은 상당히 상이함을 알 수 있음.
- 베트남은 시장규모 순위는 낮지만, 수출시장 점유율이 상위권이고 성장성 지표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3위인 말레이시아는 세가지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고른 순위를 보여주고 있으며
- 인도네시아는 1인당 소득규모 순위가 하위권이지만 시장규모와 성장률 지표가 상위권임
- 우리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은 14위를 차지했는데 시장매력도 항목에서 시장크기는 전세계 1위, 소득수준은 9위이며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순위도 2위지만 GDP 성장률과 소득성장률에서 각각 120위와 102로 성장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시장매력도 점수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차지함.

○ 중국 및 상위 국가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시장의 크기와 우리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시장매력도가 반드시 높지 않으며 성장성이 높은 신흥국가의 시장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게 구성됨.

〈표 V-1〉 시장매력도 및 항목별 순위

순위	국가	시장 매력도	항목별 순위					
			GDP	GDPPC	GDP Growth	GDPPC Growth	Exp Share	Market Share
1	중국	90.5	2	80	14	6	1	11
2	베트남	81.2	46	142	18	10	3	4
3	말레이시아	81.2	36	70	36	37	13	32
4	인도	81.2	7	149	7	5	7	49
5	싱가폴	80.3	34	8	83	77	6	22
6	필리핀	80.0	39	134	21	17	12	14
7	이란	80.0	27	103	30	29	25	20
8	아일랜드	79.7	38	6	2	1	64	128
9	터키	79.2	16	69	41	49	18	53
10	인도네시아	78.8	15	122	40	38	11	26
11	몰타	78.5	129	35	6	16	51	15
12	홍콩	77.2	35	21	105	83	4	21
13	파나마	76.7	76	61	38	47	35	19
14	미국	76.2	1	9	120	95	2	52
15	슬로바키아	74.8	62	49	81	51	24	28
16	폴란드	74.5	22	62	59	30	27	99
17	호주	74.2	12	11	118	127	9	25
18	우즈베키스탄	73.3	69	143	24	27	42	9
19	체코	72.8	47	45	73	45	30	77
20	아랍에미리트	72.0	30	24	100	85	22	66

출처: 저자 작성

□ 주요 수출시장의 품목 매력도

- 수출 유망품목의 경우 각 시장별로 개별 품목의 경쟁력으로 구성되고, 개별품목의 경우 HS 6단위 수준의 세부품목으로 구성되어 한눈에 결과를 보기는 힘든 단점이 있음.
- 따라서 분석결과의 예시를 보기위해 우선 시장매력도 상위 20개국의 점수 분포를 살펴보고 이후 일부 주요 국가의 품목경쟁력이 높은 상위 20개 품목을 살펴봄
- 수출 유망 품목의 품목매력도의 경우 6단위 수준으로 세부단위까지 많은 수의 품목을 비교 분석하였기 때문에 소수점까지 고려하여도 비슷한 점수가 나오는 경우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수출금액이 큰 품목을 상위에 랭크함

① 중국

- 한국의 수출시장매력도로 1위를 차지한 중국시장에서 NRCA와 NMCA를 적용하여 품목매력도 상위 20개 품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중국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품 중 매력도가 가장 높은 품목은 전통적인 수출 주력품목인 메모리반도체(854232)로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NRCA 순위는 11위인 반면 중국시장을 대상으로 한 NMCA 순위에서는 17위를 차지
- 반도체 메모리(854232)의 5년 평균 수출액은 469억달러로 다른 품목보다 수출규모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큼.
- 다음으로는 액정디바이스장치(901380)로 4년 평균 72억 달러를 수출하였으며 세계시장에서 NRCA 6위 중국시장에서 NMCA 20위, 3위를 차지한 아크릴로니트릴(390330)은 평균 9.4억 달러를 수출.
- 선박탱커(890120)의 경우 수출규모는 75백만달러로 작지만 세계시장에서 2위, 중국시장에서 6위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탄화수소제품인 파라크실렌(290243)의 경우 수출액은 68억달러로 많지만 중국내 NMCA 순위는 82위

- 20위권내 수출품목에서는 28(무기화학품)과 29(유기화학품)에 속하는 품목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것도 특징임

〈표 V-2〉 대중국의 품목매력도 순위 및 항목별 점수

순위	품목코드	품목 매력도	수출액 (천달러)	순위		점수	
				NRCA	NMCA	NRCA	NMCA
1	854232	100.0	46,940,828	4	17	0.87	0.74
2	901380	100.0	7,224,193	6	20	0.84	0.73
3	390330	100.0	945,999	5	28	0.86	0.70
4	284190	100.0	693,060	7	21	0.84	0.72
5	291739	100.0	299,941	15	14	0.81	0.74
6	550320	100.0	127,332	38	38	0.74	0.69
7	721069	100.0	99,276	9	18	0.83	0.74
8	890120	100.0	75,479	2	6	0.89	0.76
9	540247	100.0	28,629	51	31	0.71	0.70
10	280800	100.0	14,355	42	5	0.72	0.77
11	290243	99.5	6,829,519	12	82	0.82	0.64
12	290122	99.5	1,554,490	44	51	0.72	0.68
13	271320	99.5	1,042,983	92	23	0.64	0.72
14	390130	99.5	561,280	31	84	0.77	0.63
15	720917	99.5	373,289	53	19	0.71	0.73
16	292610	99.5	254,991	91	25	0.64	0.71
17	390220	99.5	52,466	33	55	0.76	0.68
18	291737	99.5	16,463	32	64	0.76	0.66
19	900120	99.0	1,289,798	23	110	0.78	0.61
20	280461	99.0	696,410	40	122	0.73	0.60

출처: 저자 작성

② 베트남

- 베트남시장에서는 NRCA와 NMCA를 적용하여 품목매력도 상위 20개 품목을 살펴보면 결과 유기화학물 제품인 291735(무수프탈산)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다음이 선박탱커(890120)임
- 베트남 시장에서는 반도체나 집적회로 등의 전자기기 제품군(85)의 품목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진되어 있음
 - 특히, 메모리반도체(854232)의 5년 평균 수출액은 35억달러 수준이며 NMCA 순위는 46위로 높으며 반도체메모리뿐 아니라 기타직접회로(854239), 컨트롤러(854231)나 인쇄회로(853400)등 전자기기 회로 기관의 매력도 점수와 수출액도 매우 높음것으로 확인
- 광학기기 품목에서도 4위인 900120(편광재료의 판)과 8위인 기타 액정디바이스(901380) 품목도 수출액이 상대적으로 높고 베트남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각각 79위와 84위를 차지
 - 중국시장에서 3위를 차지한 아크릴로니트릴(390330)은 베트남 시장에서는 19위로 평균 1억 달러를 수출하며 NMCA 순위는 168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표 V-3〉 대베트남의 품목매력도 순위 및 항목별 점수

순위	품목코드	품목 매력도	수출액 (천달러)	순위		점수	
				NRCA	NMCA	NRCA	NMCA
1	291735	100.0	15,904	34	34	0.75	0.65
2	890120	100.0	11,850	2	32	0.89	0.66
3	854232	99.5	3,505,733	4	46	0.87	0.64
4	900120	99.5	395,118	23	79	0.78	0.57
5	848630	99.5	268,325	17	50	0.81	0.64
6	390320	99.5	23,495	30	57	0.77	0.62
7	400259	99.5	20,107	39	82	0.74	0.56
8	901380	99.0	2,395,026	6	84	0.84	0.56
9	854239	99.0	1,174,158	57	43	0.70	0.64
10	650700	99.0	21,947	155	37	0.55	0.65
11	291739	99.0	11,597	15	116	0.81	0.50
12	854231	98.5	5,321,925	59	100	0.70	0.53
13	853400	98.5	1,772,992	133	69	0.59	0.59
14	854140	98.5	731,856	131	75	0.59	0.58
15	900190	98.0	216,257	69	146	0.68	0.45
16	721913	98.0	211,950	45	178	0.72	0.41
17	903149	98.0	182,774	193	72	0.51	0.58
18	600532	98.0	126,908	82	163	0.66	0.43
19	390330	98.0	101,851	5	168	0.86	0.42
20	400220	98.0	62,313	56	132	0.70	0.47

출처: 저자 작성

③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시장에서는 첨단섬유 제품인 400251(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고무의 라텍스)가 1위를 차지하고 수출도 4.9억달러 수준으로 높으며, 다음이 선박탱커(890120)로 4억달러정도 수출
 - 400251(아크릴로니트릴)은 세계시장에서 NRCA가 1위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며 말레이시아 시장에서도 NMCA가 15위 수준
- 말레이시아 시장에서는 1위와 2위 품목을 제외하면 28(무기화학품)과 29(유기화학품)에 속하는 품목과 72(철강)과 74(동제품)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진되어 있음
 - 284190(산화금속산염)이나 280800(황질산) 등 무기화학품등의 제품이 3,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92610(아크릴로니트릴)과 292910(이소시아네이트) 같은 유기화학품 수출도 유망함
 - 동제품도 741011(정제한 동제품)이나 740921(동코일모양)과 740721(황동의 붕) 등의 제품과 다양한 두께의 철강제품(720916, 720917, 721633, 720827, 720851)도 품목매력도가 높음
 - 기타광학기기(901380)는 세계시장에서의 순위는 6위로 높으나 말레이시아 시장에서의 NMCA가 221위로 낮아서 19위에 랭크
- 말레이시아 시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상위 수출매력도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 일부 품목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으로 향후 수출 다각화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

〈표 V-4〉 말레이시아의 품목매력도 순위 및 항목별 점수

순위	품목코드	품목 매력도	수출액 (천달러)	순위		점수	
				NRCA	NMCA	NRCA	NMCA
1	400251	100.0	490,950	1	15	0.90	0.89
2	890120	100.0	405,172	2	8	0.89	0.90
3	284190	100.0	84,083	7	12	0.84	0.89
4	280800	100.0	20,801	42	14	0.72	0.89
5	390330	99.5	44,221	5	51	0.86	0.82
6	291736	99.5	23,002	29	62	0.77	0.80
7	741011	99.0	39,577	62	73	0.69	0.79
8	740921	99.0	26,526	96	70	0.63	0.80
9	292610	98.5	82,433	91	89	0.64	0.77
10	292910	98.5	28,612	94	100	0.64	0.75
11	740721	98.5	13,619	178	26	0.52	0.86
12	281520	98.5	12,748	66	78	0.69	0.78
13	720916	98.0	49,600	128	87	0.59	0.77
14	720917	98.0	42,603	53	121	0.71	0.70
15	721633	98.0	32,774	120	93	0.60	0.76
16	400219	98.0	18,700	64	132	0.69	0.68
17	720827	98.0	12,507	108	91	0.62	0.77
18	840290	98.0	11,772	90	126	0.64	0.70
19	901380	97.5	66,107	6	221	0.84	0.59
20	720851	97.5	46,504	110	119	0.61	0.70

출처: 저자 작성

④ 인도

- 인도시장에서는 중국시장에서 3위를 차지한 아크릴로니트릴(390330)이 1위를 차지하였고 수출도 1.6억달러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으며, 다음이 유기화학품인 290723(이소프로필라덴디페놀)과 291732(오프토프탈산디옥실)이 차지
- 인도 시장에서는 메모리반도체(854232)의 5년 평균 수출액은 5억달러 수준이며 NMCA 순위는 63위에 위치하고 있으나 전자기기 제품군은 상위 순위에 적게 분포되어 있음
 - 기타집적회로인 854239도 17위에 랭크되어 4억달러 수준의 수출성과를 유지하여 유망
- 인도시장에는 철강제품(72)과 29(유기화학품) 및 39(플라스틱 제품) 등이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다른 국가들과 달리 NRCA 순위와 NMCA 순위간의 격차가 크지 않은 것이 특징
 - 철강의 경우 721069(평판압연제품)분 아니라 말레이시아와 보다는 더 다양한 형태와 두께의 철강제품이 수출되고 있음(720917, 722550, 720836, 720827)
 - 1위를 한 아크릴로니트릴(390330)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보다는 플라스틱 제품(39)이 유망 제품으로 20위권에 더 많이 올라와 있는 것도 인도 시장의 특징임(390130, 390610, 390220, 390320)

〈표 V-5〉 인도의 품목매력도 순위 및 항목별 점수

순위	품목코드	품목 매력도	수출액 (천달러)	순위		점수	
				NRCA	NMCA	NRCA	NMCA
1	390330	100.0	167,563	5	18	0.86	0.92
2	290723	100.0	79,276	16	16	0.81	0.92
3	291732	100.0	47,244	3	14	0.88	0.93
4	721069	100.0	37,025	9	24	0.83	0.91
5	890120	100.0	26,540	2	19	0.89	0.91
6	854232	99.5	501,909	4	63	0.87	0.86
7	720917	99.5	132,251	53	28	0.71	0.90
8	390130	99.5	110,821	31	67	0.77	0.86
9	790120	99.5	87,274	100	31	0.63	0.90
10	291739	99.5	78,657	15	43	0.81	0.88
11	722550	99.5	64,898	88	33	0.65	0.90
12	720836	99.5	61,358	95	20	0.64	0.91
13	390610	99.5	35,028	48	48	0.71	0.87
14	340420	99.5	26,740	50	44	0.71	0.88
15	390220	99.5	17,125	33	38	0.76	0.89
16	390320	99.5	10,291	30	39	0.77	0.89
17	854239	99.0	409,004	57	35	0.70	0.90
18	820730	99.0	120,441	89	57	0.64	0.87
19	400219	99.0	104,539	64	47	0.69	0.88
20	720827	99.0	53,329	108	25	0.62	0.91

출처: 저자 작성

⑤ 미국

-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은 시장매력도 조사에서 14위를 차지했지만 우리 수출비중이 중국 다음으로 높은 중요한 시장으로 미국에 대한 유망 품목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음
- 미국 시장에서 품목매력도가 가장 높은 제품은 845129(건조기)로 가전제품이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철강제품 중에서 강관이나 파이프 종류(730629,730619)의 제품이 순위에 올랐음
 - 845129(건조기)의 5년 평균수출액은 43억 달러 수준으로 8위에 랭크한 반도체(854239) 수출액 106억달러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함
- 미국 시장의 경우 다른 국가와 달리 보다 다양한 제품들이 상위 20위권에 수출 유망품목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치 특징임
 - 54(인조장섬유)나 55(인조단섬유)와 같은 제품이 10위권에 들었으며 특히 인조섬유인 540247(폴리에스테르)의 경우 세계시장에서는 51위(NRCA)를 수준이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9위(NMCA)를 기록
 - 481019(기타 제지)의 경우도 세계시장에서 낮은 순위(NRCA, 144위)지만 미국시장에서는 NMCA가 25위 수준의 유망 품목으로 평균 수출액도 3.2억 달러 수준으로 높음
 - 철강제품(72)도 상대적으로 많이 랭크되어 있음(721069, 721061, 720219, 721633)

〈표 V-6〉 미국의 품목매력도 순위 및 항목별 점수

순위	품목코드	품목 매력도	수출액 (천달러)	순위		점수	
				NRCA	NMCA	NRCA	NMCA
1	845129	100.0	430,513	22	24	0.79	0.86
2	730629	100.0	365,802	8	6	0.84	0.90
3	730619	100.0	229,491	47	11	0.72	0.89
4	390330	100.0	167,360	5	15	0.86	0.88
5	540247	100.0	33,350	51	9	0.71	0.89
6	290723	100.0	16,036	16	32	0.81	0.85
7	721069	100.0	10,072	9	34	0.83	0.84
8	854239	99.5	1,060,357	57	20	0.70	0.87
9	290220	99.5	637,365	55	26	0.71	0.86
10	550320	99.5	157,561	38	68	0.74	0.80
11	840211	99.5	91,682	24	69	0.78	0.80
12	400220	99.5	55,409	56	35	0.70	0.84
13	293623	99.5	15,085	41	82	0.73	0.79
14	281520	99.5	10,191	66	23	0.69	0.86
15	481019	99.0	316,758	144	25	0.57	0.86
16	721061	99.0	134,967	80	49	0.66	0.83
17	392051	99.0	89,478	84	57	0.66	0.81
18	720219	99.0	79,528	73	79	0.68	0.79
19	721633	99.0	64,469	120	41	0.60	0.84
20	370590	99.0	60,842	63	70	0.69	0.80

출처: 저자 작성

VI. 통상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

☐ 통상여건과 통상환경을 활용한 우리나라의 성장 전략

☐ 경제성장의 핵심 동인

- 한국 경제 성장에서 수출을 포함하는 교역은 핵심 성장 동력이었으며, 우리가 지닌 협소한 내수시장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 교역을 통해 선진기술과 시장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산업 역량 확충이 가능해 짐

☐ 글로벌 통상 기조와 조화된 통상정책

-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기간 이루어진 글로벌 자유무역 기조의 확산 경향은 우리의 수출주도 경제성장 전략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듦
- 그러므로 개별국의 통상정책은 글로벌 기조와 조화를 이룰 때 실현가능성이 증대

☐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전략 수립 필요

☐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는 기존 통상전략의 변화를 요구

- 최근 나타나고 있는 통상환경의 변화는 관성적인 방식으로 수출 확대 전략 추진에 대한 의문을 제시
-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발생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는 경기적 변동을 넘어서 구조적인 전환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전 통상환경으로 복귀는 어려움

☐ 변화에 조응하는 통상전략 수립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미-중 간의 통상마찰, 중국의 경제 정책 변화, GVC의 성장 둔화 및 내재되어 있던 한계의 발현 등은 통상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높이는 원인
- 특히, 코로나-19는 이미 침체된 글로벌 교역에 거대한 부정적 충격을 던지고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
- 본 장에서는 이러한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전략을 대외개방형 통상정책의 지속적 추진, 통상리스크 관리 및 축소를 위한 정책 추진, 통상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전략, 마지막으로 통상강국의 위상정립을 제시하고자 함

1. 대외개방형 통상정책의 지속적 추진

○ 변화를 분석하되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는 개방형 통상정책 지속

-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보호무역 조치들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부정적 경기전망의 확산은 주요국의 보호주의 조치가 강화될 것
- 우리나라는 이러한 보호주의 흐름을 배격하기 위해서 개별적 대응보다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는 주요국들과의 공동대응을 통해 자유무역 재강화 흐름을 복원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체결 FTA의 적극적 활용과 함께 새로운 FTA를 지속적 추진, 핵심 교역상대국과의 산업 및 통상 협력 강화, 그리고 국제사회 주요 기구 및 협의체를 활용한 자유무역 기조의 재확산을 위한 노력 등이 필요

□ 기체결 FTA의 고도화와 신규 FTA의 지속적 추진

- 우리나라는 WTO 체제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한 국가로서 1999년 한-칠레 FTA를 필두로 전세계 55개 국가와 16개의 FTA를 체결하였고 현재 영국, 이스라엘, 인도네시아와 FTA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한-중-일 FTA 등 다수의 자유무역협정을 논의 중

○ FTA는 가장 효과적인 보호무역주의 대응 방안

-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를 포괄하는 FTA는 보호주의 발호를 가장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수단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교역 비중이 전체 교역의 70%에 육박할 정도로 높기 때문에
- 기체결 FTA 국가와 긴밀한 상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도 많은 부분 보호주의 무역조치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음

<표 VI-1>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과의 교역현황

(단위: 억불, %)

구 분		교역 규모			
		교역	수출	수입	수지
FTA 발효국	'18	7,732	4,386	3,346	1,040
	'19	7,252 (△6.2)	3,984 (△9.2)	3,268 (△2.3)	715
비발효국	'18	3,671	1,666	2,005	△339
	'19	3,204 (△12.7)	1,440 (△13.6)	1,764 (△12.0)	△324
전체	'18	11,403	6,052	5,352	700
	'19	10,456 (△8.3)	5,423 (△10.4)	5,033 (△6.0)	391

자료: 관세청 보도자료(2020)

○ FTA를 고도화하고 새로운 FTA 추진 노력 병행

- 우리나라의 FTA 수출 활용률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세안,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등과의 FTA 활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아세안 교역 확대 추이를 고려한다면, 이는 빠르게 시정되어야 할 부분
- FTA 활용률 개선을 통해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와 해당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

〈표 VI-2〉 우리나라 FTA 수출 활용률(단위:%)

협정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칠레	78.9	80.5	80.7	78.6	77.6	85.0	79.6
EFTA	80.3	79.6	80.4	80.4	82.2	84.2	83.2
아세안	36.4	37.0	42.5	46.0	46.1	52.1	51.3
인도	43.2	56.3	62.4	65.8	67.5	70.9	73.0
EU	85.6	85.3	85.3	84.8	85.5	86.7	86.9
페루	91.9	90.5	83.6	83.3	78.2	79.5	84.7
미국	77.0	76.2	79.1	75.6	86.1	86.0	85.2
터키	69.4	72.7	79.1	80.4	71.9	80.1	77.5
호주	-	-	69.7	77.4	80.1	82.7	82.8
캐나다	-	-	79.9	89.1	93.4	93.6	95.2
중국	-	-	-	-	49.7	55.0	57.2
뉴질랜드	-	-	-	-	35.3	36.0	41.2
베트남	-	-	-	-	50.4	47.8	46.1
콜롬비아	-	-	-	-	49.8	53.0	52.9

자료: 통계청

- 개별국과의 협상 이외에도 다자간 협상으로 추진 중인 RCEP과 이미 출범한 CPTPP에 대한 가입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대응전략 수립 필요
- 또한, 최근 경제성장 추세와 물류시스템의 발전에 따라 지역적으로 매우 떨어져 있는 MERCOSUR와의 협상 추진과 자원협력 강화를 위한 GCC 국가와의 FTA 추진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주요 FTA 체결을 위한 과제

☐ 자유무역 기조 유지를 위한 협력 확대

○ 지역적 협력 강화

- 전 세계적 이슈에 관한 결과 도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EU, 아세안, NAFTA 등 경제 지역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인접한 한-일, 한-중, 한-중-일 협력을 통한 지역 경제 블록을 추진 노력 필요

- 이를 통해 산업협력 추진과 변화하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효과적 대응
- 또한, 이번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 간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탈중국화 현상에 대비하는 노력을 병행
- 한-중-일 경제 블록 형성과 탈중국에 대비한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는 상충되는 전략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국제적 협력의 방식과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대안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유의미

○ 글로벌 협력 강화

- 미-중간의 무역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별국으로서 미-중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상황에서 보호주의의 지속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의 강화는 중요
- G20, APEC, WTO 등은 여전히 미국과 중국과의 직접적인 갈등을 피하면서 문제해결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이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바와 같이 G7을 G11으로 확대할 경우 우리나라 역시 참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또한 보호주의 대응하는 글로벌 협력을 위한 수단으로 기능할 것
- 다만, 개별 회원국으로서의 의견 개진보다는 우리와 입장을 공유하는 회원국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공동의 이해를 만들고 본 회의에서 제기한다면, 위험을 피하고 더 큰 반향을 얻을 수 있을 것

2. 통상리스크 관리 및 축소를 위한 정책추진

□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 대응

○ 미-중 디커플링에 대비한 공급망 구축

- 미-중 갈등의 1단계 합의에도 불구하고, G2 사이의 패권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
- 양국 간의 갈등이 상호 상대방을 배제하는 독자적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양국 모두와 밀접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매우 어려운 과제가 부여됨
- 누구와 협력할 것인가라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적화된 전략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강화되거나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에서는 아세안 등 신흥국을 포함하는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고, 반면 중국 혹은 제3국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부문은 현재의 공급망을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대응
- 이와 함께 누차 제기하였던 바와 같이 미-중 디커플링에 대비한 공급망을 다변화 또는 중층화 노력이 요구됨

○ 글로벌 생산기지로 주목받는 아세안과 인도를 포함하는 공급망 구축

- 중국의 가공무역 억제를 통한 자국의 산업발전을 추구하는 방식으로의 경제 정책 추진과 중국의 생산 비용 이점 축소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이 차지하던 역할의 축소를 야기
- 여전히 중국은 매력적인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누려왔던 절대적인 생산거점으로서의 역할은 축소되는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대체 생산기지의 물색이 필요
- 최근 다국적 제조기업들의 탈중국 이후 자신의 생산시설을 이전하고 있는 베트남, 미얀마 등을 포함한 아세안과 인도는 중국의 대체생산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들 지역을 포함하는 공급망 구축
- 중국 진출 우리 기업 역시 이러한 변화를 체감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 및 인도로의 이전을 통해 새로운 공급망 형성을

준비

-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아세안과 인도를 포함하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해당지역에서 비교우위를 갖는 유망한 산업을 발굴하고, 기업의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효율적 체계를 구축해야 함

○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주요 산업의 국내 공급망 구축 필요

- 일본의 수출 규제와 코로나-19의 확산은 우리나라 글로벌가치사슬의 취약성이 표면화되었고,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핵심 산업의 공급망을 국내에 갖출 필요성이 높음
- 2019년 7월 개시된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우리나라는 국내에서의 대체 생산이나 개발에 시일이 걸리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우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여 대응

〈표 VI-3〉 일본 수출 규제 이후 대응 성과

일자	내용
2019년 7월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국산화 및 수입선 다변화
2019년 8월	효성은 탄소섬유 생산을 위해 전주공장 추가증설에 1조원 투자 발표
2019년 8월	현대모비스 친환경차 부품을 21년부터 생산하기 위한 공장 신설을 위한 3000억원 투자 발표
2019년 9월	미국 장비회사 한국내 &D 센터 설립 결정
2019년 11월	LG 일본 초고순도 불화수소를 한국 기업인 솔브레인 제품으로 대체
2019년 말	기체 불화수소인 애칭가스 생산을 위한 신규공장 완공과 시제품 생산

자료: 주요 신문 정리

- 또한 코로나-19로 중국에서 생산되던 현대차 부품을 공급하던 와이어링 하네스의 가동 중단으로 자동차 생산이 일시 중지되는 경험을 하였는바,

- 공급망을 위협하는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은 핵심적인 부품과 소재를 선별
- 장기적으로는 선별된 업종에서 생산 역량이 확충하여 국내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단기적으로 수입국 다변화를 통해 공급망을 확보해야 함

□ 무역집중도의 개선

○ 주요 업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수출 다변화

- 반도체와 휴대폰을 제외한 업종에서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세계 시장에서의 수출점유율 하락을 의미
-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는 대부분이 반도체와 휴대폰 수출 증가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수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주요 품목의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을 마련이 필요

<표 VI-4> 우리나라 산업별 수출비중과 세계 산업별 수출 비중 (2018)

단위: %

	한국	세계
전기전자	36.9	18.0
전자부품	(25.6)	(6.2)
통신기기	(3.7)	(3.4)
가전	(2.7)	(3.2)
자동차	10.7	8.6
화학제품	12.7	7.5
기계류	7.8	7.2
석유제품	7.7	4.4
섬유류	2.3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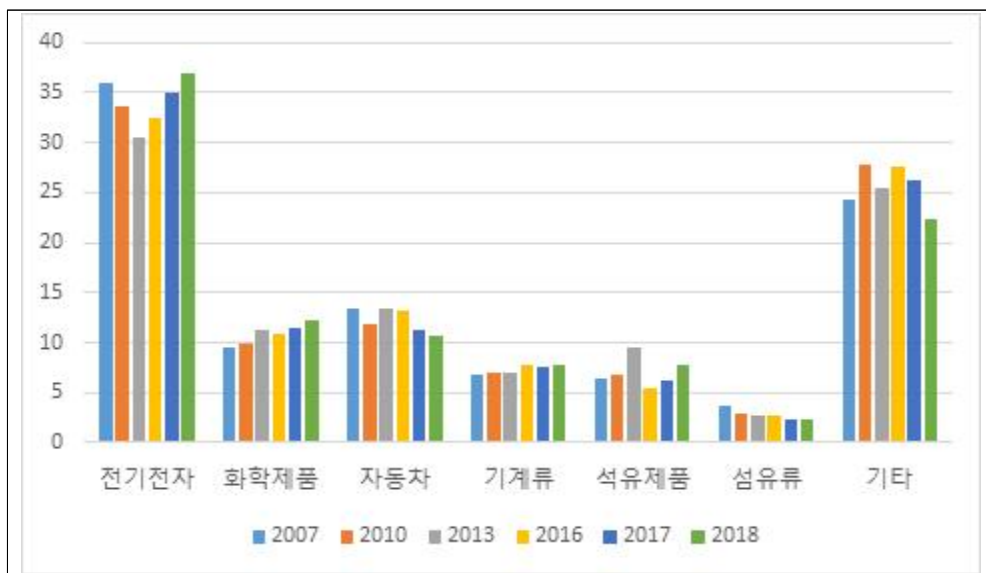
자료: UN Comtrade

-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화학, 자동차, 기계류, 석유제품, 철강제품 등 핵심 품목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함

- 이와 함께, 최근 경제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산업들인 데이터 산업, AI, 3-D 프린팅 등 신산업 분야의 교역 및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 역시 준비해야 함

〈그림 VI-1〉 우리나라 주요산업 수출비중

단위: %



자료: 무역협회

○ 수출 지역의 다변화

- 품목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수출은 중국, 미국, 아세안에 집중되고 있는 문제점을 노출, 대세계 지역별 수입 비중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개도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중국과 아세안 시장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
- 세계 수입시장의 점유율과 비교 시 가장 크게 나타나는 점은 EU로의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현저하게 낮다는 점인데, 수출 지역의 다변화를 위해서는 EU 시장에 대한 수출확대를 모색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선진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함

- 또한, 신흥시장의 경제성장률과 향후 시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최근 하락하고 있는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증가율을 회복하는 것 역시 수출 동력 유지에 필요.

〈표 VI-5〉 수입에서 차지하는 지역별 비중(단위 : %)

	2018	
	세계시장 수입 비중	우리나라 수출 비중
신흥개도국	45.1	57.7
중국	10.8	26.8
ASEAN	7.2	16.6
한국	2.7	-
중동	3.8	3.6
중남미	3.3	4.6
선진국	54.9	42.0
미국	13.2	12.0
EU	29.0	9.5
일본	3.8	5.0

자료:WTO

3. 통상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전략 모색

- 최근 급격한 교역 축소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를 단지 위기로만 인식하기 보다는 통상질서의 재편과정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기회로 인식하고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 특히, 코로나-19의 극복과정에서 국가 브랜드가 상당히 높아진 사실을 활용하는 전략 모색 필요

☐ K-Brand를 활용한 통상확대

☐ 신산업 분야 및 신기술 분야 선도 전략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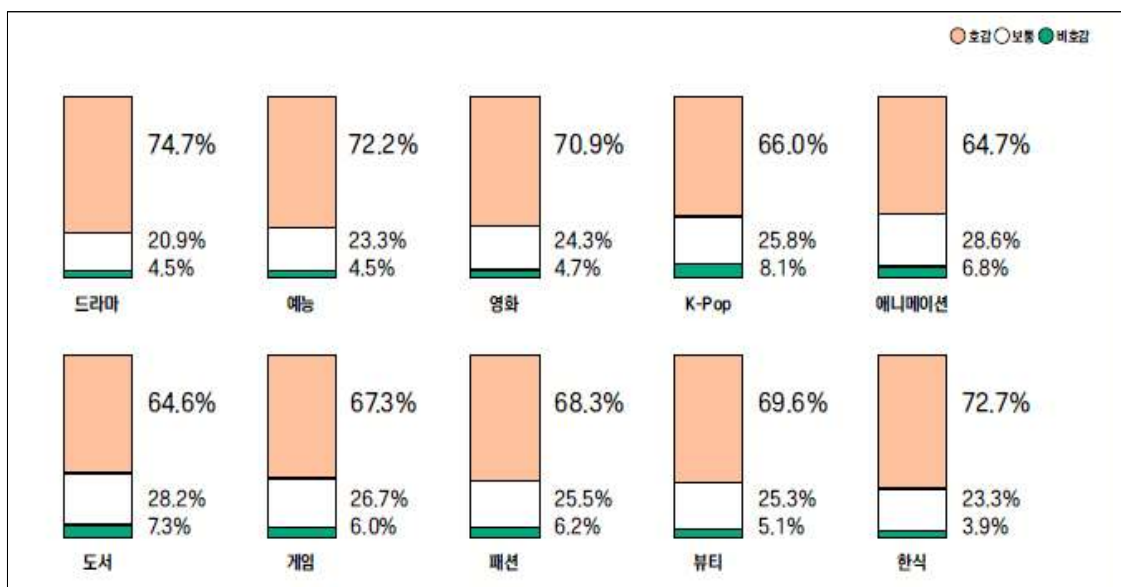
- 신산업 분야 및 신기술 분야는 아직까지 글로벌 기준이나 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많은 경우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의 확고한 출현이 없다는 점

- 더불어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은 향후 글로벌 경제를 주도해 나갈 분야로 해당 부문 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시장에서의 핵심 사업자로서의 입지 구축이 중요
- 신산업부문이 부재하거나 형성의 초기 단계에 있는 국가들과의 해당 부분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은 상대국에서 우리나라의 미래 위상을 확립하는 방안
- 코로나-19를 통해 향상된 국가 브랜드와 의료협력을 통해 공고화된 국가 간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산업 및 신기술 분야의 주도자로서 위치를 확립해야 함

○ 소재 부품을 넘어 의료 및 소비재 분야 교역 확대

- 2000년대 한류를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세계인들의 인식은 매우 호의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코로나-19를 통해 증명된 K-방역은 이러한 호의적 인식을 강화할 것
- 한국 문화컨텐츠에 대한 16개국 7500명의 조사에서도 보여주고 있듯이 대부분의 문화컨텐츠에 대해 세계인의 호감도는 매우 높은 수준

<그림 VI-2> 한국 문화컨텐츠에 대한 호감도



자료: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19)

- 우리나라의 소비재 수출 비중은 2019년 12.1%에 그쳐 중간재 70.4%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인데, 한류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적극 활용한 소비재 수출확대 방안 모색이 필요
-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Brand-K”는 이러한 호의적 요인을 잘 반영한 정책으로 이를 더욱 확대 시행할 필요성이 높음

□ 주요산업의 핵심 활동 국내 유치

○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확인된 한국의 경제활동 안정성 확인

- 이번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보여준 안정적인 관리 능력은 경제활동의 핵심기능인 R&D와 생산 등에서 상대적인 이점으로 작용
- 특히, 경제의 shut-down 없이 팬데믹 상황을 관리하는 것은 중단없는 생산활동이 필요한 다국적 기업에는 매우 중요

○ 글로벌 기업은 이번 위기를 거치면서 공급망 재배치를 추진할 것

- 이번 위기는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서 안정성이 궁극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각인시켰으며
- 전 세계에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은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공급망 재구축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실제 2011년 태국 홍수의 발생 이후 일본의 대태국 투자가 감소하고, 일본의 대아세안 투자전략은 투자 다변화로 조정되었음

○ 공급망 핵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강화 필요

- 다국적기업의 공급망 재배치에서 우리가 강점을 지닌다고 할지라도, 핵심 기능 수행능력의 확충은 또 다른 필요조건

- 결국, 공급망 재배치를 주도하게 될 다국적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 기술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바로 진행되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필요한 기술과 인력을 외부로부터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함
- 더불어, 외국기업들이 국내에서 기업 활동 추진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규제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것 또한 과제

□ IT 기술을 활용한 역비교우위 전략 추진

○ IT 기술을 활용하는 비즈니스의 디지털 전환은 비용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 가능

- IT 인프라의 구축에 기초한 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자동화 혹은 4차 산업 혁명은 기존 국가간 생산비용의 격차를 축소시킬 것
- 5G, IoT,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 팩토리 등 다양한 기술의 생산현장 도입이 확대되면서 이러한 변화는 가속화 될 것
- 더불어, 이러한 기술은 비용과 함께 생산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켜 전체적인 비용 구조는 더욱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

〈표 VI-6〉 277개 중견/중소 기업 대상 스마트 공장 추진 성과

평가지표		성과
생산성	노동생산성	15% ↑
	납기	27% ↓
	생산품목 수	16% ↑
	시제품 제작기간	33% ↓
품질	불량률	33% ↓
비용	제조원가	23% ↓
매출	매출액	17%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5)

- 지멘스, 테슬라, 보잉, 포드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생산공정을 스마트화 함으로서 비용이나 수율에서 획기적인 개선을 경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스마트 공장을 설치가 급속하게 증가

○ 집적이익 극대화를 위한 방안 모색

-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산과정에서 기능별 비교우위 활용전략에 따라 R&D, 생산, 유통, 서비스 등이 전 세계에 산재하고 있으며, IT의 발전과 물류시스템 개선은 이러한 가치사슬의 확산을 수월하게 만듦.
- 그러나 이번 코로나 위기 이후 이러한 분절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체제는 중장기적으로 위기에 취약한 한계를 드러냄과 동시에 전체적인 공정의 많은 부분이 집적된 시스템이 우월할 수 있음을 제기
- 생산공정의 집적 뿐 아니라 R&D와 생산의 집적을 통한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이 현재의 글로벌가치사슬을 대체할 방안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큼
-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국내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집적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

4. 글로벌 통상강국으로의 도약

□ 교역 상대별 차별화된 전략 추진

○ 수출에서 교역 확대로

- 우리나라 성장과정에서 수출, 무역수지의 확대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해 왔으나, 이러한 전략은 개도국과의 교역에서는 한계를 지닌 방식으로, 더욱이 최근 미국이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공정무역 등은 무차별한 수출확대와 무역수지 증가는 국가 간 갈등의 소지를 내포
- 특히, 개도국과의 협력에서 수출확대 정책은 시장의 성장이 담보되지 않

는 한 그 자체로서 확대에 한계를 지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볼 때 수출의 확대보다는 상대국가의 경제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교역의 확대가 바람직

- 이를 위해서는 개도국의 산업발전을 지원하고, 개도국으로부터 수입 가능한 품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해당국의 성장에 기여함으로써 달성 가능
- 또한, 교역을 확대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상대국에 협력파트너로서 긍정적 신호를 부여하게 되어 보다 경제적 측면 이외에도 정치적 그리고 외교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주요 국가와의 산업협력 강화

- 산업화를 거쳐 경제적 입지를 확보한 국가들과의 협력은 기본적으로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교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 특히, 한 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일방적인 방식의 협력이 아닌 개별국가가 특화된 경쟁력을 활용한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음
- 특정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와는 우리나라의 생산기술을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는 과정은 특정 상품의 개발과 상용화 실현
- 신산업분야에서는 협력을 통해 국제 표준설정에 상호 노력함으로써 해당산업분야에서 글로벌 입지 구축에 유리

□ 통상강국으로서의 위상 정립

○ 통상조직의 확대 강화

- 통상조직이 기존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이관됨으로서 통상 문제의 접근을 산업과 연계하여 고려하게 된 사실은 매우 고무적
- 통상교섭본부에 2018년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신설하고 인력을 확대한 점

은 새로운 통상환경과 통상의 중요성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음

- 특히, 최근 급변하는 환경은 전문 기술 관련 인력, 전문 통상법 관련 인력의 충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본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되기는 어려운 구조이고, 민간으로부터의 충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 마찬가지로 특정 국가 전문가 역시 민간으로부터 충원이 필요
- 또한, 통상은 전문적인 영역으로 해당 업무의 경험을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바, 순환보직과 함께 필요에 따른 지속적인 동일 부서 근무방식도 고려되어야 함
- 정부조직 뿐 아니라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을 체계화하고 일상화하는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통상 관련 상시대응 능력 확대가 중요

○ 국제기구에서의 활동 확대

- 우리나라의 통상에서의 위상을 고려할 때, 통상 및 관련 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에 포지션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
- 새롭게 선출될 WTO 사무총장에 우리나라 통상교섭본부장이 도전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이러한 시도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음
- 또한, 실무를 담당하는 위치에 우리나라 통상교섭본부나 민간으로부터 진출하는 것은 실제적인 국제통상 흐름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분담금 등을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더 많은 포지션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
- 분담금 확대는 이외에도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위상을 확인하는 중요한 잣대

○ ODA의 효율적 확대

-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함으로써 원조를 받던 위치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
- 우리나라의 ODA 공여 규모는 여타 국가들과 비교하면 GNI 대비 비중이나 규모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족
-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닌 산업발전 경험은 개도국에게는 자금의 원조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이 가능
- 무역을 통한 원조(Aids for Trade)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가운데, 우리가 지닌 개발 경험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재원을 활용하여 극대화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자산

〈표 VI-7〉 원조공여국으로서의 한국의 차별화된 특성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빈국에서 경제 및 사회개발을 성공시킨 경험을 지닌 국가 - 개도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진국에 진입한 국가 -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변신한 나라 - 수원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변신한 나라 - IT/정보화 미래사회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 -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을 잘 모색해 나가는 국가 - 혁신의 모멘텀을 잘 활용하고 변화의 방향을 찾아가는 국가 |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5)

- 이러한 장점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통로인 지식공유사업(KSP)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특히, 사업의 준비기간과 집행 간의 시차를 축소하여 적시에 사업을 집행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 성과 창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지식공유사업이나 개도국 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과에 대한 평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행하고 사업의 지원을 단기적 성과에 의해 결정하는 방식의 평가 방법 개선이 필요

참고문헌

<국내문헌>

관계부처합동 (2019. 9)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

김재덕(2019)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와 거시적 영향” 산업연구원, 월간 산업경제

무역협회(2019), “통상전략 2020” , 무역협회

문병기 외 (2019) “미중 무역 분쟁의 수출 영향” Trade Focus 24호, 국제 무역연구원

민혁기, 김재덕, 신현수 (2017), “글로벌 무역정체하에서 한국 무역구조의 변화와 수출확대 전략” ,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민혁기 외(2018), “트럼프 보호주의 무역정책의 지속성 여부와 대응방안” , 산업연구원 월간산업경제

박솔 외(2015), “중국의 가공무역 수입 변화 및 시사점” , 무역협회

심영섭 외 (2011), “산업, 기술, 투자의 연계를 통한 2020 무역발전 비전과 전략” , 산업연구원

이유진(2020) “미중 1단계 무역합의 경과와 우리 수출의 영향” Trade Brief,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한국무역협회

이장규 외(2016), “중국경제의 구조변화와 한국 경제에 대한 시사점” , 대외 경제정책 연구원

윤상하(2009), “내수주도형 성장의 의미와 한계” , LG 경제연구원 Weekly 포커스

정은미 외(2019), “글로벌 가치사슬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산업연구원 수탁보고서

지만수(2020), “미중 경제전쟁”, 산업연구원 세미나 발표자료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19), “글로벌한류 트렌드 2019”,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외국문헌>

ADB (2018) “The Impact of Trade Conflict on Developing Asia” Asia Development Bank Working Paper

Aghion, Phillippe, Christopher Harris, Peter Howitt, and John Vickers (2001), “Competition, Imitation and Growth with Step by Step Innovation”, Review of Economic Studies 68

Bown(2019) “US-China Trade War: The Guns of August” Trade and Investment Policy Watch, PIIE

Deloitte Analysis (2019), “2019 Global Automotive Supplier Study”

Ferrantino, M and D Taglioni(2014), “Global Value Chains in the Current Trade Slowdown”, World Bank Economic Premise No. 137, Washington, DC.

IMF(2020),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0:The Great Lockdown”,

Merics(2016), “Merics Paper on China 2016”

OECD(2020), “OECD Economic Outlook”, OECD

OECD(2016), “Cardiac Arrest or Dizzy Spell: Why is World Trade So Weak and What can Policy Do About It?”, OECD, OECD Economic Policy Paper 2016, No. 18

Pian Shu and Claudia Steinwender (2018), “The Impact of Trade Liberalization on Firm Productivity and Innovation”, NBER working paper 24715

PIIE(2018), “Can digital flows compensate for Lethargic trade and investment?”

WTO(2020), “Tradeing for Development in the Age of Global Value Chains”, WTO World Development Report

WTO(2020), “Twenty-Fifth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 .

WTO(2020), “Methodology for the WTO Trade Forecast of April 2020”, WTO

<Website>

한국은행, www.bok.or.kr

World Bank, data.worldbank.org

World Bank, wits.worldbank.org

Global Trade Alert, www.globaltradealert.org

Pew Research Center, pewresearch.org

RIETI, rieti.go.jp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2122000009?input=1195m>

Unctad, unctad.org

UN Comtrade

관세청 보도자료(2020)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5)

중앙일보

